PDF자료집

주체90(2001)년

청년동맹



≪6.15주간≫ ÆÍÁý°Î

청년동맹

6.15주간 편집부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해

왕청에서 진행된 공청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주체22(1933)년 3월 27일

동무들!

우리가 명월구회의 방침에 따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개시한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와 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해방지구인 유격구를 창설해 놓았습니다. 두만강연안의 유격구가 창설됨으로써 우리 유격대는 군사정치활동을 민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격근거지에 의거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들을 반일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자체의 군사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부단히 확대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의 공청단체들과 공청원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청단체들은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벌여 적지 않은 청년들을 자기 조직에 묶어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항일 무장투쟁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유격대 내의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전투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담성, 자기

희생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유격구내의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적들의 침해로부터 굳건히 사수하였습니다. 적통치구역의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야만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격대를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고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지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유격대의 군사정치활동이 강화되고 그 영향에 우리 인민의 각종 반일 투쟁이 앙양되는 데 질겁하여 유격대와 유격구를 소멸하려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광범한 반일군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반일투쟁에 궐기시킴으로써 일제의 발악적 책동을 분쇄하며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범한 청년들을 반일투쟁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혁명투쟁에서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격전투에서나 적통치구역에서의 조직정치사업에서나를 막론하고 혁명투쟁에서 가장 용감히 싸우는 사람들은 바로 청년들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사람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각급 공청단체들의 사업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와 토론을 들어 보아도 공청단체들의 사업에 심중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청단체들이 자기 조직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각계각층 청년들을 교양훈련하는 사업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청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는 결함들을 빨리 시정하고 공청조직을 확대강화하여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선전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공청조직을 확대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공청조직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공청단체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공청조직을 확대강화해야만 공청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공청이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유격대를 강화하는 사업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청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청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되는 결함은 좌경관문주의입니다. 좌경관문주의는 지나치게 높은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준비된 청년들을 공청조직에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청조직에는 청년들 속에서 가장 우수한 분자들을 선발해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몇 년 동안 지하비밀사업을 통해 단련되고 훈련된 청년들이 사업태도에서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청년들과 농민청년들이 지식이 좀 부족하고 학생청년들이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그들을 공청조직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태도상 결함은 교양하면 얼마든지 고쳐 줄 수 있으며 몰라서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교육을 주어 사업수준을 높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20살에 가까운 청년들을 어리다고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 나라의 한 무인인 남 이 장군은 남자로서 20살에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면 훗날에 누가 대장부라고 하겠는가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오늘 20살에 가까운 청년들을 어떻게 나이가 어리다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부 공청조직들에서는 많은 청년들을 조직에 받아들이면 조직의 비밀이 새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응당 받아들여야 할 청년들마저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유해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켜야 하며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밀을 고수한다고 하여 공청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주저한다면 혁명역량을 튼튼히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을 공청에 받아들이고도 그들이 혁명의 비밀을 엄수하도록 교양사업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좌경관문주의적 경향은 공청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데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좌경관문주의적 오류로 인해 적통치구역의 어떤 곳에서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이미 농, 반, 호 3단체와 소년선봉대에 들어 조직생활을 1년 이상 했지만 그 가운데서 공청원이 된 사람은 겨우 3~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더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경관문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퇴치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검열된 청년들을 공청조직에 적극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공청조직들은 유격대 내 청년들과 유격구 내 반일자위대를 비롯한 혁명조직에서 실지투쟁을 통해 검열된 청년들을 자기 조직에 우선 받아들여야 하며 이와함께 적통치구역에 깊이 침투해 각성된 선진적인 청년들을 자기 조직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지금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적통치구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 공청조직들은 적들의 파괴책동으로 인해 적지않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각급 공청단체들은 적통치구역 청년들의 사업을 능숙하게 전개해 광범한 청년들을 공청조직에 적극 묶어세워야 합니다.

우선 각급 공청단체들은 혁명성과 적극성, 단결력이 강한 노동청년들과 함께 농민청년들을 자기 대오에 적극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의 절대다수는 농민청년들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농촌무산자나 다름없습니다. 계급적으로 각성한 농민청년들을 공청조직에 받아들여 노동청년들과 함께 혁명의 주력부대로 키워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청단체들은 선진적 학생청년들을 자기 대열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절대로 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학생청년들은 일제의 민족적 억압과 천대를 받기 때문에 민족적 각성과 애국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청년들은 대체로 출신성분여하를 막론하고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며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의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청년들은 선진적 공산주의사상의 선각자로, 사회계몽운동의 선구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929년 11월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이 잘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청조직사업에서 좌경관문주의적 경향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경적 편향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경적 편향은 공청조직을 확대강화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파악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청년들을 무원칙하게 조직에 받아들이려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격구나 적통치구역의 일부 공청단체들에서는 계급교양과 반일애국주의적 교양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청년들을 함부로 조직에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농청년대중의 전위조직인 공청조직에 계급의식과 반일애국사상이 확고하지 못한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현상이 계속 허용된다면 공청대열 속에 불순분자와 우연분자들이 기어들어 공청조직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좌경관문주의적 경향과 우경적 편향을 다 철저히 배격하고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조직사업을 잘해 용감하고 선진적인 청년들을 더 많이 묶어세워 공청조직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각급 공청단체들은 광범한 청년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개선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청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여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만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제는 항일무장투쟁이 날로 확대발전하는 데 질겁해 유격대와 유격구에 대한 군사적 토벌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파괴하고 와해하기 위해 정치적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고는 적들의 군사적 공세와 사상적 공세를 분쇄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청단체들에서는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청단체들의 사상교양사업에서 주되는 결함은 그것이 뚜렷한 목표와 내용이 없고 대상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상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하는 사상교양사업은 예수교의 전도사가 하는 설교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맑스-레닌주의를 선전한다고 떠들기는 하나 대상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빈말만 늘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교의 전도사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허위를 진리라고 하며 비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기만함에도 불구하고 각이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그럴 듯하게 설교하기 때문에 일부 지식층까지도 거기에 매혹되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취성, 혁명성, 영웅성, 진리와 이상적 사회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이며 누구보다도 빠른 감수성입니다. 그런데 공청조직들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면서 각이한 지방의 실정과 생활풍속,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를 참작해 선전선동이나 개별교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천편일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시기 공청단체들의 사상교양사업은 광범한 청년들로 하여금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반일성전에 적극 떨쳐나서며 그 투쟁에서 앞장서도록 그들의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을 고취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공청단체들은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일제의 음흉한 식민지 정책과 그 교활성, 우리 인민에 대한 야수적 학살만행을 폭로하는 선전사업을 부단히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광범한 청년들에게 반일사상의식을 강하게 넣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공청조직들은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친일지주, 친일자본가를 비롯한 일제의 주구들의 착취적 본성과 민족반역행위를 철저히 인식시키는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시기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해야 우리 청년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 삼천리 금수강산을 강점한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 속에서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잘 알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부단히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광범한 청년들이 반일성전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낙관주의교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청조직들은 청년들 속에서 일제의 취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해설선전하는 선전교양사업을 강화해 그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굴함없이 억세게 싸워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중국청년들과의 전투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청년들과의 전투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일제의 민족이간책동을 분쇄하고 반일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기본교리의 하나입니다. 공청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국청년들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며 특히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청단체들은 사상교양사업을 반드시 청년들이 수행하는 혁명임무와 밀접히 결부해 진행해야만 그것이 빈말공부로 되지 않고 실제로 혁명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공청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당면하게는 항일무장투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과 결부하여 전개함으로써 청년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유격구를 튼튼히 보위하며 반일인민유격대를 진심으로 지지성원하며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청년속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은 반드시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질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식으로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공청조직들은 청년들의 기질과 특성에 맞게 강연회, 좌담회, 선동연설, 정치토론회와 같은 구두선전도 조직하고 문예활동과 체육활동도 다양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상교양사업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게 해야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게 교양사업을 하려면 우선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그의 체질과 성격부터 이해합니다. 그것은 환자의 성격과 체질에 따라 같은 병이라도 그 증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또 약제와 그 분량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청조직들은 대상의 계급적 처지와 사상적 준비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 그에 맞는 교양을 주어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또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야 알아듣건 말건 외래어나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교양사업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의식수준이 어린 농민청년들을 모아 놓고 부르조아사회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느니, 소비에트를 세워야 한다느니,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가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멋을 부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선전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모였던 농민청년들은 ≪그 청년 참 미친 사람이로군, 조선말도 몰라서 외국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선혁명을 한다고 야단인가, 온종일 들어 봐야 조선독립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전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년들을 실망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청조직들은 멋을 부리지 말고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교양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한두 번의 교양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교양사업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청조직들은 한 번 교양해선 안 되면 두번 하고 두 번 교양해서 안 되면 열 번, 백 번이라도 인내성있게 해설하고 설복해 모든 청년들을 일제를 쳐부수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적극 불러 일으켜야 하겠습

니다.

세째로, 공청단체들은 공산주의아동단사업을 책임있게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아동단사업을 책임있게 지도하는 것은 공청조직을 강화하며 나아가 항일유격대를 강화하는 담보입니다. 공산주의아동단원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공산주의아동단을 강화함이 없이는 강력한 공산주의 청년조직을 정치적으로 준비된 견실한 공산주의 청년동맹원들이 없이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튼튼한 토대 위에서 창건할 수 없습니다. 현시기 공산주의 아동단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공청을 강화하며 나아가 당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단, 공청, 당을 가리켜 ≪3대동맹≫이라고 하며 ≪3대동맹≫을 강화하는 데 대한 노래까지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공청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공청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해 잘 배워 주는 한편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이 우리의 원쑤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어려서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청단체들은 어린이들이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에 의거해 생활하며 조직의 위임분공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조직관념을 체계적으로 길러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동단사업에서 아동단지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단 지도원은 아동단원들의 학습과 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선생이며 지도자입니다. 각급 공청단체들은 아동단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우수한 공청원들을 선발해 아동단 지도원으로 파견함으로써 그들이 아동단 사업을 책임있게 지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청단체들은 소년선봉대원들을 잘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공청단체들은 소년선봉대들에게 우선 군사지식을 보급하여 보초근무, 정찰임무, 통신연락, 간첩잡이와 같은 군사적 임무를 줄 뿐 아니라 정치학습과제를 주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확고한 민족적 자존심과 계급의식을 가지고 소년선봉대원답게 맡은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반일투쟁에 적극 기여하게 하는 한편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째로, 공청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청일군들이 옳은 군중관점을 가지고 청년들의 참된 지도자가 될 데 대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공청일군들이 외래어를 써가면서 행세하며 청년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고 묶어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공청사업은 각계각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일하는 과정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일군들이 친형제와 같은 심정으로, 참다운 혁명적 동지애로 청년들을 대하며 청년들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해 일을 해 나간다면, 공청사업이 비록 복잡하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소기의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청일군에게는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는 것이 선차적 과업으로 나섭니다.

공청일군들은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고 것과 함께 혁명적 사업방법을 소유해야 합니다. 혁명적 사업방법은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사업방법입니다. 공청일군들은 광범한 청년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해설사업을 하고 제기된 과업의 수행방도를 잘 알려 주어 그들 자신이 그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설복하고 교양하는 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방법입니다. 원래 혁명은 각성되고 의식화된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각성시키고 의식화하는 사업은 그 어떤 강요나 호령의 방법으로써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면팔방에 적을 두고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설복하고 교양하는 방법 외에는 광범한 청년들을 반일투쟁에 동원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청일군들이 결함이 있는 동무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공청일군들은 설복과 교양사업을 반드시 원칙적인 비판과 결부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비판도 참말로 동지적이고 대상의 성격과 준비정도에 맞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사업을 강화한다고 하여 대상의 성격과 준비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큰소리로 ≪엄중하다≫느니, ≪옳지 않다≫느니 하면서 이것저것 혹독하게 내리치기만 해서는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판을 옳게 하려면 먼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대상이 일아들을 수 있도록 결함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그것이 왜 나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며 결함을 고칠 방도를 구체적으로 대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말로 동지적이고 원칙적인 비판입니다. 동지애가 희박한 비판은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없으며 결함을 깊이 뉘우치게 할 수 없습니다.

공청일군들은 또한 청년들이 과오를 범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늘 일깨워 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공청일군들은 언제나 청년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배워 주고 도와주는 것을 습성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청일군들은 옳은 사업태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사업태도는 언제나 군중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몸바쳐 싸우며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공청일군들은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사업태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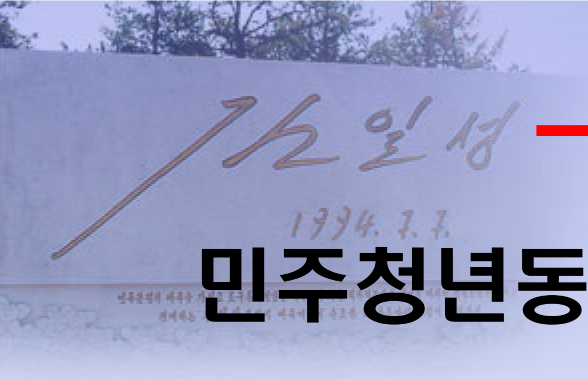
공청일군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해야 하며 대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검박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광범한 청년들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일군들은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청년들의 앞장에 서서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나가며 실천적 모범으로써 청년들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은 매우 준엄하고 간고한 투쟁입니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를 말살하고 무장투쟁을 진압하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반드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 것이며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모든 사람이 다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승리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청년들이 반일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선봉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각급 공청단체들이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여 광범한 청년대중을 자기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조선혁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울 수 있는 청년공산주의전위로 육성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 데 대하여

민주청년 열성자대회에서 한 결론
주체34(1945)년 12월 29일

동무들!

오늘 민주청년 열성자대회에는 조선청년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청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본 열성자대회에서는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과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청년들 앞에 제기된 당면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과거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군대, 헌병, 경찰, 감옥과 같은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우리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조선을 자기들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로,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일제는 우리 나라 산업의 중요명맥을 장악하고 귀중한 재부를 마음대로 빼앗아 갔으며 조선인민에 대한 전대미문의 약탈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실시하고 고유한 우리의 민족어와 성까지 빼앗으려고 광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으며 그것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 왔습니다.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의 선두에는 언제나 조국광복의 일념으로 불타는 슬기롭고 용감한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사건을 비롯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에서 조선청년들은 언제나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진정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그들은 15성상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였습니다. 실로 조선청년들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습니다.

동무들!

해방된 조선인민 앞에는 새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진해오디고 있습니다.

38선을 경계로 하여 북조선에는 사회주의국가 군대인 쏘련군대가 진주하고 남조선에는 제국주의국가 군대인 미군이 상륙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오늘 남북조선에는 상반되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애국적 민주역량에 의하여 반동세력이 제압당하고 있는 북조선과는 달리 남조선에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미군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꾸리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으며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공공연히 책동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우리의 건국사업에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국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반드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조선문제를 포함하여 전후 세계평화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소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나라에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선인민 자체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3천만 동포가 단결하지 못하여 힘이 약하다면 국제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이 채택되어도 민주주의적인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 자신입니다. 새 민주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민족이 단결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특히 씩씩하고 용감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열망하는 청년들을 민주주의깃발아래 튼튼히 결속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광범한 청년들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해서는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해야 합니다.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조선청년들을 결속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줄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는 것은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제잔재세력이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봉건세력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봉건세력은 늙은이를 어떻게 섬기고 남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윤리도덕 면에서 봉건적 인습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이 많이 남아 있는 사정으로 오늘 우리 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하는 데서 자본에 의하여 제한받고 자본의 통제를 받는 미국식 ≪민주주의≫, 다시 말하여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아니며 또한 쏘련식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정권에 참가하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인민적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혁명과업이 수행되면 농민들은 봉건적인 착취관계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민족자본가들도 기업활동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애국적 청년들을 굳게 결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국사업은 결코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강한 조직적 투쟁을 전개해야만 반동분자들을 타도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고 새 조국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오지 않는다면 청년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굳게 묶어세울 수 없습니다. 공산주

의청년동맹은 명칭 그대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는 무산청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지만 그 처지로 하여 공청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당 공청에 들어야 할 노동청년, 빈농출신의 청년들도 들지 않고 공청에서 하는 사업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악선전을 많이 한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공청조직 외에 기독교청년회, 백의청년동맹 등 여러 청년조직이 있으며 다른 당파에서는 청년들을 자기 당에 끌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는 단일한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오지 않는다면 중요한 혁명역량인 광범한 청년군중을 하나로 결속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완전히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이 제기한 실업청년들을 없애는 문제도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와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업청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파괴한 공장, 광산, 탄광들을 빨리 복구하여 운영해야 하며 또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도 많이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 자재, 자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애국적 인민들, 특히 청년들이 건국사업에 있는 힘과 기술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대중적인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청년들을 없애기 위하여 청년들 자체로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문제도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청년들을 대상하여서는 누구도 자금을 대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청년단체가 확고한 토대위에서 조직될 때에만 신용도 얻을 수 있고 공장부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동무들은 민주청년동맹의 결성이 청년조직을 우경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오고 광범한 청년들이 거기에 들 수 있도록 청년단체의 문을 연다고 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까지 다 들어오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청년조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철저히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동무들은 민주청년동맹을 내오면 청년들속에서 공청원들을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두려워 공청조직을 그대로 두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불순분자들이 민주청년동맹대열내에 기어들어와 공청원들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공청원들을 지지하고 따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민주역량이 강대한 조건에서 일부 불순분자들이 책동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얼마든지 분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년조직의 문을 닫아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 청년들이 공산주의청년동맹을 그대로 두고 새로 민주청년동맹을 내오면 좋지 않겠는가고 한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단계에서는 어떤 청년조직이나 다 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청년동맹과 민주청년동맹을 따로 두어 청년대열을 갈라놓겠습니까.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오히려 혁명에 해로운 것입니다. 공청조직을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해야만 광범한 청년들을 민주주의의 길로 옳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청년동맹을 내오고 거기에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세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공통된 임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의 청년이든지 나라를 사랑하고 새 조선 건설을 열망하는 청년이라면 다같이 민주주의혁명을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바쳐야 합니다. 사실 지금 노동자, 농민 출신의 청년들뿐 아니라 다른 계층의 청년들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지지하고 민주조선건설에 적극 참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을 하나의 청년조직에 묶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유리한 환경에서 청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그 어려운 때에도 각계각층의 인민들과 청년들을 묶어세웠습니다.

나는 동무들에게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중국에는 항일구국군이라는 반일부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미워하고 살해하는 만행을 자꾸 감행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와 싸우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국군부대의 두령을 만나 조중인민은 같은 투쟁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함께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일제의 대병력이 집결되어 있는 동녕현성에 대한 진공전투를 조직하였으며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며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구국군들의 생명을 위험 속에서 구원하여 주는 것과 같은 고상한 풍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시에 대한 진공전투를 통하여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상의식이 불철저한 구국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구국군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풍모에 감화되어 공산주의자로 개조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일구국군들과의 공동행동을 실현하여 그들을 전취하였는데 오늘과 같이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유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 청년들을 전취하지 못할 근거란 없습니다. 동무들이 청년대중 속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모든 애국적 청년들을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적 투사들인 청년열성자들은 응당 청년운동의 선두에 서서 광범한 청년대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할 의향을 가진 모든 청년들을 묶어세워야 합니다. 애국적 청년이라면 신앙과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다 민청조직에 망라시켜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이 우리 나라의 계급구성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혁명의 기본역량을 이루고 있는 것만큼 노동청년들과 농민청년들을 쟁취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사업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민청조직노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공청의 좁은 테두리안에 주저앉아서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이런 협애한 견해를 극복하고 민청조직노선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모든 민주청년열성자들은 광범한 청년들에게 왜 오늘 공청을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옳게 이해시켜 그들이 민청조직노선의 정당성을 똑똑히 알고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도에서 하루속히 청년열성자들의 회의를 열고 민청조직을 내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민주청년동맹을 빨리 조직하고 청년들을 하나의 청년조직에 튼튼히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오늘 회의 정신을 받들고 대중적 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현 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77(1988)년 10월 12일

다음해에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세계 5대륙의 진보적 청년학생대표들이 주체의 조국인 우리 나라에 와서 국제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결의를 다지는 것은 세계청년운동발전에서 뜻깊은 일로 될 뿐아니라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 련대성의 힘있는 시위로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전은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우리 나라 청년학생들의 높은 혁명적 기개와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는데서 물질적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사상적 준비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축전을 계기로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흥망과 인류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력사는 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는데서 언제나 청년들이 앞장에 섰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한 것은 다름아닌 청년들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외세의존의 낡은 사조와 대담하게 결별하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청년시절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전설적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시였습니다. 우리 혁명이 청년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청년투사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개척되였다는 점에서 우리 혁명의 뿌리는 청년운동으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것을 창조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는데서 청년들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 다른 나라 력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사명을 옳게 자각하고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인류력사발전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역사의 대상으로만 되여있던 인민대중이 오늘은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력사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그러나 현시기 인류의 자주화위업은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역전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결탁하면서 련합된 세력으로 세계자주력량을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인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요, ≪군축≫이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오히려 군비를 확장하고 핵전쟁준비를 다그치는가 하면 ≪완화≫와 ≪대화≫의 막뒤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책동과 전복음모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원조≫요, ≪협조≫요 하는 것도 약육강식의 낡은 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제국주의의 교활성과 악랄성은 썩어빠진 부르죠아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려 새 세대 청년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 불구는 육체적 불구보다 더 큰 불행이며 자주의식이 마비된 정신적 불구자는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청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질과 생명력을 빼앗고 수억만의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은 지난 시기 청년들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든 파시스트무리들의 죄행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자주, 평화,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이며 자주시대의 청년들이 사상과 신앙,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단합된 력량으로 맞서 싸워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늙은 승냥이와 같은 현대제국주의의 교활하고 추악한 정체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제국주의 마수로부터 인류의 운명을 구원하고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지키기 위하여 반제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합니다.

청년들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정치, 경제적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퇴폐적인 사상과 문화를 배격하고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에 맞는 건전한 사상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은 반제자주화위업에 헌신함으로써 력사와 인류앞에 지닌 영예로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바로 여기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고 자기의 한생을 빛내여야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청년시절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옳게 살기 위하여서는 청년시절에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인생의 훌륭한 결실을 위해서는 청춘의 힘과 열정을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위업에 바쳐야 합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오직 사회적 집단속에서만 살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은 인민대중의 생명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전인류의 큰 생명과 련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의 운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한다면 사회와 집단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며 그런 사람은 뿌리와 아지에서 떨어진 잎사귀와 같은 존재로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 자기의 개인적 욕망을 아무리 마음껏 충족시켜도 사회와 집단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없다면 그러한 한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무한 것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호의호식하면서 안락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사회를 위하여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한생은 력사에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집단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집단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며 그들의 이름은 력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개인의 요구와 리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행복과 보람찬 삶은 개인의 요구와 이익이 사회공동의 요구, 사회공동의 리익과 결합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에 충실하면 그만큼 자기자신에게도 충실한 것으로 됩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청춘의 희망을 꽃피우려고 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준비해나가야 하며 사회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조국에서 태어난 조선청년들이 현 시대앞에 지니고 있는 책임은 매우 큽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지키고 있으며 완전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며 인류의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앞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진보와 반동사이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은 자주시대흐름의 기본특징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 것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인민과 청년들이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면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반제투쟁과 새 사회 건설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선청년들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우리 당의 영도밑에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떠메고 나갈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투부대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은 온갖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력사적 위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의 길을 승리적으로 걸어왔으며 오늘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확고히 내다보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위업을 계승하여 끝까지 완성하려면 자본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근본적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자본주의사회는 어디까지나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착취계급사회이며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다같이 보람차게 사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우월성은 사회주의사회가 다같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라는데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결코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고 잘사는 사회인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 부가 많이 생산되여도 물질생활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며 부유한 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보람도 없는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막대한 재부를 마구 탕진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빈궁선이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량심마저 팔지 않으면 안되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건전한 물질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사상문화생활에서도 매우 빈곤한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주의식이 마비되고 사상문화적으로 부패타락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을 놓고 보더라도 문맹자와 정신적 불구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리상과 포부도 없이 순간의 안일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저속한 인간으로 변질되여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가 사람들에게 온갖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의 왕국≫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파렴치한 기만입니다. 자본가계급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정치생활에서 제외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자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는 사회공동의 리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자유이며 돈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실업자와 파산자, 알콜중독자와 마약중독자가 늘어나고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늘어나 사람들이 날로 더욱 불안과 절망에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는 사람들이 창조적 생활이 약동하는 건전하고 생기발랄한 사회이며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희망찬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전한 물질생활과 풍부한 사상문화생활, 자주적인 정치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걱정을 모르며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고르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마음껏 배우고 다같이 발전하며 무병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긍지높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도 실업자도 없고 알콜중독자나 마약중독자도 없으며 인민들이 생활에 불안과 고통을 주는 그 어떤 사회악도 없습니다. 인민들이 창조한 재부가 전적으로 인민들자신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들의 창조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날로 더욱 향상되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들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뚜렷히 나타납니다. 인민대중자신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국가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이 생활에서 정치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상적인 생활적 요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회주의 새 생활은 전 세대 청년들의 피와 땀의 댓가로 마련된 것이며 그들이 자기 세대에 맡겨진 력사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결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전 세대 청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기 세대에 맡겨진 력사적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온갖 도전으로부터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의 결정적 우월성을 더욱 과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업 수행에서 높은 충실성과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밝힌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정확한 행동이 지침이며 자주시대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입니다. 청년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여야 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 경험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투쟁하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올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던 조선의 애국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이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는데서 전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수령이시였을 뿐아니라 자기들에게 혁명가의 고귀한 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친근한 동지이시고 은인이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절대적인 충실성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가장 순결하고 견결한 것이였습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태여나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자라난 새 세대입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굳게 믿고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선열들의 모범을 따라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전사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언제어디서나 당의 근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며 인민들과 청년들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으며 인민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안고 어김없이 관철하리라는 높은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당정책을 한갖 의무로서만이 아니라 커다란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그 관철에서 높은 충실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당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야 하며 자기의 초소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들끓는 전투장에 용감하게 뛰여들어 모두다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간고한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하나 만들려고 하여도 거듭되는 실패를 이겨내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수천년동안 지속되여온 착취제도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인민을 위한 새 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 위

업을 아무런 난관과 우여곡절도 없이 쉽게 실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난관과 시련을 두려워하여서는 혁명가로 될 수 없습니다. 백절불굴의 강의한 투지를 가진 혁명가로 되려면 젊어서부터 어려운 투쟁속에서 단련되여야 합니다.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산다고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놀지 않는 신념을 갖고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 나가야 합니다. 혁명투쟁에서 패배주의와 비관주의는 투항과 변절에로 가는 길입니다. 청년들은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수록 더욱 용기백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높은 창조적 능력과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과 자연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거창한 창조적 사업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담당자이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년들은 마땅히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고 나갈 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하며 공산주의적 인간의 풍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사상의식이라면 사람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과학기술지식입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으며 나라들사이에 과학기술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치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의 과학기술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현대과학기술에서 창조적 위훈을 떨칠 수 없으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누구나 다 현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바로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청년들은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반대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 3대혁명소조원들 사이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과학적 발명운동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건장한 체력은 청춘의 기백과 활력의 원천이며 창조적 로동과 영웅적 투쟁의 담보로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상정신적으로 건전할뿐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장하고 조화롭게 발전된 힘있는 인간으로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 속에서 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화하여 청년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공산주의적 인간은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할 뿐 아니라 고상한 도덕품성과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생활할 줄 아는 새로운 형의 인간입니다. 공산주의적 혁명성은 고상한 도덕품성, 풍부한 정서와 결합될 때 진실하고 풍만한 생활적 바탕을 가진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년들이 동지들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화목하고 질서정연한 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속에서 문화정서교양을 강화하고 문학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청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노래와 춤이 있고 청춘의 기쁨과 랑만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속에서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조직을 통해서만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귀중한 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조직성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청소년시절부터 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잘하여야 조직생활에 습성화되고 높은 조직성을 지닌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나라의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는 혁명의 학교입니다. 청년들은 사로청원의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사로청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원들은 사로청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며 조직의 위임분공과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를 빛내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천년동안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은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응당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후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렬이 지속되여 온 지난 40여년의 력사는 한피줄을 나눈 겨레가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짐으로써 겪게 되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크며 자기의 침략적 야욕으로부터 다른 민족의 운명을 거리낌없이 짓밟는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세계의 면전에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북과 남의 인민들과 청년들은 힘을 합쳐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자라나는 세 세대들은 통일된 조국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적들의 탄압과 교활한 기만술책에도 굴하지 않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영용한 기개를 유감없이 떨치고 있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서 선봉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높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청년들은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 민족의 앞장에서야 하며 조선민족의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공동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반제, 평화, 친선의 리념에 맞게 잘 진행하여 우리 청년들과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축전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 청년학생들이 수많이 참가하게 됩니다. 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는 청년들은 인류의 희망과 미래를 대표하는 시대의 젊은 기수들이며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는 젊은 투사들입니다. 바로 이들속에서 시대의 걸출한 투사들과 영웅들이 나올 수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투쟁해나가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계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사랑하고 동지와 벗을 귀중히 여기는 뜨거운 심정으로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축전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이 축전의 숭고한 리념을 깊이 체득하며 우리 인민과 우리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을 품고 돌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그들이 앞으로 열렬한 반제투사, 새 사회 건설의 훌륭한 선구자로 되게 하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지지자, 동정자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여야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기대에 맞게 원만히 진행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적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청년절 5주년에 즈음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발표한 담화
주체85(1996)년 8월 24일

오늘 우리의 전체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어가는 청년전위의 높은 긍지와 영예를 안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청년절 5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절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영도 밑에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갈 우리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혁명적인 명절입니다.

혁명의 장래운명과 나라와 민족의 전도는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미래를 대표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교양 육성되며 준비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조선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국과 혁명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과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주체의 청년운동의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하여 왔습니다. 오늘 주체의 청년운동의 영광스런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한길로 전진하는 여기에 조선 청년운동의 불패의 위력과 양양한 전도가 있고 우리 청년들의 영예와 행복 휘황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은 우리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전위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조선청년들의 영예와 혁명적 기개를 더욱 높이 떨쳐야 합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조선 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고 영도자이십니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새 기원이 열리고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 줄기차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쇠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위업수행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고 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 청년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오신 주체의 청년운동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며 청년들을 혁명과 건설의 전위투사로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세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청년운동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부대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역량으로 규정하시였습니다.

청년들은 새것을 지향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하자고 결심하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내는 투지와 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질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활력있는 부대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적극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보시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이 청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밝히시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대표하는 새세대들입니다. 혁명위업의 명맥을 잇고 그 장래를 걸머질 담당자는 다름아닌 청년들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수행되는 혁명위업을 중단없이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완성해 나가자면 새세대 청년들이 전세대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선행세대가 이룩한 투쟁업적을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사업을 청년문제 해결의 관건적 고리로 보시고 이 사업을 청년운동의 기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청년들은 사상정신적으로 성숙과정에 있는 세대들이며 청년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발전하며 청년운동이 어떤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은 청년들이 어떤 지도를 받으며 어떻게 교양 육성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올바른 지도를 받고 혁명적으로 교양 육성될 때 혁명적인 세대로 준비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때에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반동의 길 부패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시대 청년운동이 혁명적인 운동으로 되자면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와 혁명적 교양을 떠나서 청년들이 의식화, 조직화될 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력한 혁명역량으로 될 수 없으며 혁명적인 세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청년사업을 틀어쥐고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 육성할 데 대한 사상은 청년문제 해결에서 근본핵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자주시대 청년운동발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입니다. 주체의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대중을 계몽하여 혁명운동에 안내하는 교량자적 역할에 국한시키고 청년들을 혁명의 보조적 역량으로 보던 선행 이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이론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청년운동이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의 위력한 구성부분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역사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영도하시는 전 기간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청년중시의 정치를 베푸시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었으며 청년운동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낡은 사조에 물젖지 않은 새세대 청년들에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난 사명과 임무를 깨우쳐주시고 청년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내세워주셨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혁명적 교양에 의하여 수많은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나 항일혁명대오의 골간을 이루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서 전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청년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항일의 혈전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신 업적과 경험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이며 조선청년운동 발전의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해방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조선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대중적 혁명조직 건설노선을 내놓으시어 각계각층 청년들을 새조국 건설의 깃발아래 하나의 청년조직에 묶어세우심으로써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청년운동의 분열을 막고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한결같이 새사회 건설에 떨쳐나설 수 있게 하시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능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세우는 것을 청년운동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 혁명실천을 통한 단련을 강화하며 청년동맹이 사상교양단체로써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풀어오신 청년중시의 정치는 청년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 조국과 혁명의 문제에 대한 굳은 신념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굳게 믿으시었으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시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시고 하나의 정책을 내놓으실 때에도 청년들의 지향과 요구를 먼저 헤아리시고 그들의 이상과 포부를 꽃피울 수 있게 하시었으며 청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시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건국사업에서 해야할 일들이 수없이 많은 조건에서도 후대들을 위하여 선참으로 종합대학과 혁명가유자녀학원부터 세우도록 하시었고 조국의 운명을 판갈이하는 가열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승리할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시고 전선에서 싸우는 대학생군인들을 대학에 불러 학업을 계속하게 하신 유례없는 사실들만으로도 청년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키우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쁜 사상과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반제반수정주의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미래를 사랑하라≫라는 구호는 혁명의 전도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신조였으며 이 구호에는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뜻과 위대한 인간적 풍모가 어리어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육친적 사랑과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청년들은 견결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지닌 새세대로 미래의 참다운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며 정의를 사랑하고 새것을 지향하며 패기와 정열에 넘친 청년들의 훌륭한 기질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청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혁명적으로 키워주시고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치신 우리 청소년들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공산주의혁명가의 최고 귀감이십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문제를 중시하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선차적 힘을 넣도록 하신 **김일성**동지의 영도가 얼마나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에 의하여 더욱 확증되고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세대교체문제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시기에 벌써 혁명의 3세대 4세대를 혁명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것이 주체위업을 계승 완성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혁명의 3세대, 4세대들이 1세대, 2세대들이 지닌 높은 혁명정신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선견지명 있는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이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할 수 있는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적지않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위업이 곡절을 겪고 좌절되게 된 것은 지난 시기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사업을 차요시하고 여기에 낯을 돌리지 않은 결과 세대가 바뀌면서 1세대 2세대의 뒤를 이을 혁명의 후비대가 튼튼히 준비되지 못한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청년운동은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였으며 우리 청년들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았습니다.

우리 혁명의 역사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데서 선봉에 선 것도 청년들이었고 조국해방전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생명을 바쳐 조국의 자유 독립을 수호한 영웅전사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벽돌 한장 성한 것이 없는 빈터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데서도 돌격대의 영예를 떨치었습니다.

유례없이 간고한 우리 혁명의 노정에는 난관과 시련의 고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위하였으며 당의 뜻과 구상을 선참으로 받들고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역사에서 청년들은 한번도 당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본 적이 없으며 언제나 당을 충성으로 받들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는 당을 따라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오면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들에는 우리의 남녀청년들이 세운 빛나는 위훈과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의 풍모는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충직한 아들딸로서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여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혁명적 본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어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우리 당의 청년전위들입니다. 그 어떤 풍파와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을 앞장에서 목숨으로 옹위하고 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가 시련을 겪고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이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추호의 동요없이 당의 영도따라 혁명의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본의 아니게 자기 대오에서 떨어져 적측 지역에 들어갔던 우리의 나어린 병사들이 적들의 갖은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조선 인민군 병사의 일당백 기상을 과시하며 용감하게 맞받아 싸워 우리 당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당당히 돌아온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닌 혁명적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뚜렷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이 높고 동지적 사랑과 의리가 깊으며 혁명적 양심을 귀중히 여기고 정의감이 강합니다. 우리의 새세대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남먼저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미풍의 선구자로 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상한 도덕의리심,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 근면성과 순박성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교양되고 육성된 조선청년들의 특질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문화기술적으로도 훌륭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녀청년들은 모두가 다 국가적 혜택으로 가장 우월한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받고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 나라 지식인대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도 유망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의 새세대 청년지식인들입니다.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힘있는 전투부대로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우신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더없이 귀중하고 위대한 업적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양 육성하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청년대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당과 우리 조국이 위력하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중시사상을 이어가는 우리 당은 청년들을 사랑하고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청년운동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이것은 우리 당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청년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고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로 더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새로 내놓은 구호입니다.

우리의 전체 청년들과 전당, 전민이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에 담겨진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고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며 청년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역사적 전환기에 있으며 우리의 청년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청년조직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존함을 모신 것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며 우리 청년들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이 역사적인 조치는 혁명의 세대는 바뀌어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청년운동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청년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뚜렷이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동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주체의 청년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이론과 청년운동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것, 이것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전체 청년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청춘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해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을 떠메고 나가는 당의 청년전위 혁명의 계승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혁명하는 세대, 투쟁하는 세대답게 더 많이 배우고 더 정력적으로 일하며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춘시절을 가장 보람있고 빛나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충신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청년들이 지녀야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김일성**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은 **김일성**동지께서 그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에로 영도하여 오신 성스러운 위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가장 정의로운 혁명위업입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이고 우리 시대의 혁명적 기치이며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인류공동의 혁명적 재부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새세대 청년들의 혁명적 본분이고 최고의 도덕의리이며 가장 큰 영예와 자랑으로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전사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청년들과 후세의 모든 청년들이 자자손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충효일심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옹위하고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김일성**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영도는 우리의 청년운동과 청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 당의 영도 밑에서만 청년운동이 변함없이 주체의 한길로 전진할 수 있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를 훌륭히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우리 당밖에 모른다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오로지 당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며 당과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대오는 우리 당을 앞장에서 옹위하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의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우리 당의 전투적 전위부대로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사회주의의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건설자, 믿음직한 보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사회주의위업이며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며 민족자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하는 가장 우월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운명이자 나라와 인민의 운명이며 청년들의 운명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태어나 참다운 행복과 보람찬 삶을 누리며 자라난 자랑스러운 후대들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행복의 요람이며 사회주의의 이 길에서만 청년들의 희망도 미래도 꽃피워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변질되고 부르조아자유화바람이 밀려들면 누구보다 먼저 젊은 세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고 부패타락의 길을 걷게 되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면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최대의 피해자로 되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변질 붕괴되고 자본주의로 복귀된 여러 나라의 역사와 현실이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념이며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며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우월성과 불패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사회는 모든 것이 돈에 의하여 지배되는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이며 날로 더욱 썩고 병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청년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에 대하여 똑바로 인식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온갖 그릇된 환상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옹호자, 건설자, 보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는 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현시대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공세와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비열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고 있으며 사회주의영상이 심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사회주의원쑤들과의 심각한 정치사상적 대결입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원쑤들과의 첨예한 투쟁을 통하여 발생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와 반동세력 수정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치열한 투쟁속에서 겹쌓이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속에서 태어나고 일떠섰으며 불패의 것으로 공고 발전되었습니다.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확증한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인민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허물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청년들은 온갖 반사회주의적 사조와 부르조아적 풍조의 침습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주의원쑤들의 비난과 중상, 와해, 전복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이념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반대 배격하고 사회주의적 원칙과 질서를 지키며 건전하고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은 청년들의 가장 보람찬 투쟁입니다. 청년들은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 전체에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쳐야 합니다.

격변하는 정세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모든 장애와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여기에서 청년들이 앞장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들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거창한 자연개조공사를 빛나게 수행하는 위훈을 떨치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 군인정신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당이 맡겨준 전투적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야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자기희생정신, 영웅적 투쟁정신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느 부문, 어느 초소에서 일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청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최상의 영예입니다. 청년들은 인민군대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 조국보위의 초소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미더운 청년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인민군대의 높은 충성심과 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 마음든든해 있으며 적들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총을 잡고 조국보위의 초소에 서는 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며 총대로써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보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을 수호한 조국해방전쟁 영웅들의 위훈을 본받아 사회주의조국의 방위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하며 그 어떤 침략자들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숙원이며 통일된 조국을 떠메고 나갈 주인들은 새세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며 이 투쟁에서 북과 남 해외 모든 조선청년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 청년들, 해외동포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갖춘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할 뿐 아니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참된 인간의 풍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도덕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이룩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으로 깨끗한 양심과 숭고한 의리로 간직하며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공동의 이익과 요구가 모든 활동의 기준으로 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값높은 삶으로 아름다운 도덕으로 됩니다. 청년들은 사회와 집단의 이익에 자기 개인의 이익을 복종시킬줄 알아야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노동과 공동사업에서 높은 성실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동지들을 사랑하며 사회적 집단과 조직안에 서로 돕고 이끌어 주며 굳게 단결하는 참다운 동지적 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공중도덕과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집단주의적 생활규범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경제도덕생활을 청렴 결백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문화적으로 고상하게 하며 몸가짐과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사랑하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예의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남녀청년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에서 훌륭히 구현해 나갈때 사회주의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풍모를 더욱 더 과시하게 될 것이며 온 사회를 더욱 활기에 넘치게 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위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현대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칠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결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와 당의 높은 기대를 명심하고 현대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

쟁하여야 합니다.

새세대 청년들은 누구나 다 현대 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고 새 기술의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도 연구사업도 감수력이 빠르고 정력이 왕성한 청년시절에 많이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기풍과 연구기풍을 세워 모두가 다 열심히 학습하며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여야 합니다.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을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청년동맹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동맹조직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한 전투적 조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동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방침에 따라 청년들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여 나가는 한 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게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이 행사 깜빠니아나 사회적 동원사업같은데 매달리면서 자기의 본신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면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바로 할 수 없으며 동맹조직 자체를 쇠소리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언제나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의 근본성격을 살려나가야 하며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의 요구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여야 하며 청년들속에서 발현되는 공산주의적 미풍을 널리 소개 선전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화해야 합니다.

혁명적 조직생활은 청년들의 가장 값높은 정치사상생활이며 우리 청년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 교양을 받으며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청년들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성원이 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동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청년동맹조직활동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청년조직의 자립성을 살리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자기 활동에서 자립성을 더욱 높여 청년들과의 사업을 창발적으로 작전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세계의 진보적 청년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청년동맹은 청년운동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맞게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며 자주독립과 평화, 사회주의를 위한 모든 나라 청년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을 키우는 사업에서 교육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청소년 교육교양의 종합적 거점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모두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체제에 망라되어 공부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고등전문학교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하면 그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혁명적 인재로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교육의 사명과 교육테제의 요구에 맞게 교육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개선 강화하여 청소년 학생들을 열렬한 혁명가 유능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고등교육기관들에서 대학생청년들을 잘 교육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대학시절은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현대과학기술지식의 기초를 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대학교육을 통하여 민족간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대학들에서는 우리의 대학생 청년들을 과학과 기술로써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어 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합니다.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의 과이론적 수준을 높이고 혁명적 학풍을 세워 모든 대학생 청년들을 전공분야의 과학기술지식을 깊이있고 폭넓게 소유한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로 키워야 합니다.

청년조직과 교육기관은 다같이 새세대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가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교양 육성하는 공동의 임무를 맡고 있는 것만큼 청년동맹조직들과 각급 학교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고 합심하여 청소년 교육교양사업을 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을 키우는 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청년들을 교양 육성하는 사업은 혁명의 다음 대를 키우는 사업이고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이며 이것은 혁명의 전 세대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우리 세대가 다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후대들이 보충할 수 있지만 후대를 키우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가 보충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 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 모든 일군들이 청소년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새세대들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도 보호속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꾸준히 실속있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

국가기관들과 사회기관들에서는 새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훌륭히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물질문화적 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합니다.

가정들에서도 자녀들의 교육과 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조직의 지도밑에 국가기관과 사회기관, 학교와 가정이 청소년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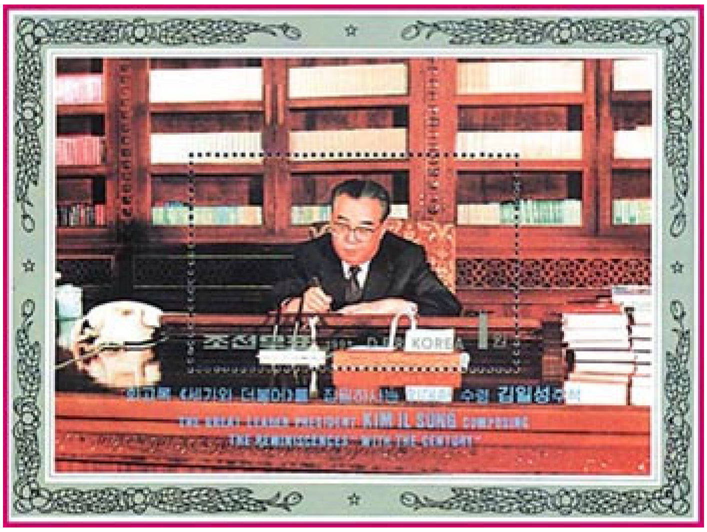
청소년들을 키우는 데서 사회에 혁명적인 환경과 기풍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계급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원칙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차넘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언제나 좋은 혁명적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갖 불건전하고 퇴페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습으로부터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청년들의 가장 훌륭한 미래를 개척하며 자주시대의 청년운동의 새역사를 펼쳐 나가는 영광스러운 세대들입니다. 우리 당을 따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은 휘황하며 조선 청년운동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세기와 더불어 1권



≪ㅌ.ㄷ≫성원들과 비밀독서조성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사상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가자 청년학생들의 사상의식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선진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학생들의 의식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여러가지 조직에 묶어세워나갔다. 조직을 통해서만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었고 핵심력량도 더 빨리 키워낼 수 있었다.

나의 혁명활동은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혁명활동을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내가 학생의 몸이라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그 운동이 노는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맑스－레닌주의리론에서는 청년학생운동을 교량자의 역할에 비기고 있다. 다시말하여 청년학생운동이 선진사상을 보급하고 대중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로 추동하고 안내하는 교량자적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그 리론을 긍정하였다.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청년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립장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생기였다. 우리는 혁명의 동력을 로동자, 농민의 본위로만 규정하던 종전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학생들도 혁명투쟁에서 당당한 주력을 이룬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이 걸어온 로정이 립증해주고 있다.

3.1인민봉기와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사건 등 해방전 우리 나라 반일애국투쟁의 봉우리를 이루는 주요한 력사적사변들에서 청년학생들은 항상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공산주의운동의 새 력사도 청년들의 힘으로 개척하였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도 청년학생들을 골간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오늘도 우리 혁명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에서도 주력은 청년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4.19봉기의 산파도 청년학생들이였고 광주인민항쟁(1980년)의 주역도 청년학생들이였다.

중국사람들이 신민주주의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은 5.4운동의 최선봉에 청년학생들이 서있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이다.

인류가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해치며 새로운 경험을 부단히 창조해온 조선인민의 풍부하고도 장구한 투쟁력사는 청년학생들을 하나의 계층으로조차 보지 않던 종전의 리론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 나라 청년학생운동에는 계급적 립장과 반제적 립장이 확고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었다. 운동의 상층은 대부분 인테리출신들이었으며 운동의 주력도 계몽활동에 편중되고 있었다.

우리는 청년학생운동에서 이런 부족점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첫 걸음을 잘 떼려고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막상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청년학생들을 망라시키자고 하니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었다.

청년학생들을 조직화하는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이미 만들어진 기성청년조직들이 있는 조건에서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우리의 조직을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길림에는 길림청년회, 조선인려길학우회와 소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성조직들이 있었다.

그런 조직들이 없다면 빈터우에 집을 짓는 식으로 거침없이 새 조

직들을 내오겠는데 여러갈래의 기성단체들이 출현하여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은 조건에서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심중히 토의한 끝에 이미 있는 조직들가운데서 간판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무시하고 새롭게 꾸리며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리용개편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길림에서 처음으로 내온 조직은 조선인길림소년회였다. 그때 길림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소년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뿐이고 길림시내의 조선소년들은 그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1927년 4월에 손정도네 례배당에서 조선인길림소년회라는 합법적 조직을 무었다.

나는 김원우, 박일파(박우천)와 함께 이 모임을 지도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직부와 선전부, 문체부(문화체육부)와 같은 소년회의 부서들을 내오고 학교와 지역별로 되는 반도 조직하였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 소년회 선전부 책임자로 있던 길림녀자사범학교출신의 황귀헌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소년회는 로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민족주의자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길림시안의 조선인소년들을 다 망라시키었다. 조선인길림소년회의 목적은 소년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었다.

조선인길림소년회는 강령에서 회원들이 새로운 선진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해 5월에 우리는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려길학우회는 망라된 인원도 적지 않았고 일정한 정도로 영향력도 있었다.

본래 조선인려길학우회는 길림에 와서 공부하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려길학우회의 고문들가운데는 손정도도 있었다.

우리가 려길학우회를 류길학우회로 개편하려고 하자 어떤 동무들은 조선인려길학우회가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순수한 친목단체라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밀어치워버리자고 하였다. 본바탕이 민족주의이면 거기에 아무리 이질적인 것이 량적으로 많이 첨가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민족주의화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의 본질은 낡은 사조로서의 민족주의를 타도하자는데 있었다.

당시는 대중을 끄는데서 경쟁이 심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대치되어 승벽내기로 군중을 끄는가 하면 같은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도 파벌별로 저마끔씩 대중을 끌어당기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오늘 서울파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 래일은 화요파가 그에 대항하여 한양청년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모레 화요파가 조선로농총동맹을 만들어내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파가 거기에 맞서서 경성로농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심지어 다른 파들을 견제하기 위한 테로단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만일 종파분자들이 하는 식으로 조선인려길학우회를 무시하고 길림에 새로운 청년조직을 또 내온다면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있었으며 학생청년들의 대렬을 분렬시킬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일이였다.

우리는 조선인려길학우회속에 들어가 본래의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차 그 조직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공산주의자인 내가 명예회장으로 되었지만 표면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을 끼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국군벌당국의 주의도 덜 끌었다. 나는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지도하면서 그것을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류길학우회는 겉으로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ㅌ.ㄷ≫의 리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칭하고 그것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우리가 청년학생운동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큰 경험이었다.

우리가 만든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면서부터 길림시안의 풍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소년학생들의 일과생활부터 몰라보게 변하였다. 소년회와 류길학우회에 망라된 청소년들은 아침마다 지구별로 조기회를 하였다. 일요일이 오면 길림시내 모든 회원들이 대렬을 지어 북산에도 가고 가창행진도 하였으며 북산밑에 있는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도 하였다.

우리는 청소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그들의 취미와 의식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하였다.

소년회에 망라된 학생들가운데는 기독교신자들의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들의 종교적 영향을 어떻게나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하느님≫이 없고 종교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날 나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던 조선인소학교의 한 녀선생에게 부탁하여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데리고 례배를 보러 가게 하였다.

그 녀선생은 나의 말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례배당에 가서 온종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십시오.≫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떡이나 빵이 차례질리는 만무하고 배만 여전히 쪼록쪼록 고팠다. 이번에는 녀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을을 하고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줏도록 하였다. 선생은 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주어왔다. 그 이삭을 털어서 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학생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실지 로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한 사실 같지만 청소년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낡은 인습을 청산하는데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례배보러 다니는 것을 경계하고 그들이 미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교양한 것은 결코 종교 그 자체를 타도하자는데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미신에 빠지고 예수의 교리를 절대화하게 되면 혁명에 아무 쓸모도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신자라고 하여 혁명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종교가 내포하고 있은 무저항주의적인 요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길림에 가보니 어떤 소년회원들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런데 찬송가나 불러가지고서는 적의 화구앞으로 돌진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도들보다도 결사전가를 부르는 투사들이 더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오가던 소년회원들이 얼마후부터는 ≪소년애국가≫와 ≪조선인길림소년회가≫를 부르며 버젓이 시가행진을 하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류길학우회가 나온 다음 우리가 한 활동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해 여름방학에 조직한 국어강습이다. 그 강습에는 중국인소학교에 다니는 조선소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다 참가시키었다. 그 소년들의 대다수는 출생지가 만주였다. 만주에서 태어난 소년들은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였다.

우리는 그때부터 ≪조선사람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들었다.

계영춘, 김원우, 박소심이 엇바꾸어가며 강의에 출연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에게는 교원이 따로 없었다. 조직의 모든 핵심들이 다 교원이었고 강사였다.

20일동안 강습을 하고나니 여기에 참가했던 소년들이 누구나 다 어린이잡지를 볼 수 있게 되였다.

소년회와 학우회는 청소년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룡담산원족과 강남공원야유회도 조직하고 문화유적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도 조직하였으며 강연회, 토론회, 학습회, 웅변대회, 독서발표회, 노래보급, 연예공연과 같은 과외활동도 많이 조직하였다.

우리는 그때 비밀활동장소로서 강남공원과 북산을 많이 리용하였다. 강남공원은 릉라도와 같이 아름답게 생긴 송화강상의 섬이였다. 길림의 자본가들은 이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 섬을 식물원과 같이 수려하게 꾸리고 입장료까지 받아먹으면서 돈벌이를 하였다. 공지에 다가는 락화생 같은 것도 재배하였다. 이 공원에서 우리가 야유회의 간판을 가진 비밀회의를 많이 하였다.

강남공원보다 더 리상적인 밀회장소는 북산이였다. 초목이 무성한 여름철을 위주로 리용하던 강남공원에 비하여 북산은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시장철 자유롭게 리용할 수 있었다. 길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유원지가 바로 북산이였다. 그러므로 북산과 그 주변에는 봉사망도 시적으로 제일 조밀하게 배치되어있었다. 북산으로 들어가는 거리 량옆에는 음식점, 빙탕막, 완구상, 담배상, 잡화상, 차집, 오락장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었고 서양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큰 경광상점도 있었다.

북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경치가 좋은데도 있지만 거기에 약왕묘와 같은 명승고적이 많았기 때문이였다. 약왕묘라는 것은 약신의 제사를 지내는 절당이라는 뜻이다.

길림에서는 매해 6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사흘간을 묘회기간으로 정하고 성정부의 주관하에 북산에서 약신령의 탄생을 축하하는 관제행사를 벌이었다. 이 행사에는 일반서민들은 물론, 관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묘회기간의 3일은 휴가로 선포되었다.

경찰당국은 이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북산아래 대도로 동쪽에 림시파출소를 내오고 전화를 가설하였으며 산우에는 경찰분반까지 배치하여 상공개의 질서를 유지하는가 하면 양왕묘, 관제묘, 랑랑묘에 피우는 향불이 산불로 번져가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고 단속하였다. 3일간의 행사기간에는 마차부들과 인력거군들까지 평상시의 10배나 되는 돈을 벌었다.

장사아치들이 3일간의 묘회를 돈벌이의 호경기로 삼았다면 이 도시의 유지들과 선각자들은 성립통속강습소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을 계몽시키는 사회교육의 연단으로 삼았다.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계몽활동가들이 도처에 나타나 주먹을 흔들며 애국, 도덕, 법수호, 미감, 실업, 체육, 위생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였는데 북산이 아니고서는 어데서도 볼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였다.

이런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군중을 찾아다니며 선진사상을 먹이고 때에 따라서는 비밀회합도 하였다. 약왕묘 지하실은 우리의 전용회의실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절의 중은 우리가 쟁취한 사람이었다.

나는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강연도 많이 하였다. 어떤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토론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였다. 오동진, 리탁을 비롯한 정의부의 지도자들은 국치일(8월29일), 3월 1일, 단군탄생일(10월 3일)등 주요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시내 교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모여놓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류길학우회의 성원들속에서는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많이 하였다. 아무리 론쟁을 해도 결판이 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려길학우회가 류길학우회로 개편된 그해 여름에 손정도네 례배당에 시내에 있는 조선인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제를 토론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그 토론회를 계기로 길림의 청소년들이 크게 각성되였다. 그들은 테로로써도 안되겠다. 청원으로써는 더구나 안되겠다. 강대국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로가 탐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그 당시 길림에서 진행된 토론회나 독서발표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론의되였다.

우리는 매해 5일 첫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고 이날에 길림시내의 조선인청소년들과 그 부형들, 유지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열어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단결시킨 다음 그들을 대중을 교양하고 계몽시키는 사업에 참가시키였다. 열살안팎의 소년회원들까지도 방학이면 강동, 륙대문, 신안툰, 대황구와 같은 주변농촌마을들에 나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계몽하였다.

파쟁이 우심하던 길림에서 우리가 백가지 숨을 쉬던 청소년들을 한가지 숨을 쉬게 만들어놓은 것은 확실히 귀중한 소득이였고 체험이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류길학우회, 맑스-레닌주의독서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길림일대에서는 ≪ㅌ.ㄷ≫성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새 세대의 혁명력량이 급속히 자라나게 되였다.

길림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총령사까지도 이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활동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길림일대에서 새로운 혁명세력이 등장하여 그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질겁한 총령사는 자기나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식보고문에서 그 대오가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과 장차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경고 하였다.

일제는 내부가 통일되어있지 않고 사분오렬된 조선공산당의 종파집단이나 실행력과 군중에 대한 침투력이 미약한 민족주의세력보다도 파쟁과는 담을 쌓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의 존재를 늘 무서워하였다.

길림에 새로운 운동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만주각지는 물론, 국내와 중국관내에까지 퍼져갔다. 이 소문은 주로 길림에 와서 공부하던 류학생들과 그들의 부형들에 의하여 멀리까지 전파되였다.

우리의 운동선에 합류하려고 국내와 일본, 연해주, 만주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들었다. 독립군에 관계했던 청년들,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던 청년들, 백파들과 싸우던 청년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폭동에 참가했던 청년들, 국민당반동들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다니던 청년들, 레닌의 숭배자, 손문의 숭배자, 루쏘의 숭배자 등 정견과 소속, 생활경로가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청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김혁, 차광수, 김준, 채수항, 안붕등도 그 시기에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교양하여 ≪ㅌ.ㄷ≫에 받아들이는 한편 조직을 시내 여러 학교들에 확대해나갔다.

그 과정에 우리는 ≪ㅌ.ㄷ≫보다 더 큰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망라할 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으며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1927년 8월 27일에 ≪ㅌ.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날 련이어 ≪ㅌ.ㄷ≫의 정수분자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ㄷ≫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합법적 청년조직이였다. 조직의 기본구성은 조선청년들이였으나 우리는 반제적 립장이 강한 중국청년들도 거기에 가입시키였다.

반제청년동맹은 광범한 반일청년대중을 혁명대렬에 묶어세우며 반일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조직은 문광중학교, 길림제1중학교, 길림제5중학교, 길림사범학교, 길림녀자중학교, 길림법정대학을 비롯하여 조선학생들이 있는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다 들어갔으며 강동, 신안툰을 비롯한 길림주변의 농촌지역과 류하현, 화전현, 홍경현 일대에도 뿌리를 박았다. 조선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다 퍼지였다.

반제청년동맹에서는 얼마후부터 등사판으로 선전용자료까지 밀어냈다.

우리는 그때 청년들을 더 많이 결속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면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주변농촌으로 나가군 하였다. 토요일에 공부가 끝나서 떠나면 일을 보고 일요일 오후에 돌아올수 있었다.

우리가 ≪ㅌ.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련이어 공청을 창립한 것은 반년 남짓한 사이 길림과 무송 일대에서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합법, 비합법의 여러가지 대중조직들이 자라난 조건에서 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령솔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 청년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다.

당시까지는 내가 어느 조직에나 다 관련되어있었기 때문에 나 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조직들 호상간의 련계가 지어지군 하였다.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청년공산주의자의 자격으로 학생청년조직들에 관계하였을 뿐이다.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보아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때 일제는 만주침략을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면서 만주에서 반동군벌과 결탁하여 조중인민의 반일기세를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였다.

조선청년들은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투쟁에 궐기하였다. 이런 실정은 청년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들의 투쟁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전위조직의 필요를 절실하게 제기하였다.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령도권쟁탈로 하여 사분오렬의 길을 걷고 있은 청년운동의 실태를 보아도 청년들을 분렬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통일단결의 길로 건전하게 이끌어갈 전위조직의 탄생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앞에 단 하루도 지체시킬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부과되었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비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만주조선공산주의청년단이 조직되었고 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남만주청년총동맹, 북만주청년총동맹, 동만주청년총동맹, 길림청년동맹, 길회청년동맹, 삼각주청년동맹 등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어있었다.

각이한 계렬의 종파분자들이 이 청년단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각이한 세력의 민족주의자들이 승벽내기로 이 단체들에 손을 뻗쳤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소속단체가 공산주의단체인지, 민족주의단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청년학생들은 이렇게 여러갈래로 갈라져있었다. 엠엘파나 화요파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주자의 자식들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무슨 단체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정의부편, 참의부편, 신민부편으로 갈라지고 거기다가 또 보수파와 혁신파로까지 나뉘어져있었다. 견해가 다르고 소속단체가 다르다보니 그들은 늘 반목상태에 있었다.

분렬된 청년운동을 바로잡고 청년들을 민족주의세력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서 떼어내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자면 반드시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와야 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때 조선공산당이 제구실을 어지간히라도 하였더라면 우리까지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되었을 것이다. 공산주의리념을 가진 당이 있고 많은 청년조직들이 있으면서도 그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 그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은 없었다.

조선혁명은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많은 애로와 난관이 걸음마다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종파분자들과의 관계,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 중국인민들과의 관계, 국제당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항시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중국반동군벌들로부터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을 능란하게 령도해나가자면 그것을 감당할만한 세련된 령도핵심과 올바른 지도리론이 있어야 하였다.

≪ㅌ.ㄷ≫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다. 파쟁도 모르고 사대주의도 모르고 집권욕도 모르며 낡은 때가 묻지 않은 새형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써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롭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핵심이 육성되었다.

화전과 길림에서 새 사조를 탐구하고 ≪ㅌ.ㄷ≫와 함께 투쟁의 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일정한 지도리론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지도리론을 구현한 전위조직으로 공청을 내올것을 결심하고 그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데 착수하였다.

강령에서는 공청이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며 종파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우리는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1927년 8월 28일 북산공원의 약왕묘 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 김혁, 차광수, 허률, 박소심, 박근원, 한영애를 비롯한 반제청년동맹 핵심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였다.

내가 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소책자로 세상에 나갔다.

그날 우리는 ≪ㅌ.ㄷ≫를 뭇던 때처럼 서로 어깨를 겯고 한덩어리가 되어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불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비합법적인 청년조직이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이였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헌병, 경찰, 특무들의 준동과 반동분자들, 종파분자들의 해독행위가 심한 당시의 실정에서 조직을 보존할 수 없었다.

공청은 동맹원들의 사상교양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속에서 정치리론수준과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많은 힘을 넣었다. 동맹원들속에서는 그때 ≪제국주의론≫, ≪식민지와 민족문제≫, ≪조선혁명의 당면투쟁과업≫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공청원들의 조직생활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당시 공청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성격검토회를 가지고 공청원들의 생활을 총화하였다. 공청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었으며 공청대오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공청원들에게 아래조직들을 지도할데 대한 분공, 청년학생들과 군중을 계몽시킬데 대한 분공, 농촌을 혁명화할데 대한 분공 등 다양한 분공을 많이 주어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부단히 단련시키었다.

또한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로 공청대오를 부단히 늘여나갔다. 그리하여 공청은 짧은 기간에 길림시와 그 주변은 물론, 돈화, 홍경, 화전, 무송, 안도, 반석, 장춘, 할빈 등 만주의 넓은 지역과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국내깊이에 까지 확대되었다. 공청은 조선혁명에서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이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맡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에서 하나의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제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청이 당에서 해야 할 일까지 맡아가지고 자기산하의 청소년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함께 로동자조직, 농민조직, 녀성조직들에 대한 지도까지 동시에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소문을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중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설사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혁명에 리롭고 인민에게 리로운 일을 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우리의 립장이고 배짱이었다. 남들이 령도권이 탐나서 자신들을 ≪정통파≫라고 자랑하며 돌아다닐 때에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허영의 세계와 담을 쌓고 혁명의 길을 한치한치 톺아나갔다.

공청은 청년들의 조직적 결속을 촉진시키고 핵심을 육성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 공청의 창립은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그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0년 여름에 결성된 첫당조직의 성원들 중 대다수는 공청을 통해 육성된 선봉적인 청년투사들이였다.

얼마전에 우리는 공청창립일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였다.



공청의 산아들

세기와 더불어 4권

청년사업은 내가 일생을 두고 심혈을 바쳐온 중대사의 하나이다. 나의 혁명활동이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길림 시절의 생활이 잘 말해 주고 있다. 나는 길림감옥에 구금되기 전에도 청년학생운동을 하였지만 감옥을 나온 후에도 지하활동의 형식으로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국제당 일군들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던 1930년 여름부터는 공청 길동지구 책임비서로 임명되어 공청사업을 하였다.

물론 왕청 시절에도 청년들과의 사업은 나의 군사 정치활동에서 주선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유격대의 정치사업을 책임진 지휘관이 군대 안의 공청사업을 지도하는 것은 직능에 맞는 응당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동만당 지도부와 왕청현당 일군들의 요구에 의하여 군대 밖의 공청사업에도 많은 시간을 투하하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는 당, 공청, 아동단을 가리켜 3대동맹이라고 하였는데 이 3대동맹에서 공청은 당 다음 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청을 가리켜 당의 교대자, 당의 후비대 또는 당의 저수지라고 불렀으며 그 사명과 역할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제2의 당이라고도 명명하였다.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전술적 문제들과 그 집행대책을 논의하는 당회의들에는 언제나 공청서기들이 연석으로 참가하였다. 동만당에서는 이런 회의를 가리켜 당단연석회의라고 하였다. 그런 회의들에서 공청서기들은 당원들과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까지 당당하게 행사하였다. 당원들이 없거나 당세가 미약한 고장들에서는 공청 열성자들이 주동이 되어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남북만 진출을 끝마치고 간도에 도착한 후 나는 이광 별동대 공청서기 조동욱, 왕청현 공청서기 한재출, 왕청현 공청조직부장 김중권 등을 통하여 동만지방 공청사업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요해했다.

그 당시 동만지방의 공청사업에서는 공청조직건설과 혁명발전에 지장을 주는 엄중한 좌우경적 편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왕청지방 공청사업에서 제일 큰 애로로 제기된 것은 유능한 지도일군의 부족이었다.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이 눈부신 상승기를 걷고 있던 당시의 환경에 맞게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하고 처리할 만한 능력 있는 공청간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공청원들의 대부분은 문맹자거나 국해 정도였고 쌀에 뉘만큼한 사람들만이 중학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청년운동을 협소한 유격구역의 범위에서 제한시키고 청년사업을 노동자, 농민 계층의 청년 본위로 진행하면서 마치도 공청활동은 성분이 좋고 식견이 높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다. 이런 경향은 불피코 공청건설에서 관문주의를 낳게 하였다. 종파분자들은 공청조직의 순결성과 비밀보장의 미명하에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이 구실 저 구실 붙여가면서 공청에 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무턱대고 배척하였다.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출신이 걸린다고 하면서 따돌렸고 소박한 노농청년들을 무식하다고 외면하였다.

공청에 가입하자면 적어도≪사회주의대의≫쯤은 통달해야 했고≪공산당선언≫이나≪임금노동과 자본≫과 같은 고전들도 읽고 분석할 줄 알아야 했다. 만일 심사 과정에≪공산당선언≫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산당선언≫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청생활을 해!≫하고 까박을 붙이는 것이 통례였다.

대왕청의 어떤 청년은 소비에트정부에 소를 몰수당한 것이 흠으로 되어 공청가맹을 청원하였다가 부결당하였다. 부림소를 몰수당하는 정도의 집이면 자산가 출신이라는 것이고 소비에트의 수탈대상이 되었으니 가맹 적격자가 못된다는 것이다.

좌경관문주의자들은 지어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소년선봉대에서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해온 청년들까지도 공청조직에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좌경이 차단봉을 내리고 문을 굳게 닫아 맨 지역들에서는 100여 명을 망라한 군중단체 안에 공청원이 고작 3~4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였다. 동만당 지도부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청지방에서는 공청대열을 확대하는 데서도 텃세가 셌다. 다른 현에서 아무리 조직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해당 조직이 발급한 이동문건이나 보증서가 없으면 왕청에 와서 공청대열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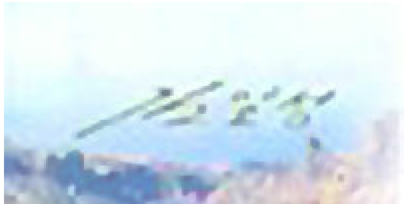
동녕현성에서 지하혁명활동을 하다가 군벌의 체포소동을 피해 왕청으로 온 전문진도 유격대의 재봉대에서 일을 잘하였지만 이동문건이 없다는 이유로 적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군복을 해준 데 대한 답례 인사를 하려고 재봉대에 찾아간 나는 그가 무슨 일인지 몹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재봉대 출입을 여러 번 하였지만 전문진의 침울한 기색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그와 담화를 하였다. 전문진은 소심한 여자였지만 심중의 고충을 솔직하게 다 말했다. 그는 목적했던 새 고장에 와서 소망대로 유격대에 입대하였지만 공청조직이 자기를 받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외기러기처럼 늘 우울하게 살았다. 그의 고충이 조직문제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나는 해당 일군들과 의논하여 그가 종전대로 공청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떤 공청조직들에서는 동향, 동창, 친척, 친우 등의 안면 정실관계를 타고 이색분자들과 불순분자들, 동요분자들만이 대열 내에 망탕 끼어들었다. 어떤 공청 일군들은 출신성분만을 절대화하던 나머지 머슴꾼 출신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간첩임무를 받고 유격구에 잠입한 불순분자들까지 공청에 받아들였다. 이런 좌우경의 틈바구니에서 혁명적 세련이 부족한 일부 공청원들은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구로 내려갔다.

공청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은 적지 않은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하는 혁명운동을 경원시하게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유격대 내의 공청사업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을 항일의 깃발 아래 묶어 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유격구의 공청사업에서 이와 같은 좌우경적 편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공청의 지도일군들이 조선혁명의 실정과 이익에 알맞은 옳은 조직건설노선을 가지지 못하고 고전의 요구를 교조



적으로 적용하거나 남들의 경험을 통째로 직수입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유격구사업을 주관하는 지도일군들이 공청이 범하고 있는 편향들을 극복하고 청년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도와 출로를 열심히 모색하고 있던 1933년 3월 소왕청 마촌에서는 공청일군회의가 소집되였다. 이 회의에는 왕청지구 공청위원들, 아동국장들, 연길에서 온 청년대표들과 용정학생대표들(지하공작원)을 비롯한 30명 정도의 청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들로는 김중권, 박현숙, 조동욱, 박길송, 이성일, 김범수, 최봉송 동무들을 들 수 있다.

공청일군회의를 회상할 때면 어째서인지 회의 전기간 유달리 영채 도는 시선으로 내 얼굴을 줄곧 지켜보던 박길송의 눈동자가 삼삼히 떠오르곤 한다. 내가 박길송의 눈에 대해 특별히 인상 깊게 회상하게 되는 것은 훗날 그가 그 영롱한 두 눈의 한쪽을 관동군 부대와의 조우전에서 잃어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북만의 뛰어난 유격대장으로서 최후를 마친 박길송이 1933년 당시에는 특별한 공청직위도 없이 모범공청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했던 것 같다.

회의를 마감짓는 날 현공청 일군들과 대표들은 나에게 연설을 청탁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길림에서도 공청활동을 많이 하고 간도지방에 와서도 길동지구 공청 책임비서라는 간판을 가지고 청년들과의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참고할 만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견해나 들어보자고 자기들끼리 의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일치한 요구에 따라 공청단체들 앞에 나선 과업을 두고 길다란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 중의 적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조동욱이 자상하게 회고하였다.

동서고금의 철학자, 정치가, 교육자들은 예외없이 사회개조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세대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사명을 두고 많은 고견들을 내놓았다. 맑스주의고전가들은 일치하게 청년들을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 보았다. 고대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국가의 장래 운명은 청년에 대한 교육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유물론 철학가이든 관념론 철학가이든, 동양의 학자이든 서양의 학자이든 미래의 운명으로 되는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그 세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대동소이하게 평가하였다.

청년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물론 그들과 견해를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청년들의 지위를 혁명의 교량자나 후비대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선행 고전가들과 이론가들은 청년들을 전세대에 의거하여 그들의 지도와 교양을 받으며 보조적으로 혁명을 해 나가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청년들을 보조적인 역량 이상의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조선혁명이 걸어온 노정과 실정을 볼 때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았다.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적 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이고 주력부대이며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이다. 이것은 실천을 통해 그 진리성이 충분히 검증된 주장이었다. 80고령에 이른 지금에 와서도 나는 혁명의 전위로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혁명운동을 독자적으로 개척하지 않고 전세대에만 의거하여 그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들의 뒤를 피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세월을 보냈더라면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낡은 사조와 단호히 결별하고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항일유격대도 창건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민족의 선봉에 서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 전반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 역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같이 감옥도, 죽음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사들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3.1인민봉기가 발발했을 때에도 선봉결사대로 나섰고 6.10만세시위운동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 때에도 주력으로 등장하여 애국적인 구호들을 고창하였다.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도 그 주체는 청년학생들이었다. 그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는 청년학생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대오를 짜고 노도와 같이 거리를 누볐으며 총검을 박차고 항쟁의 광장으로 달려나갔다.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중엽부터 민족해방투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항일혁명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았다.

나의 청춘 시절이 공청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 권들에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은 나의 청년기와 일치하였다. 우리는 그 나이에 연대도 이끌고 사단도 지휘하고 군도 영솔하였다. 한때 우리 인민들 속에는 나를 백발노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던 당시의 나의 나이는 34살도 못되었다.

유격전쟁은 옛날의 군사들처럼 서로 대치되어 영채를 치고 북을 두드리면서 장수들이 필마단창으로 접전하거나 높은 성벽에 의지하여 화살을 날리는 그런 구식 싸움도 아니며 발달된 군수기재를 이용하여 전화나 무선으로 전투를 지휘하는 신식 싸움도 아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50~70대의 노장군들도 능히 전투를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유격전쟁에서는 전사나 지휘관이나 할 것 없이 동빙한설의 쓴맛을 다같이 맛보아야 한다.

지휘관들도 때로는 기관총을 잡아야 하며 정황이 요구하면 총창을 꼬나들고 백병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건강한 육체와 건실한 정신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부담을 감당해낼 수 없었다.

항일혁명에 참가한 투사들은 거의 모두가 20대의 청년들이었다. 양정우는 32살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장으로 되었고 진한장은 27살부터 제3방면군 군장으로 활동하였다. 오중흡이 연대장의 중책을 지니고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29살의 꽃나이었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은 청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수행한 투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니 어찌 청년세대를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만 평가하겠는가.

나의 이런 견해와 입장은 그날의 연설과 담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을 추진시키는 주력 중에서 기간적인 역량으로 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펼쳐보아도 사회개조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막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의 전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사업이다.

그런데 공청조직이 문을 딱 닫아걸고 청년군중을 등지고 앉아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어떤 공청조직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우수한 청년들을 대열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관문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관순이 나이가 많아서 3.1이 낳은 영웅으로 민족사에 남아 있겠는가. 남이장군도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자기들을 가리켜 대장부라 하겠는가고 하였다.

나이를 문제시하면서 10대의 열혈청년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공청조직을 청년조직으로가 아니라 장년조직으로 만드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10년이나 20년쯤 도를 닦고 성인현자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공청이라면 그것이 무슨 청년들의 조직이겠는가.≫

다음으로 대표들의 흥미를 끈 것이 공청 일군들이 엄수해야

할 사업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이 항목에 들어가서도 많은 말을 하였다.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 세우자면 공청사업을 담당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공청원이 총 5발을 쏘았는데 적을 한 놈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자. 유격대에서는 탄알 한 알에 원쑤 한 놈이라는 구호가 통용되고 있는데 5발 쏘아서 한 놈도 잡지 못했으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가령 이런 결함을 범한 공청원에게 해당 조직에서 비판을 주고 조직문제를 보았다면 이것을 정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무들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우선 과오를 범했다면 여러 각도에서 요해해야 한다. 측면으로도 요해하고 후면으로도 요해해야 한다. 무기성능이 좋지 못한가? 조성, 조문이 틀리지 않았는가? 총탁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살그머니 당기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방아쇠를 당길 때 숨조절을 잘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생리적 약점이 없는가 하는 것도 알아보아야 한다. 근시인가? 원시인가? 아니면 난시인가? 그리고 대담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비겁한 데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여러모로 따져보고 문제를 취급해야지 일률적으로 사상이 나쁘다고 보고 사상투쟁만 하면 안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결함에 대해서는 융화 묵과하지 말고 비판하되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폭로하는 식으로 욕설하고 모욕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날 회의에서 공청대오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강화하고 선전선동 교양사업을 개선하는 문제, 상호비판, 자기비판을 성실히 하는 문제, 아동단을 공청후비로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과거 애국청년들의 투쟁에서 그 우수한 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청사업의 전반 분야를 포괄하여 연설도 하고 담화도 하였다.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청 지도일군들이 항상 군중속에서 살며 사업에서는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고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청일군회의가 있은 후 공청 지도일군들의 일본새에서는 혁신이 일어났다. 관료주의와 관문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에 얽매여 있던 공청조직들은 생가발랄한 산 조직으로 되어 청년대중 속에 깊이 침투했다.

어느 날 나는 김중권을 만나려고 공청현위를 찾아갔다. 그런데 현위에는 통신원 한 동무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모두 어디로 갔는가고 물으니 구와 지부 조직들에 내려갔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종전까지는 현공청 일군들이 동맹원들 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서 지부서기, 구서기들을 불러다가 일거리를 맡기고 받아내는 식으로 안일하게 사업을 하였다. 현공청은 어디서 수말이 새끼를 낳았다고 하여도 믿을 정도로 하부 실정에 깜깜하였다. 그러면서도 회의를 열고 사상전을 한바탕씩하고는 만세를 불렀다. 공청단체들은 회의와 비판이며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런 재래식 사업방법이 공청 일군들의 일 본새에서 어느덧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공청 일군들은 유격대와 지방의 지부조직들에 내려가서 공청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었다. 현위 사무실에서 말공부와 문서놀음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이 아래에 내려가 맹원들도 만나보고 소조모임이나 지부회의에도 참석하였으며 공청서기들을 도와 사업계획도 세워주었다. 현위 사무실에 공청간부들이 모이는 것은 회의가 있는 날뿐이었다.

공청 열성자들의 대오에는 정황과 조건에 맞게 임기응변하는 능숙한 수완가들과 작풍이 좋고 지도방법이 원만한 세련된 일군들도 적지 않았다.

연길현에서 8도공청 조직부장으로 사업한 김범수는 명월구회의에도 참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청년들의 사랑을 받는 유능한 공청 지도일군들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김범수가 소학교를 다닐 때 그의 어머니는 외아들이 글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대견스러워 그를 학교에 업고 다녔다.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하고 키운 아들이 총각꼴이 잡히기 바쁘게 장가도 일찍 보냈다.

김범수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사회운동에 뛰어들까봐 그가 장가를 간 다음에도 문밖출입을 엄하게 단속하였다.

그러나 김범수는 문밖출입을 못하는 대신 자기 집 뒷고방을 회합장소로 정하고 울바자 밑에 사람들이 드나들만한 개구멍을 감쪽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 청년들을 뻔질나게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 김범수의 부모들은 아들이 나들이도 가지 않고 신랑구실을 ≪착실하게≫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지만 아들은 밤마다 뒷고방에서 청년들과의 사업을 하느라고 새색시의 얼굴을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그 뒷고방에서 김범수는 수십명의 열성 공청원들을 육성해냈다.

현 공청 시기는 주로 유격대 공청조직에 들어가서 청년사업을 지도하였으며 조직부장과 선전부장은 유격구 공청조직과 적구 공청조직들과의 연계 밑에 청년운동을 지도하였다. 현 공청 서기는 필요에 따라 유격대원들과 함께 전투작전에도 직접 참가하면서 대중을 지도하였다.

마촌작전 때의 일이다. 마촌 앞덕에 배치된 중대 공청지부는 현 공청서기의 참석하에 비상회의를 열었다. 결전을 눈앞에 둔 공청원들은 저마다 불같은 맹세를 토하였다.

≪공청원의 심장으로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땅을 끝까지 지키자!≫

공청원들의 총구에서는 복수의 명중탄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다. 적들은 이 전투에서만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구국군과 함께 동녕현성과 라자구를 들이칠 때에도 공청서기는 빨치산 대오의 앞장에 서 있었다.

나는 공청일군회의가 있은 다음에도 공청 지도일군들을 자주 만나 공청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그 당시 내가 공청사업과 관련하여 제일 역점을 찍어 강조한 것은 청년들 속에서 애국주의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낙관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군사교육을 강화하여 공청 지도일군들과 공청원들 속에서 군중관점을 똑바로 세우고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수립할 데 대한 문제들이었다.

우리는 공청조직들이 당면한 정치, 군사, 경제상의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낯을 돌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바치도록 하였다. 공청조직은 학술단체도 아니고 계몽단체도 아니며 구락부도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 청년대중을 교양하고 결속시키는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이 조직들의 활동은 언제나 현행 정치실천, 군사실천, 경제실천에 복종되어야 했다. 그래야 매개 조직들이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강력한 발동기로 될 수 있었다.

그 당시 유격구의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는 경제문제의 해결에 얼굴을 잘 돌리지 않는 편향들이 존재하였다. 유격구에서의 경제문제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말한다. 지금 식대로 표현하면 식의주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유격구 인민들이 소비하는 식량의 대부분은 유격대가 적들을 치고 노획한 전리품 식량으로 충당하였다. 유격구의 척박한 경작지들에서 생산되는 알곡으로는 한 해 농량도 보장하기가 어려웠다. 인민들은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군대를 쳐다보곤 하였다. 이런 과정에 적지 않은 일군들과 유격구 주민들 속에서는 유격구 주

민들 속에서는 유격대에 대한 의존심이 생겼다. 절량기가 닥쳐오면 으레 군대가 또 적들을 답새기고 식량을 빼앗아다가 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팔짱을 지르고 앉아 농사차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1934년 봄 다홍왜에 가서 3중대 동무들과 함께 5.1절을 쇠였다. 중대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을 겸하여 영농준비 정형도 요해하였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춘경기가 다되었는데도 씨붙임준비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태평스럽게 보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쩌자는 셈판인가. 놀란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나와 동행했던 현공청 서기도 사람들이 이렇게도 나태해질 수 있는가고 하면서 불안을 감추지 않았다.

며칠 후 우리는 요영구의 비밀아지트에서 현 공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춘기파종을 위한 청년들의 과업을 협의하였다. 1932년 가을에 추수대를 조직하여 중간지대 농경지들의 가을걷이를 보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청년생산돌격대가 조직되어 간도 전역의 유격구들에서 봄씨붙임을 위한 전투에 돌입하였다. 이 돌격대에는 공청 열성자들을 비롯한 유격구의 핵심청년들이 다 망라되었다. 그들은 보탑을 쥐고 밭갈이만 한 것이 아니라 종곡을 마련하고 농쟁기를 준비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 파손된 연장들은 야장간에서 청년들이 달라붙어 집체적으로 수리하였다. 부림소가 모자라는 지역들에서는 곡괭이나 삽으로 뚜져서라도 씨붙임을 일매지게 다하였다. 1934년의 춘기파종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 돌격대의 활동을 통하여 유격구들에서는 공청의 위신이 쑥 올라가고 청년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당조직들은 공청이 바라고 설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지지해 주었으며 공청 지도일군들이 청년사업을 대담하게 밀고 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인민혁명정부와 농민협회, 부녀회를 비롯한 대중조직들도 공청사업을 각방으로 후원해 주었다.

유격구 인민들이 공청사업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하는 것은 1934년 9월의 9청데이 기념일 행사 과정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9청데이란 국제무산청년절이라는 뜻이다.

전세계 무산청년들은 1915년에 1차로 이날을 기념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9청데이 행사를 하였다. 이 기념행사는 중국에서도 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하였다.

왕청사람들은 1934년 9청데이를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 이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적구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부락단위로 되는 참관단들을 초청하는 한편 행사를 당일 참관단 접대에 소비하게 될 입쌀, 밀가루, 고기 등의 후방물자들을 구입해들였다. 어떤 후방일군들은 차까지 구해 가지고 돌아왔다. 유격대는 적들을 치고 명절준비에 필요한 일용필수품들을 노획해왔다.

요영구광장에는 솔문을 해 세우고 광장 변두리에는 유격대의 전과를 반영한 연속화들을 그려 붙였다. 그림과 그림 사이에는 격동적인 구호들도 써 붙였다. 그 당시 5중대에서는 그림을 기막히게 그리는 재간둥이가 한 명 있었다. 쏘련에서 살다가 나온 동무였는데 서예솜씨도 놀랄 만하였다. 그는 광장 주변에 인민혁명군의 업적을 보여 주는 전투약도까지 내다 붙였다. 그가 그린 그림들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하였다.

우리는 정부청사를 통째로 내어 손님들이 들 숙소를 꾸리고 거기에도 참관단원들이 감상할 수 있는 선전화를 붙였다.

9청데이를 앞두고 계관라자, 영벽라자, 천교령, 전각루 등 유격구와 그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대표들을 선출하여 요영구로 파견하였다. 적들이 집단부락을 만들어놓고 성문밖 출입을 엄격히 단속하였기 때문에 적구 대표들은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 오지 못하고 한 사람씩 낫을 들거나 광주리를 이고 전야작업에 나가는 차림새로 유격구행을 하였다.

행사 당일이 되자 유격구 청년들은 인민들과 함께 북삼차구에서 노획한 비단과 세루로 만든 옷을 쭉쭉 뽑아 입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었다. 현공청 일군들도 새 양복들을 쑥 빼고 광장에 나타나 행사를 주관하였다. 주름을 세운 군복을 입고 대오를 시어 정연하게 행사장에 들어서는 유격대원들의 늠름한 모습은 적구 대표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이날의 개회선언은 연길폭탄을 터뜨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참관단원들은 ≪쾅≫하는 폭탄소리를 신호로 하여 수십 폭의 붉은 깃발들이 광장에 나부끼고 구호소리, 박수소리, 북소리가 장내를 진감하는 광경을 보면서 다같이 눈이 휘둥그래졌다.

9청데이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각계 대표들은 공청의 업적을 찬양하고 반일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 당시는 이런 연설을 감상발표라고 하였다. 우리는 행사 끝에 적구 참관단원들을 위하여 성대한 환영회를 가졌다. 현 당과 현 공청 일군들의 요청으로 나는 이 환영모임에서 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적극 방조할 데 대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답사를 하려고 적구에서 온 대표 한 사람이 발언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감격에 목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방에 대고 연방 절만 하였다.

9청데이 행사에 참가한 적구 대표들은 나의 연설까지 듣고나서 저지마다 입대를 청원하였다. 모두가 유격대에 들어가겠다고 간청하므로 오히려 설복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다. 우리는 가정사정과 사업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대표들만 혁명군에 받아들였다.

그날의 환영공연에서 이채를 띤 것은 5중대가 준비한 연예종목들이었다. 로흑산 지하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입대한 유격대원이 연해주에 가 있을 때 배웠다는 러시아춤은 참말로 장관이었다.

참관단원들이 유격구를 떠날 때 우리는 적구 인민들의 몫으로 따로 남겨놓았던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지워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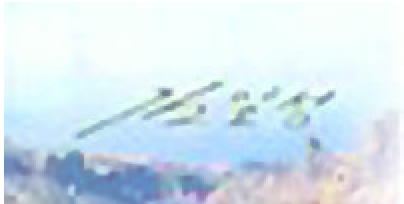
내가 여기에서 1934년의 9청데이 행사를 이처럼 상세히 언급한 것은 그 행사가 유격구 시절의 청년들의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인상 깊은 명절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당시 국제적인 성격의 기념일들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국제당, 국제공청, 국제노조, 국제농조와 같은 국제적인 조직들과 연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에 코민테른이라는 국제적인 중앙이 있었던 것처럼 만국의 공청들에도 낌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제적 중앙이 있었다. 낌은 국제공산주의청년조직의 약칭이다. 우리가 하얼빈에 가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조직도 국제공청 산하의 조직이었고 우리에게 모스크바유학을 주선한 단체도 국제당 청년부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던 국제공청 조직이었다.

공청의 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천투쟁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 속에서는 민족해방투쟁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한 훌륭한 혁명가들이 무수히 배출되었다. ≪13연발≫, 강차위(김봉욱), 박길송, 황정해, 김택만, 김충진, 주춘일, 이신순, 김범수, 이동화, 이순희, 박호준 등 무수한 항일영웅들은 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공청의 산아들이다. 공청이 낳은 이름있는 영웅들 가운데는 빨치산 지휘관도 있고 지하공작원도 있고 교육자도 있다.

요영구 비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모임에서는 적구활동을 더욱 확대강화할 데 대한 문제도 겸하여 토의하였다.

적구에서는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공청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의 그릇된 시책으로 하여 적통치구역에서의 공청활동은 홀시되었다. 이런 실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공청모임은 ≪원쑤의 심장에 포대를 쌓자!≫는 전투적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적군들 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는 것은 구호와 대동소이한 말이었다. ≪원쑤의 심장에



포대를 쌓자!≫는 것은 원쑤의 심장부에 우리의 조직체들을 튼튼히 꾸려나가자는 사상이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공청간부들이 적구공작의 어려운 임무를 맡고 동만지방과 조선 국내를 비롯한 광활한 지역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동만특별구위원회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박길송도 라자구에 파견되였다. 그는 유능한 공청 열성자들과 함께 조직들을 늘려갔으며 청년들을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시켰다. 수많은 소년 계절노동자들을 가지고 있는 간도 굴지의 라자구 양주소에도 그가 박아넣은 공작선이 넝쿨을 깊숙이 뻗쳤다.

라자구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최광도 공청조직의 지시로 이 양주소에 들어가서 활동하였다.

유가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이 양주소에서는 해마다 2~5월 사이와 9~10월 사이에 계절노동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품삯을 적게 주고도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소년노동자들만 채용하였다. 공장주는 소년노동자들에게 성인 일 노임의 절반도 안되는 30전의 돈을 주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술을 주었다. 30전이면 술 한 병 값밖에 되지 않았다. 이 한 병의 술을 벌려고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였다. 퇴근 후에는 노임 대신 받아 가지고 나온 술을 팔려고 시내를 온밤 돌아다니곤 하였다.

최광은 공청조직의 지도 밑에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로 소년노동자들을 궐기시켰다. 양주소에 입직한 후 아동단조직에 받아들여 10여 명의 동료들을 동원하여 파업을 호소하는 선동활동을 벌였다. 그 자신도 바로크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의 문들마다 보초를 세우고 선동연설을 하였다. 조직생활을 해보지 못한 소년들을 파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느라고 그는 무척 애를 먹었다. 그래도 최광은 인내성 있게 설복하고 또 설복하였다.

≪술 한 병을 받아가지고는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모두가 단결해서 일한 것만큼 돈을 받아내자. 힘만 합치면 공장주를 굴복시킬 수 있다!≫

그의 호소에 따라 소년노동자들은 3일 동안이나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떼울까봐 공장으로 나가던 소년공들도 그의 해설을 듣고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파업대열에 합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치는 파업을 통하여 소년노동자들은 공장주를 굴복시키고 하루 임금을 30전으로부터 40전으로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라자구 공청위원으로 사업하던 박호준은 뛰어난 조직적 수완과 능란한 군중공작으로 적구 공청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라자구 양주소의 소년노동자들은 반일조직에 묶어 세우고 파업투쟁이 승리하도록 배후에서 지도한 인물은 다름아닌 박호준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작 도중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그를 체포하자 금시 라자구 일대의 비밀조직을 다 알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쾌재를 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써도 박호준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어느 날 놈들은 반주검이 된 그를 회유해 보려고 이렇게 구슬렸다.

≪너는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청년이다. 나이가 아깝다. 너를 믿고 홀로 사는 너의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은가.

공청조직과 간부들의 이름만 대면 너는 많은 상금을 받고 호강스럽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되지도 않을 혁명에 대한 공상을 말고 살길을 찾는게 어떤가.≫

그러자 박호준은 쓴 웃음을 짓고 이렇게 말하였다.

≪공청조직과 간부의 이름을 부를 테니 받아쓰시오. 나를 지도한 간부의 성은 ≪공≫가요, 이름은 ≪산당≫이요.≫

적들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적다가 놀라는 것을 보고 박호준은 벽을 짚고 일어나 그들을 조롱하였다.

≪나를 키워 준 그 위대한 간부의 이름을 너희들이 수첩에 적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공산당은 내 원쑤를 갚아 줄 것이다.≫

박준호는 이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저고리 앞자락을 활짝 헤치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공청원의 불굴의 영상을 눈앞에 그려 보라. 그가 어떻게나 떳떳이 걸어갔던지 적군 사병들조차 모두 공산주의자들이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한 애연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손에 슬그머니 담배를 쥐어 주기까지 했다. 처녀들은 그의 발 밑에 꽃묶음들을 내던졌다.

항일혁명이 키워낸 공청의 첫 세대들은 이렇게 신의를 지켜 싸웠고 깨끗이 죽을 줄도 알았다.

그때 공청대열에서 교양육성된 공청원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조직과 혁명의 이익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공청원 임춘익도 바로 그런 투사였다.

공청 연길현 8구 남선특별지부 서기였던 그는 일찍이 지하공청단체를 조직한 유능한 정치공작원이었으나 그 단체를 지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도 역시 야수적인 고문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임춘익은 다른 동지들이 한 비밀공작까지도 다 자기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덕으로 체포되었던 동지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그는 18살 꽃나이에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아름답고 고상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조직과 동지들을 살려내고 홀로 형장에 나선 18살 공청원의 고결한 인품 앞에서는 적들도 머리를 숙였다고 한다.

공청원 이순희도 항일혁명이 낳은 불굴의 투사이다. 내가 이순희를 처음으로 만나본 것은 1934년초 겨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때 나는 적들의 ≪토벌≫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만나려고 아동단학교에 갔다가 이순희를 보게 되었다. 연길에서 현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그가 왕청현 아동국장으로 소환되어온지 얼마 안 되는 때였다.

내가 아이들 속에 싸여 아동단학교 마당에 서 있을 때 이순희가 급히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눈매가 시원하게 생긴 그는 시냇가의 물망초처럼 청초한 기운을 풍기는 처녀였다.

학교 마당에서는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좋아라 매달리는 아이들 속에는 홑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거나 맨짚신에 몽당치마를 두른 애들이 많았다. ≪토벌≫을 당할 때 불 속에서 뛰쳐나왔는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들도 보였다. 적통치구역에서 부모를 잃고 찾아들어 온 아동단원들은 거의나 헐벗은 몸들이었다.

나는 화상을 입은 한 어린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아동단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의 새까만 눈동자들이 그 무슨 간절한 기원을 담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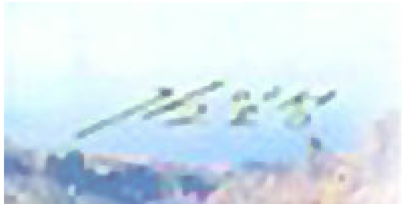
그때 나는 몹시 아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어이 너희들을 고아로 만든 왜놈들을 쳐 없애야겠다고 속다짐하였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애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였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어서 무럭무럭 커서 나라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거라.≫

아이들은 금시 밝아진 얼굴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소리를 모아 기운차게 대답하고 나서 좋아라고 떠들어댔으나 아동국장 순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장군님, 용서해 주십시오. 공청조직은 저에게 아동국장의 책임을 맡겨 주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헐벗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순희는 내 앞에서 죄를 진 사람처럼 민망해 하였다.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짙은 회오의 빛이 어려 있었다.

헐벗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어찌 이순희에게 있겠는가. 사실상 이순희는 아이들의 옷을 꿰매 주고 신발을 손질하고 공책들을 매주느라고 밤에도 눈을 붙일 새가 없었다.

내가 이순희와의 첫 상봉에서 받은 강한 인상은 자기 사업권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잘못과 불상사들의 원인을 늘 주관에서 찾는 그 혁명가적인 자아반성의 태도였다.

나는 며칠 후 아동단원들을 위해 일부러 전투를 조직하였다. 노획한 전리품을 가지고 아동단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솜이불과 새 옷 그리고 신발, 학습장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유격대원들이 피를 바쳐서 마련한 어린이들의 새 옷에 볼을 비비며 울고 있던 이순희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순희는 그 일이 고마워서 어느 날인가 아동단유희대를 무어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장군님! 솜이불과 새 옷을 보내주신 장군님의 은혜에 다소나마 보답하겠다고 아이들과 연예대를 무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날 유격대와 근거지 인민들의 심금을 울려 준 종목 중의 하나가 구연이었다.

나어린 소녀가 새 옷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내가 입은 이 새 옷은 유격대 언니, 오빠들이 피를 바쳐 구해 준 옷이다 하고 허두를 떼고 화상을 입은 자기의 자그마한 손을 내보였다.

≪장군님께서는 왜놈의 ≪토벌≫에 상처입은 이 손을 어루만지시며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고 하셨어요.

유격대 오빠, 언니들!

우리들은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기뻐해 주세요. 기운을 내 주세요.

장군님 말씀대로 나도 어서 무럭무럭 커서 공청원 오빠, 언니들처럼 총잡고 왜놈과 싸우겠어요.…≫

소녀의 구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무르익은 풍년 이삭에서 근실한 농민의 구슬땀을 보듯이 우리는 그 무대에서 어린이들에게 바친 이순희의 심혈을 읽었다.

어느 날 이순희는 나를 찾아와서 느닷없이 자기를 적구공작에 보내 달라고 제기하였다.

아동사업에 심혈을 쏟아왔고 거기에서 더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던 그가 갑작스레 그런 제기를 하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순희는 그 후 공청조직에 거듭 제기하여 마침내 박길송과 함께 라자구로 파견되었다.

삼면이 험준한 산으로 첩첩히 둘러싸여 있는 라자구의 만첩청산과 비옥한 전야에는 항일혈전의 발자취와 함께 적구공작의 길을 걸어간 용감한 공청원들의 붉은 넋이 어려 있다.

나는 여기서 이순희의 적구공작 과정을 누누히 기록하려고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꽃다운 나이에 서슴없이 목숨을 바친 그의 정신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순희는 그때 라자구에서 조금 떨어진 초막을 근거지로 삼고 공작하였다. 찬바람이 스며들고 빗물이 새는 어설픈 그 초막에서 봄을 맞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았다. 그 기간에 라자구에서는 공청조직이 늘어나고 아동당조직이 자라났다. 원쑤들의 아성에 강유력한 혁명의 포대가 쌓아진 것이다.

이순희는 이 포대를 쌓느라고 변장한 몸으로 군경들의 총검과 밀정들의 감시가 무시로 뒤따르는 위험천만한 적구를 주야불식으로 수없이 누비며 다녔다.

그러나 그는 이봉문이라는 고약한 밀정 놈에게 뒤를 밟혀 그만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라자구의 지하조직을 들춰내려고 순희를 음침한 철창 속에 가둬 놓고 가혹하게 고문하였다. 지하조직의 운명은 이 순희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라자구에 깔려있는 조직망들이 다 들장이 나고 애써 쌓아 올린 혁명의 포대가 일조에 무너질 수 있었다.

놈들은 거짓 약속과 감언이설로 처녀의 심장을 움직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순희에게 알아낸 비밀은 오직 하나, 그가 공청원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아마도 순희는 철장 속에 들어가서 공청원이 의미를 더욱 크게 느꼈던 것 같았다.

고문을 주관하던 라자구헌병대대장은 악에 치받쳐 마침내 순희를 총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사형 전날 밤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헌병대장이 이순희에게 사형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꾀어보려고 졸개들을 이끌고 이순희를 찾아갔을 때였다.

그때 순희는 옷을 손질하고 있었다. 비록 땀에 절고 피로 얼룩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이나마 단정히 입고 사형장에 나가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헌병대장을 개처럼 따라다니던 이봉문이란 자가 처녀의 곁에 다가가서 네가 살아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는 이 시간밖에 없다, 꽃다운 네 나이가 아깝고 불쌍해서 그러니 라자구에 있는 지하조직원의 이름을 한 사람만이라도 외워 바쳐라, 그러면 너는 살아난다고 하였다. 처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피에 엉킨 머리를 비다듬고 찢어진 저고리품에 손을 가져가더니 조그마한 회색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순간 이봉문은 사색이 되어 감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른 교형리들도 아우성을 치며 그를 따라나갔다. 이봉문은 순희가 꺼낸 회색주머니를 수류탄과 같은 무슨 폭발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폭발물이 아니라 흙주머니었다. 그 앙증스러운 주머니는 순희 아버지가 유격근거지에서 전사할 때 딸에게 물려준 것이다.

≪놀라지들 말거라! 이것은 내 나라의 흙을 담은 주머니다. 더러운 그 목숨이 무얼 그리 귀중해서 줄행랑을 놓느냐!≫

조국의 흙을 품에 안고 철장 속에서 광복의 그날을 그려본 공청원 이순희와 변절자 이봉문의 인격적 대조를 ≪봉황새와 까마귀≫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무리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봉문과 같은 배신자가 그 흙주머니의 가치를 알 수 있었겠는가.

이튿날 이순희는 사형장에서 혁명만세를 부르며 최후를 마쳤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부른≪공청가≫를 아래에 소개하고 싶다.

새 세상 동터온다 어서 마중가자
우리는 무산청년 모두 앞서가자
놈들의 낡은 사회를 용감히 무찔러 나가자
우리는 무산청년이니 무산청년답게
우리는 근로대중의 청년전위대

나는 언제인가 이순희와 함께 아동단학교에서 풍금을 타며 이 노래를 부렀다.≪공청가≫는 공청원들 뿐만 아니라 공산당원들과 아동단원들, 부녀회원들까지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그것은 그 노래 속에 새 사회에 대한 근로대중의 한결같은 동경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새 세상을 앞당기려는 청년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공청원들이 이순희처럼 단두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 ≪공청가≫는 원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그러나 가사와 선율 속에 흐르는 사상감정은 자유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온 세계 청년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에젠 포치에의 ≪인터내셔널≫이 많은 나라 당들의 당가로 되었던 것처럼 ≪공청가≫역시 국제적

인 청년가로 널리 애창되었다.

이순희와 같은 열녀를 배출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정치적 생명에 빛을 주고 날개를 달아 준 공청조직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조직이라는 존재가 없고 조직적 단련이라는 성장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순희와 같이 앳된 처녀가 교형리들 앞에서 그처럼 용감해질 수 있으며 그처럼 도도한 긍지와 자부를 안고 최후의 순간을 떳떳하게 장식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조직은 영웅을 낳는 집이며 대학이라고 말한다.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1명의 공청원이나 사로청원은 100명, 1,000명의 적도 타승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다. 우리 인민이 일당백의 인민으로 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인민이기 때문이며 우리 인민군대가 일당백, 일당천의 군대로 되는 것은 그들이 다같이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용광로에서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연마해가는 군대인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사로청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투사로, 영웅으로, 혁명가로 자라나고 있다. 항일전쟁 당시의 공청조직이 직업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학교였다면 지금의 사로청조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위부대를 육성해내는 기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항일혁명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주공을 담당하고 있다. 사로청은 우리 당이 가장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직한 주력부대로 되고 있다. 이 주력부대가 진출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위훈이 창조되고 기적이 나래친다. 서해갑문, 북부철길, 광복거리, 5.1경기장, 망경대, 학생소년궁전, 태권도전당 등 우리 조국의 만년재부로 되고 있는 위대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에는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노동당 시대의 청년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 있다. 우리 인민이 ≪속도전 청년돌격대≫를 사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시대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는 만민의 찬탄을 자아내는 공산주의적 미거들이 끝없이 발양되고 있다. 한번 죽으면 두 번 다시 받아안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남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고 있다. 일생을 영예군인의 손발이 되어 줄 것을 결심하고 그들의 아내가 된 처녀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꼽아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 사로청원들 속에는 미혼의 몸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준 고마운 처녀도 있다. 다른 나라 청년들이 수도시민권을 얻지 못해 애를 쓰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정든 수도를 서슴없이 떠나 전야로, 탄전으로, 개발지로 자진하여 탄원해가고 있다. 진실을 말하건대 나는 이런 청년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싶은 심정이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 속에서 발양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미거를 접할 때마다 나는 청년운동을 위해 바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노고를 더듬어보며 그 운동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해가고 있는 사로청을 생각하곤 한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 속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미담들이 연이어 태어나 만사람을 격동시키고 있는 것은 사로청의 공적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청년들의 대부대, 그것은 사실상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한 것이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길림 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 것이다.

유격구 해산을 계기로 우리는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또다시 적구에 파견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안도, 돈화, 무송, 장백, 임강 등지에 사람들을 보내 공청 요길변 중심현위원회를 꾸리고 적구에서의 지하청년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요길변이란 요녕, 길림, 간도의 변경지대를 말한다. 우리는 또한 지하청년조직을 무산, 갑산, 풍산, 회령을 비롯한 조선의 북부 국경지대에 일차적으로 꾸리고 나아가서 평양, 서울, 부산을 비롯한 조선의 중부일대와 남부지대에까지 확대할 원대한 구상을 세웠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왕청현 공청서기 조동욱도 공청 요길변 중심현위원회 서기의 책임을 지니고 적구로 들어갔다.

조동욱도 공청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5.30폭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길림성 제3감옥이라고 부르던 하얼빈 감옥에서 1년 이상의 옥중생활까지 하였다. 감옥에서 중어공부도 하고 공청에도 들었다는데 중학교 졸업생치고는 지식이 매우 풍부하고 학구욕이 강하였다. 조동욱은 공청 녕안현위의 위임을 받고 구국군 부대에 파견되어 공청사업을 하다가 40여명에 달하는 무장인원을 이끌고 1932년 9월경에 왕청으로 나왔다.

내가 조동욱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그해 가을이었다고 기억된다. 우리는 그를 이광 별동대의 공청간사로 임명하고 녕안에서 나온 무장인원들을 그 별동대에 배속시킨 다음 대원들을 북만에 파견하여 그의 가족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조동욱의 의붓아버지 장기섭은 ≪공산주의 아바이≫라고 불리우던 성실한 당원이었다.

조동욱은 나와 오의성과의 담판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왕윤성과 함께 담판 중의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준 사람이다. 이 담판이 있은 후 나는 그와 왕윤성을 라자구시내에 있는 반일부대 연합판사처에 파견하였다.

조동욱과 왕윤성은 각지의 반일부대들에서 파견되어온 연락군관들과 결의형제를 뭇고 중하층 장교들과 병사대중 속에 공산당지부와 공청지부까지 조직하였다.

반일부대 연합판사처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조동욱의 정치활동 솜씨는 더 세련되었다. 그가 적구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발을 붙인 곳은 안도현 양강구였다. 그는 자그마한 상점을 하나 차려놓고 ≪장사≫질을 하면서 상점에 드나드는 위만군들과의 사업을 능란하게 하여 15명의 중하층 장교와 병사들로 결의형제를 뭇고 1개 중대를 완전히 전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1개 중대는 조동욱의 조종에 따라 병변을 일으키고 산속으로 달아나버렸다.

조동욱은 산중에 웅거해 있는 병변군인들과 유격대와의 연계를 지어 주려고 처창즈로 찾아갔다. 그런데 좌경분자들은 그를 ≪민생단≫ 혐의자로 보면서 구속하려고 하였다.

훗날 조동욱은 그때의 일을 아래와 같이 술회하였다.

≪그때 동만특위의 좌경분자들은 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문초했습니다. 송일이 ≪민생단≫이니 너도 ≪≪민생단≫이 아니겠는가, 증거를 내놓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겠습니까. 저는 탈출을 결심하였습니다. 저에게 밥을 날라다주던 김정숙 동무도 그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숙 동무는 여비로 쓰라고 하면서 돈까지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양강구에 돌아온 다음 어머니를 데리고 조선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그 후 조선의 여러 지역에 나가 청년사업을 계속 하였다.

김진의 넋이 이수복에 의해 이어지고 이수복의 넋이 김광철, 한영철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공청의 명맥은 민청에 의해 이어지고 민청의 명맥은 사로청에 의해 튼튼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 반혁명의 하수인이 되어 할아버지네 세대들이 쌓아올린 탑을 허물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은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선열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금 사로청 대열에는 **김정일** 조직비서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수백만 맹원들이 집결되어 있다. 21세기의 우리의 조국은 그들의 힘에 의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단계에서의 청년조직의 임무

주체사상 총서 9권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에 관한 문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와 역할로부터 다른 근로단체들의 건설문제보다도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의 위력한 역량이며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계승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은 혁명의 대를 이러나가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조직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시키며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정권전취를 위한 혁명투쟁단계에서 청년조직의 임무는 광범한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노동계급의 정권을 쥔 다음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 청년 조직의 임무는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새 사회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 그들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담당 수행하도록 조직동원하는 데 있다.

주체사상은 정권전취를 위한 혁명투쟁단계에서는 핵심청년들로 공청과 같은 가장 혁명적인 청년조직을 따로 내오며 그 영향밑에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청년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주체사상은 또한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하나의 청년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며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새롭게 조직되는 청년조직은 새 사회의 주인으로 된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이다.

민주청년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노동계급의 새 정권이 수립된 때로부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될 때까지의 혁명단계에 가장 적합한 청년조직이었으며 이 혁명단계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외곽단체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는 그에 맞게 청년조직을 가일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해명하고 사회주의 하에서의 청년조직의 임무와 과업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어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고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 노동청년으로 됨에 따라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광범한 근로청년들이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6권 p29)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청년들의 계급구성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노동청년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선행혁명단계에 있던 청년조직을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새로운 청년조직으로 가일층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에서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이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혁명이 전진하고 발전하는 데 따라 청년조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그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조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해명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청년조직의 임무와 과업을 뚜렷이 밝혔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5권 p346~347)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청년조직의 임무와 과업은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의 청년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믿음직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적 역할을 높여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가는 데 있다.

청년조직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전투적 조직으로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이다.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청년들의 전투적 조직이며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방조자로서의 청년조직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청년조직으로 하여금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한다. 청년조직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모든 청년들을 수령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놀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주체의 영도체계에 관한 이론은 근로단체건설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의 임무와 과업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반제청년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7년 8월 27일 길림에서 조직하신 대중적성격을 띤 비합법적 청년혁명조직.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아래조직들이 수많이 무어 지고 광범한 청년학생들속에서 반일기운이 높아 지게 되자 보다 많은 청년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묶어 세우기 위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개편하시여 대중적성격을 띤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반제청년동맹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영향을 받은 선진적인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 반일청년들이 망라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지도와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반제청년동맹의 조직은 짧은 시일안에 길림시의 문광중학교, 길림제1중학교, 길림제5중학교, 길림사범학교, 길림녀자중학교, 길림법정대학을 비롯한 조선학생들이 있는 곳에 확대되여 갔으며 그 하부조직망은 길림시내는 물론 그 주변의 농촌과 나아가서는 심양, 장춘, 할빈, 돈화, 홍경, 류하, 료원 등 넓은 지역에 뻗어 있었다. 반제청년동맹지부에는 지부책임자와 조직 및 선전책임자가 있었다. 반제청년동맹은 도시와 농촌에서 학교와 야학을 운영, 인민대중속에서의 강연, 연예공연과 혁명가요보급, 각종출판물의 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청년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반일사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며 점차 일제와 반동군벌 및 반동교원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수많은 청년대중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새 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적청년핵심들을 길러 내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7년 8월 28일 길림에서 조직하신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혁명적청년전위조직. 공산주의청년동맹 또는 공청이라고도 불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날로 늘어 나는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며 특히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전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성원들을 망라한 비합법적혁명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사명을 지니고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며 당조직이 나올 때까지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령도에서 전위적역할을 한 조직이였다. 공산주의청년동맹은 지하활동의 조건에 맞게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조직지도체계를 세웠다. 공청조직에서는 공청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정치리론수준과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공청에서는 정기적인 회의와 함께 한달에 한번씩 공청원들이 자기 생활을 비판총화하는 생활검토회를 조직하였으며 강한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여 나갔다. 분공은 여러가지였으나 그가운데서도 아래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 농촌혁명화과업이 가장 기본적인것이였다. 공청은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을 조직에 받아 들여 그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갔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짧은 기간에 길림시안의 중학교들과 대학뿐아니라 두만강연안일대 그리고 돈화, 안도, 화전, 무송, 반석, 장춘, 할빈 등지와 동만의 넓은 지역의 도시와 농촌지역들에 조직을 내왔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 7월초 새 세대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신후 당조직의 지도밑에 활동하였다. 공청조직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된후 무장대오안에도 무어 졌다. 공청원들은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1936년 3월 청년들의 대중적혁명조직인 조선반일청년동맹으로 발전적으로 개편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과 그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혁명적전위조직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으로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결함들을 극복하며 새 세대공산주의자들을 키우고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주체혁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추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반일청년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직하신 청년들의 대중적혁명조직.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1936년 3월 중순에 공산주의청년동맹이 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우리는 이번에 공청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광범한 각계각층의 애국청년들을 망라시킬수 있는 청년들의 대중적혁명조직으로서 조선반일청년동맹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1권, 123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공청을 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조선인민혁명군안에서와 지방의 넓은 지역에서 힘 있게 벌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반일청년동맹은 조선인민혁명군과 각 지방에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진 대중단체로 강화발전되였다. 반일청년동맹은 각계각층 청년들의 요구와 희망을 옳게 반영한 투쟁과업을 제기하고 로동청년, 농민청년, 학생청년, 지식청년, 종교인청년 등 정견과 신앙,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일제를 반대하여 일떠선 모든 청년들을 조직에 결속하였다. 이와 함께 반일청년동맹은 청년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를 구현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리였으며 청년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힘 있게 불러 일으켰다. 반일청년동맹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자라 났다. 조선반일청년동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청년들을 최대한으로 묶어 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사업의 확대발전과 청년조직건설사업 그리고 청년운동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 사로청이라고도 부른다. 이 동맹은 1946년 1월 17일에 창립되였다(창립당시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 1951년 1월 17일 남북조선의 민주청년동맹이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통합. 1964년 5월 12일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칭). 사로청은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청년들의 전투적조직으로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이다. 사로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 받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 져 있습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앞에 나선 지상의 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영예로운 사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8권, 483페지)

사로청의 기본사명은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는것이다. 동맹의 당면한 투쟁과업은 청년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체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며 청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시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년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또한 위대한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일본군국주의 재침책동을 분쇄하며 괴뢰정권을 뒤집어 엎고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이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 청년들과의 전투적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적극 참가하는것이다. 사로청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 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오늘 사로청은 어떠한 난관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라도 훌륭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전투적부대로 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1946년 6월 24일 세계민주청년련맹에 가입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세계민주주의청년단체들의 국제적조직. 1945년 11월초에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된 제1차 세계청년대회에서 창립되였다. 이 련맹의 목적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평화를 옹호하며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을 쟁취하며 청년들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 련맹의 기구로서는 련맹의 최고지도기관인 대회(3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총서기, 부총서기, 서기, 재정관들로 구성됨), 뷰로, 서기국이 있다. 현재 본부소재지는 웽그리아의 수도 부다뻬슈뜨이다. 련맹은 기관지 《세계민청》을 발간한다. 초기 63개 나라 청년대표들의 참가밑에 결성된 련맹에는 1981년 현재 113개 나라의 159개 단체가 들어 있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가입당시는 조선민주청년동맹) 1946년 6월 25일에 가맹하였다. 1970년 10월말부터 11월초에 걸쳐 부다뻬슈뜨에서 진행된 제8차대회에서 해마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기간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 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각종 련대성운동을 벌리고 있다. 세계민주청년동맹은 반제, 반전, 반핵 투쟁에서와 평화와 안전,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의 국제적인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진보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련맹은 해마다 11월 10일을 진보적청년들의 단결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청년들의 로력적성과

(평양 주체 88년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해마다 8월 28일을 청년절로 기념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주체80(1991)년 2월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창립(1927. 8. 28)된 날을 청년절로 제정하였다.

오늘 조선의 청년들은 이날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고있다.

청년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4. 25려관, 조선인민군 4. 25예술영화촬영소, 림흥로타리－신미동사이 도로와 그 주변의 2, 000세대살림집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해주－옹진, 신강령－부포 사이 넓은 철길공사에 참가한 청년건설자들은 착공후 50일만에 60여키로메터구간에서 60여개의 다리와 70여개의 구조물공사 등을 끝내고 렬차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도 청년들이 큰 역할을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240여개의 ≪청년발전소≫들이 조업하였다.

이외에도 채취, 금속 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청년들이 생산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청년절기념사설

로동신문

(평양 주체 89년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청년절(8월 28일)을 맞으며 발표한 사설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신문은 조선청년들이 류례없이 간고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돌격대의 영예를 떨친데 언급하면서 그들은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위하였으며 당의 뜻과 구상을 선참으로 받들고 실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 조선청년들의 결사관철의 혁명정신, 절대성, 무조건성의 투쟁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가 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불사신이 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해나가려는 수백만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보루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오늘 조선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 선봉대의 영예를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청년중시의 사상과 정치가 낸은 자랑찬 결실이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견지하여오신 청년중시의 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령도자와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고상한 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창조와 건설의 영웅이 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 정부간부들이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평양 주체 88년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 각지의 청년들은 공화국창건 50돐을 앞두고 온 나라가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전투로 더욱 끓어번지고있는 벅찬 때에 자기들의 명절인 청년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28일 당과 정부 간부들은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 나가 청년절을 축하해주었다.

전병호동지, 한성룡동지, 최태복동지, 홍성남동지, 홍석형동지, 김중린동지, 김익현동지, 김복신동지, 김윤혁동지, 공진태동지와 정무원 위원장, 부장들,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이 룡성기계련합총국, **김일성**종합대학,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만경대공작기계공장, 9월21일제련소, 3월26일공장, 강서편직공장,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 나가 청년들과 명절의 한때를 보내였다.

당과 정부 간부들은 청년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의 현지교시판, 현지말씀판들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이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창작발표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이 울려퍼지고 흥겨운 무도회와 체육오락경기들이 활기있게 벌어졌다.

당과 정부간부들은 공장, 기업소의 생산공정들도 돌아보고 청년혁신자들과 좌담회도 진행하면서 청년들에게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제일결사대, 제일근위병이 되며 오늘의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앞장서나가는 선봉대, 돌격대가 될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각 도, 시, 군 책임일군들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 나가 청년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면서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한편 28일 평양시와 각 도, 시, 군 소재지들에서는 청년들의 야회, 취주악대경연, 대렬합창경연, 특간호전시회 등이 진행되였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급 학교들에서는 예술소품공연과 체육오락경기들이 벌어졌다.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각국대표단

(평양 주체 89년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노르웨이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과 인도네시아청년대표단 성원들은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위인의 령도를 받는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정일**동지는 청년운동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를 받는 조선청년들이 정말 부럽다고 말하였다.

노르웨이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장 뵤르나르 콘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여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시대의 선구자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고계신다.

령도자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은 령도자께 충성다하는 이런 혼연일체의 모습은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위대한 현실이다.

단원인 켈멘은 청년문제는 매개 나라에서 민족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문제가 결정된다.

력사는 청년교양문제를 홀시하면 가슴아픈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청년문제가 훌륭히 해결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운동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조선청년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는데서 선봉대적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인도네시아청년대표단 단장 아구스 하리아디는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와 집단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고있으나 조선청년들은 사회와 집단,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미풍을 발휘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청년절을 맞으며 행사 진행

(평양 주체 89년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청년들이 자기들의 뜻깊은 명절 청년절을 맞으며 웅변경연과 독창, 독주 경연, 계급교양자료전시회 등을 조직하였다.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웅변경연에서는 청년일군들이 전동맹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800만의 총폭탄대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전국청년학생들의 독창, 독주 경연참가자들은 녀성독창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 남성독창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바이올린독주≪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등 곡목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청년학생들의 높은 충효의 마음을 형상하였다.

한편 청년동맹회관에서는 전국청소년들의 계급교양자료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자체로 만들어 청소년들의 계급교양사업에 리용하고있는 549종에 4, 600여점에 달하는 교양자료들이 전시되였다.



조선청년들의 업적

（평양 주체 90년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8월 28일을 청년절로 기념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3년전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시였다.

주체80（1991）년부터 이날을 청년절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을 맞으며 사람들은 력사의 년대기마다에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여 온 청년들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조선혁명의 1세들인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주석의 령도밑에 공산주의운동의 새 력사를 펼쳤으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였다.

조국광복（1945년 8월 15일）후에 청년들은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와 같은 민주개혁실시를 위한 사업과 증산경쟁, 문맹퇴치운동 등에 적극 참가하여 새 사회건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해방전쟁기간（1950～1953）에도 청년들은 원쑤격멸을 위한 성전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 냈다.

청년들은 전후 파괴된 공장과 농촌들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면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떨치였다.

1980년대에만도 청년들은 세계적규모의 서해갑문, 250여키로메터구간의 북부철길, 년간 1, 000만톤 처리능력의 검덕광산 제3선광장 등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 세웠다.

특히 2년남짓한 기간에 2만여세대의 광복거리살림집과 청춘거리체육촌, 15만석의 5월1일경기장 등 260여개 대상을 훌륭히 완공하여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조선청년들의 영웅적 기상을 보여 주었다.

최근 년간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청년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100여리구간의 평양－남포고속도로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 그리고 각지 소금밭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선 청년들

（평양 주체 90년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청년들이 자기들의 명절인 청년절（8. 28）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혁명의 계승자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을 굳게 믿고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다.

하기에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벅찬 투쟁에 피 끓는 청춘을 바쳐 충성과 위훈의 값 높은 삶을 빛내일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지금 방대한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은 청년들이 통채로 맡아 수행하고 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착공후 한해동안에 1, 260여만립방메터의 토량공사와 95만여립방메터의 로반혼석깔기, 10여만립방메터의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수십메터의 폭을 가진 100여리의 로반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놓은 청년들은 요즘 포장작업과 구조물공사를 힘 있게 내밀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인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을 당창건 55돐전으로 훌륭히 완공할것을 호소하였다.

강계－랑림철도전기화공사와 서함흥－서호사이의 철도전기화공사를 맡은 청년건설자들도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계－랑림철도전기화공사에 동원된 청년들은 짧은 기간에 72키로메터나 되는 철길구간에 1만여립방메터의 자갈펴기, 수만정의 침목교체 작업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건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들은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도처에 꾸려 지고 있는 양어장들과 가금목장, 돼지공장들이 청년들의 혁신적성과에 토대하여 하나하나 완공되여 가고 있다.

청년들의 위훈은 이밖에도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전투장들에서도 련일 창조되고 있다.





학생운동을 승화발전시켜나가자

한민전 중앙위 청년학생국 주체 88년 10월 1일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파란곡절많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각자는 어제를 결산하고 오늘을 새겨보며 내일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국변혁운동사에 찬란한 페이지를 남긴 한국학생운동을 재점검하고 향후 진로를 새롭게 정립해보아야 할 역사의 분수령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학생운동이 역사앞에 책임적이고 민족앞에 양심적이며 국민앞에 헌신적인 모습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구국성전의 선구자적 위상을 다시금 똑똑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청년학생국은 한국학생운동의 상승발전을 위해 한국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향후 진로를 다시금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1. 학생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청년학생들은 한국변혁운동의 주력이다.

그만큼 민족앞에 지닌 학생운동의 사명은 지대하다.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운동 스스로가 민족사의 부름에 부응하여 어깨에 짊어진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과제이다.

하기에 한국학생운동은 언제나 정의에 과감하고 불의를 용납치않는 불퇴전의 기개와 용맹으로 한국변혁운동사를 빛나게 장식해올수 있었다.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대한식민지지배구조에 파열구를 낸 반미자주화운동의 선봉장이다.

반미구국운동에 앞장선 청년학생들에 의해 반미무풍지대였던 이땅에는 반미자주화투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고 숭미공미사대의식에서 깨어난 각성된 국민대중의 반미행동이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그것이 오늘은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을 이루게 되었다.

반미자주화의 선행이 없이는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각인시키고 반미자주화운동을 한국변혁운동의 주류로 되게 하는데서 핵심적이고 선봉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학생운동이 민족해방운동사에 쌓은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학생운동은 반파쇼민주항전에서도 불굴의 기개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승만독재를 붕괴시킨 60년대와 박정희유신독재를 몰락시킨 70년대를 이어 5, 6공 군부독재를 역사의 무덤에 매장하고 ≪문민≫독재를 몰락시킨 한국민주화운동의 자랑찬 열매들이 청년학생들의 희생적인 투쟁과 피땀의 대가로 이루어졌음은 재론의 여지도 없다.

한국학생운동은 민족의 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중임을 떠맡아안고 시대의 격난을 앞장에서 헤쳐왔다.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통일운동과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참가투쟁으로 한국의 통일애국세력은 분단의 원흉 미제와 분열주의집단의 발악적 공세를 걸음마다 짓부수며 남과 북, 해외 통일애국역량의 3자연대실현과 민족공동의 통일방안합의, 분단영구화음모 분쇄와 북침전쟁도발 저지투쟁에서 자기의 저력을 훌륭히 발휘해올 수 있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의 대가로 학생운동을 한국변혁운동의 앞자리에 확고히 올려세운데 대해 커다란 자부를 가져야 하며 자랑스러운 청년학생운동의 애국적 투쟁정신을 빛나게 승계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 학생운동의 현황과 진로

오늘 한국학생운동은 급변하는 내외정세 속에서 진로를 모색하며 시련을 겪고 있다.

파쇼당국과 일부 수구언론은 학생운동을 ≪민주주의훈련을 받지못한 후진국병≫으로 헐뜯고 ≪한국학생운동의 종말≫까지 떠들어대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 ≪야스다강당사태≫로 종말을 고한 ≪전공투≫에 비유하면서 ≪한총련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생운동은 식민지예속과 파쇼, 민족분단이라는 2중3중의 사회적 모순구조를 타파하는 변혁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자리잡고 자주, 민주, 통일을 떠밀어온 견인차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식민지민족해방을 위한 정치투쟁의 선도체로 민족사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잡았다.

그러면 최근 학생운동이 저조한 상태에 처해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일차적 원인이 파쇼당국이 탄압과 공권력과 야합한 보수언론의 ≪와해≫공세에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사복깡패들은 학생운동의 대정부투쟁근거를 제거하기 위해 ≪개혁≫과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한총련의 조직적 기초를 허물기 위해 학생운동에 ≪좌경용공≫, ≪체제전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계획적인 ≪한총련씨말리기≫작전을 펴왔다.

이미 94년 서강대총장 박홍의 히스테리적인 ≪빨갱이≫발언에 의해 감행된 ≪주사파에 대한 마녀사냥≫에 이어 96년의 연세대사태를 기화로 ≪한총련빨갱이 죽이기≫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김대중정권에 이르러서는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무력진압과 공권력을 총발동한 위협공갈과 검거작전, 언론의 악성편파보도로 학생운동 전체를 말살하기 위한 선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이처럼 학생운동을 압박하는 객관적 상황은 엄혹하다.

우리 학생운동이 자기 앞에 부여된 사명과 중임을 다하자면 과거의 투쟁경험에서 성과는 살리고 교훈을 거울삼아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변화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슬기와 과감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

현시기 학생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초미의 과제는 운동의 사상적 개량화를 막고 이념상 차이를 극복하여 대오의 단결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학생운동에 그늘을 던지는 중요한 내적 요인은 학원일각에서 ≪시대변화≫와 ≪투쟁명분해소≫를 운운하면서 ≪운동의 다변화≫를 주장하는 개량화현상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모순된 현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고 기존의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이론의 수정을 제기하면서 학생운동의 ≪개별화, 부문화≫로 ≪시민운동화≫하고 한총련은 ≪개인주의적 문화단체≫로 만들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운동권에서 부상하는 사상이론적 난기류는 최근 서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사회운동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신사회운동론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존의 모든 학생운동이념을 거부하고 ≪탈계급적, 탈중심적인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운동의 ≪다원주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 분단시대의 구체적 현실과 발전하는 운동정세를

백안시하고 학생들에게 무저항을 설교하는 투항주의적 변질이며 독재정권의 학생운동 개량화전략에 편승한 이적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지배가 계속되고 파쇼폭압체제와 분단구조가 엄존하고 있는 현정세하에서 학생운동이 정치투쟁을 포기하고 ≪문화운동≫으로 전락된다면 ≪문화운동≫ 그 자체도 성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운동은 존재명분과 설 자리마저 완전히 잃게 된다.

사상이념적 대가 굳건하지 못하고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 운동은 필연적으로 개량화되고 반동적 이데올로기공세와 탄압을 이겨내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운동의 강화와 혁신을 이룩하자면 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는 치열한 사상운동을 선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상운동은 개량주의이론의 침습을 막고 한국학생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정립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운동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모를 박아야 한다.

주체사상이 이미 학생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정립된 오늘에 와서 운동권안에서 ≪문화운동≫이니, ≪시민화≫니 뭐니 하는 개량주의적 이념논쟁이 일고 있는 것은 독재집단의 각개격파전술에 휘말려 운동자체를 사멸시킬 수 있는 독소적 파쟁행위이다.

청년학생들은 대오내에서 주체사상선전을 강화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이념적 통일을 보다 강화하고 학생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우며 공권력의 이데올로기공세에 사상적 결집력으로 맞서 싸움으로써 불패의 애국대오의 사상정신적 성숙미를 만천하에 과시해야 한다.

운동의 대중성확보는 현시기 학생운동이 해결해야 할 긴절한 과제이다.

경험은 변혁운동의 담당자인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의 자각된 힘을 발동시키는가 못시키는가에 따라 운동의 성패가 결정됨을 가르치고 있다.

의식화는 대중화의 선행공정이다.

최근 ≪변화된 시대≫를 운운하면서 운동권안에 각종 반동사상조류가 끼어들고 무저항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대중의식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을 학생운동의 주체로, 변혁운동의 주력부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대중을 자주의식화하여야 한다. 학생운동핵심들은 학생대중이 운명개척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학생운동, 한국변혁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도록 깨우쳐주는데 힘써야 한다.

대중조직화는 학생운동의 사활이 걸린 관건적 문제이다.

조직화된 대중역량이 없다면 운동은 권력에 의해 쉽게 좌절당하게 된다.

학생운동의 조직적 결집력을 높여 무적의 주력부대로서의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는 백만학도의 합법적 구심체인 한총련을 파쇼탄압으로부터 사수해내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울타리를 허물고 자기의 대표조직인 한총련의 깃발아래 굳게 결속하며 한총련을 백만학도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조직으로 가일층 발전시켜야 한다.

한총련을 지켜내고 학생대중의 결집체로서의 그 위상을 높이려면 주체의 전략전술을 운동과정에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위한 대중을 투쟁에 불러일으켜야 한다.

운동의 대중화실현에서 올바른 투쟁방법의 선택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무리 주장이 옳고 명분있는 투쟁이라 하더라도 돌출전법과 과격행동은 사회적 동의와 대중적 참여를 획득할 수 없다.

학생운동의 투쟁방식은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정서에 걸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이것을 떠난 무리한 방식은 오히려 폭압정권에 탄압의 빌미만을 주게 된다.

운동지도핵심들은 협소하고 과격한 투쟁방법을 근절하고 학생대중이 공감하는 투쟁방식을 구사해 백만학도가 동참하는 대중적 학생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하 학생운동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당면과제는 연대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운동이 각계 국민대중과 연합할 때 얼마나 변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 역사가 실증해주고 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의 3자연대운동의 강화는 한국변혁운동을 승리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첩경이다.

청년학생들은 변혁운동의 영도적 주력군인 노동자계급과의 연대활동과 조직적 유대를 강화하고 농학연대를 발전시켜 한국사회의 강력한 주체역량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또한 도시빈민, 중소상공인, 종교인, 지식인, 민족자본가를 비롯한 모든 애국적 계급계층과 손잡고 연대운동을 활발히 벌여 우세한 역량으로 소수의 반동적 지배세력을 고립타격해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각계각층과의 연대공동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올바로 반영하고 대중의 이해와 의사를 수렴한 투쟁구호를 내들어야 하며 연대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실정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활용해나가야 한다.

학생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하고 주체의 변혁운동이론과 전략전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투쟁하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

학생운동은 오늘의 난국을 뚫고 주체사상의 진리로 변혁운동을 주도하는 반미반파쇼구국항전의 기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온갖 탄압과 모략공세에도 꺾이지 않는 학생운동의 위용에 겁을 먹은 김대중파쇼집단이 한총련말살에 광분하고 있으나 그것은 강자앞에 선 약자의 허세일 따름이다.

한국학생운동의 승리는 필연적이며 확정적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주력이며 21세기를 떠메고 나갈 민족의 희망이고 미래인 청년학생들은 필승의 자신감 드높이 견인불발의 의지를 가다듬고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더욱 힘차게 매진하자!



현시기 학생운동강화의 요체

조연택 인터넷 구국전선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청년학생들 속에서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경향각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당황한 분단세력과 공안당국은 지금 학생운동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한총련에 대한 공격과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운동권의 내부분열과 와해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모략기구들은 돈을 뿌려가며 프락치를 박아넣거나 어용학생회를 조작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총발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상황에서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의 기치아래 더욱 튼튼히 결집하여 학생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그러면 현시기 학생운동강화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계속 벌여나가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각계 민중과 함께 지금 벌이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사회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며 보안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적인 분단구조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분단세력의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을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제때에 분쇄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운동권내에서 분파주의, 개인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다.

학생운동권내에서 개별분파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파주의, 개인주의는 학생운동강화에서 백해무익한 것이다.

분파주의는 조직을 약화시키고 동지들, 학우들간의 신뢰와 의리를 무너뜨린다.

분파주의, 개인주의를 허용하면 학생운동권 내부에 다양한 운동관과 전략전술적 견해들이 분립하며 역량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학생운동이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이 자주, 민주, 통일을 목표로 강력하게 벌어지도록 하려면 운동권내에서 분파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정확한 투쟁전술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투쟁방식을 구사하는 것이다.

적아간의 역량관계와 내외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개인영웅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대중의 의사와 정서에 맞지 않게 극단적이고 과격한 투쟁전술을 제시해도 안되며 반대로 정세가 성숙돼 투쟁역량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혀 우물쭈물 하면서 혁명적인 투쟁전술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또한 투쟁방식을 구사하는 데서 학생대중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선택되어야 한다.

학생대중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형식의 투쟁전술과 투쟁방식을 능숙히 구사할 때에만 학생운동이 강력한 대중적 운동으로 강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운동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사업방법과 작풍을 혁신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한총련을 향해 소수의 횡포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이러한 ≪비민주성≫과 ≪관료화≫ 때문에 조직이 경직화되며 결국 학생운동이 자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학생운동을 강화발전시키자면 운동권내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과 국민의 요구를 제때에 수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학생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지 않는다면 학생운동을 승리에로 이끌 수 없다.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민족, 민중의 요청에 부응해 학생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서 본연의 책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0년 청년학생운동

조연택 / 인터넷 구국전선

2000년 올해에 우리의 학생운동은 역사 앞에 책임적이고 민족 앞에 양심적이며 국민 앞에 헌신적인 모습으로 힘있게 전진했다.

무엇보다 학생운동은 공안당국의 총칼탄압과 회유기만에도 한총련을 고수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높이 변함없이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돌이켜 보면 올해 학생운동앞에는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었다. 공안당국은 학생운동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한총련을 ≪이적단체≫, ≪폭력단체≫로 매도하면서 탄압의 도수를 높여왔다.

수많은 한총련대의원들과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파쇼경찰에 체포, 구속되였고 정보모략기구들은 학생운동권의 내부분열과 와해를 꾀하여 돈을 뿌려가며 프락치를 박아넣거나 어용학생회를 조작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총발동했다. 한편 파쇼경찰은 한총련의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50개중대 6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한총련 제8기 출범식을 막아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

그러나 청년학생들은 파쇼경찰의 폭압을 박차고 부산대에서 지난 5월26일부터 3일간 제8기 한총련출범식을 갖고 이희철 조선대총학생회장을 제8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뒤이어 전국여자대학협의회,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출범식도 가졌다.

이것은 청년학생들이 한총련을 고수하고 자주적인 새 세상을 투쟁으로 안아올 불굴의 의지와 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준 커다란 성과이다.

다음으로 올해 청년학생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생운동이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밑에 전국적 범위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학생들 속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거세차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15일 1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시내 중심의 한 공원에서 ≪양키는 물러가라≫고 소리높이 외치며 반미구호판을 들고 반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국이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연이어 벌여놓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항의했고 지난 전쟁시기 양민학살만행에 대한 조사와 사죄를 요구했다.

10월 7일에는 1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양키는 물러가라≫, ≪미국은 사죄하고 보상하라≫, ≪사격장을 백악관으로 옮기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십개의 반미구호판들을 들고 서울의 번화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외에도 5월9일 고려대 4학년 이모씨 등 대학생 3명이 미대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였고 6월20일에는 청주교대 3학년 김모양 등 한총련소속 대학생 6명이 매향리사격장이 있는 농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는 등 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이 계속 벌어졌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의 ≪우방≫도, ≪벗≫도 아니며 침략자, 약탈자, 살인자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깨달은 청년학생의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다.

올해 학생운동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한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노학연대, 농학연대에 특별히 관심하고 활동했다.

지난 4월29일 청년학생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노동절 1백10주년 기념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갖고 주 5일근무제실시, 비정규직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자동차산업해외매각중단, 임금인상과 단협 원상복구 등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청년학생들은 또한 7월25일 전국농민회소속 농민들과 대학로에서 집회를 갖고 농축산물가격보장과 농가부채해결,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항의해 대형성조기를 불태우며 투쟁했다.

그밖에도 청년학생들은 민주노총이 5월31일부터 주 5일근무제 등을 요구해 벌인 총파업에도 동참했고 6월29일부터 7월8일까지 경북지역 14개 시, 군 2백여 개 마을에서 전국 21개대학 5천여명이 여름농활에 참가했다.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우리의 청년학생들은 선봉에 섰다.

서울의 여러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4월19일 4.19봉기 40돌에 즈음해 각 대학별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총학생회는 4.19정신승계 마라손대회를 가졌고 중앙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교내에서 4.19기념모임을 갖고 항쟁투사들의 투쟁정신을 되새겨보며 그들처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3월20일에는 전지역 65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이 대학등록금 인상을 반대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재정문제를 부당하게 처이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고 항의했다.

청년학생들은 지난 8월13일과 14일 한양대학교와 명동성당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8.15통일대축전행사를 갖고 남북공동선언기념탑쌓기와 장기수송환식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참으로 올해 학생운동은 정의에 과감하고 불의를 용납치 않는 불퇴전의 기개와 용맹으로 빛나게 장식했다.

청년학생들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올해 운동을 경험삼아 21세기를 떠메고 나갈 민족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001년 새해에는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장으로 자기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리라고 본다.



청년학생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청년학생국 담화 / 주체 90 (2001)년 2월 11일

오늘 한국청년학생들은 새 세기에 들어선 긍지와 남북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에 상응하게 새로운 전진과 투쟁으로 힘차게 ***고 있다.

세기를 넘긴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대국을 하루 빨리 일떠세우려는 청년학생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하며 투쟁기세는 매우 높다.

돌이켜보면 한국청년학생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을 변함없는 투쟁좌표로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투쟁해 왔으며 정의와 애국에 열렬한 청년학생들은 **청춘을 바쳐 빛나는 자욱을 새겨왔다.

반미무풍의 식민지 이 땅에 반미열풍의 봉화를 지펴 올리고 자주화운동의 새로운 격랑을 일으킨 애국투사들도 청년학생들이었고, 4.19봉기, 5.18광주항쟁, 6월 민중항쟁 등의 주역도 청년학생들이었으며, 분단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분출시킨 통일선봉대도 다름 아닌 **** 자랑스런 청년학생들이었다.

청년학생들은 조국의 미래를 걸머진 역군답게 민중의 진두에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 나감으로서 한국민중은 그에 힘을 얻고 통일구국성전을 힘차게 벌여 올 수 있었다.

백만청년학도들의 합법적 대표체인 한총련은 한국학생운동의 구심체, 단일조직으로서 식민지예속과 파쇼독재를 불사르고 반통일을 격파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일선에서 용맹을 떨치었으며 그 과정에 민중의 아낌없는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고 불패의 애국대오, 구국의 강철대오로서의 자기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한총련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족의 영수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 강령과 의지를 받들고 민족자주통일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총련은 지난 1월 10일 2001년 반미투쟁선포식을 갖고, 투쟁호소문 ≪2001년 승리자의 기세로 자주로운 새 세기의 진격로를 개척하자≫를 발표하여 현 시기 공동선언 실현을 첫 자리에 놓고 반미자주화투쟁과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민족자주통일의 진격로를 개척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한총련이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대행진에 용약 나선 것은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에 **** 각계민중에게 커다란 희망과 고무를 안겨 주고 있다.

참으로 청년학생들은 조국과 민족의 장한 아들딸답게 시대와 역사를 개척하고 자주화된 통일조국을 안아 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한국청년학생운동에서는 성과들도 많았지만 운동대오의 단합을 이룩하고 단결할 것과 시대의 요구와 *** 통일열기에 걸맞게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다. 그러나 청년학생운동은 모진 고난과 시련, 폭풍우를 용감히 뚫고 한국사회변혁의 견인자, 조국통일의 선봉자적 역할을 수행하며 승리*** 궤도를 힘차게 달려왔다.

오늘 청년학생운동은 새 세기의 역사적 전환의 기로에 들어섰다. 새 세기 21세기는 애국에 투철하고 정의에 과감한 청년학생들을 민족자주통일을 안아 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현장으로 부르고 있다. 새 세기는 천출위인이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덕망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영광차고 보람찬 세기이다. 민족의 영수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 따라 새 세기에 반드시 통일중흥하고 융성번영하는 세계제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이것이 바로 새 세기의 요청이고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운명의 구세주이시며 21세기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숭배심을 깊이 간직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에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인 6.15공동선언을 받들고 실천하는 길에 참다운 애국애족도 있고 청춘의 보람차고 긍지 높은 삶도 있다.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의지를 통일의 성전에 높이받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서야 하며 그 길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걸맞게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청년학생운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는 운동의 조직화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총련은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주체역량의 **** 직시하고 청년학생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결집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한총련은 오늘 이 땅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광범위한 학생들을 한총련의 주위에 폭발적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특히 학생회 간부들을 민족자주정신과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의지가 확고한 운동핵심들로 키워 조직적******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각계민중과 청년학생들이 공감지지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지향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학생운동을 새로운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능동자재하게 조직전개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청년학생운동의 최우선 과제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반미자주화 투쟁이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자주통일실현의 최대의 걸림돌이 미국임을 똑바로 보고 투쟁의 예봉을 반미에로 지향시키고 반미자주화투쟁에 힘을 총집중하여 경향각지에서 반미투쟁의 열풍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게 해야 한다. 당면하여 미국의 6.25양민대학살만행 진상규명과 사과와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한 투쟁, 주한미군범죄근절, 주한미군기지 철폐, 한미행정협정파기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줄기차게 벌이며 이 투쟁을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이 땅에서 자주민주통일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 해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선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이 시대의 악명 높은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설자리를 잃고 그 존재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서는 의연히 국보법에 의한 파쇼전횡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불의에 가차 없고 정의에 투철한 청년학생들은 이 통탄할 사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화해와 단합의 암

초, 조국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여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자주통일을 지향한 전환적인 정세국면은 민족민주통일운동진영에 매우 유리한 활동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운동을 다양하고 신축성 있는 전술에 입각하여 큰 폭과 깊이를 가지고 활력 있게 벌일 것을 절실히 요정하고 있다. 학생운동조직들은 6.15공동선언 실천에 중심을 두고 온갖 조건과 계기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운동의 신축성 효율성을 높이고 투쟁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

청년학생운동의 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학생운동조직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운동조직들은 운동권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파주의 성향을 극복하고 개인주의적인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앞자리에 놓고 6.15남북공동선언 관철 기치 드높이 한총련을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 하여야 한다. 하나로 뭉친 청년학생들의 힘은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며 민족자주통일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총련의 지도간부들은 독선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이 조직에 대한 학생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오의 단결을 저해함을 명심하고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일대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한총련의 지도간부들은 하부조직들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고 창조적 지혜를 발양 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대중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구현하며 동지애로 심장을 불태우고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 사업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 연대연합운동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운동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실천적 과제이다. 청년학생들은 각계민중과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해야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운동의 위력을 배가로 과시하며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반미자주의 기운과 통일열기가 급격히 높아 가고 있는 오늘의 전반적 정세는 청년학생들이 각계민중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하여 민족자주통일 실현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노학, 농학연대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각계민중과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연대연합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민족자주통일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은 자주이고, 사대매국적 반통일세력은 극우보수이다. 청년학생들은 각계각층과의 광범위한 연대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자주민주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극우익보수세력들을 고립약화 시키고 완전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한다. 그리고 각계민중과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며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총매진해야 한다.

올해의 학생운동은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새 세기의 역사적 진군길을 가속화하여,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안아 오기 위한 중대한 시점에 서있다. 청년학생들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따라 불패의 신념에 넘쳐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최선두에서 과감히 돌진해 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책임을 **하고 강성부흥의 통일조국을 하루 빨리 건설하여 21세기 학생운동을 긍지 높고 보람차고 영광찬 승리로 빛나게 장식하자.



한국청년전위의 임무

1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의 첫해가 밝았다.

세기와 세기가 교차되는 역사적인 오늘 우리 청년전위들은 지난 세기를 총화하며 새세기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열화같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세기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영광찬란한 **김일성**세기였다면 이후 21세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기, 영원불멸할 **김정일**세기라는 것이 우리의 총화이다.

20세기는 쏘련 및 일부 사회주의국가들이 좌절하며 사회주의가 일대 시련과 곡절을 겪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하고 조선의 주체사회주의가 수호됨으로써 총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파란많은 20세기에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포위속에서 조선이 주체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바탕을 마련한 것은 전 인류를 경탄케 한 세기의 기적, 역사의 기적이다.

이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의 발현이며 영생불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영광스런 조선노동당의 불패성의 구현인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조국을 구원하시고 여러 단계의 변혁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신 탁월한 전략가, 정치가이시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민중행 열차≫를 타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가, 자애로운 민중의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주석님은 그 불멸의 사상과 위대한 업적으로 조국과 인류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사상, 영도, 풍모에서 똑같으신 백두형의 천출위인으로서 주석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오늘의 **김일성**동지이시고 현시대에 단 한 분뿐인 국제적 영수이시며 주석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신 충효와 의리의 화신이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키시고 계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현시대, 곧 피억압피착취 민족민중이 역사무대의 전면에 나서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주체시대의 유일한 향도이념으로서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변혁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변혁이념이며 맑스레닌주의의 변혁적 진수를 계승하고 그 사상이론적 한계와 시대적 미숙성을 극복하여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에 이른 위대한 철학사상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화발전시키시고 계시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런 항일무장투쟁을 변혁전통으로 하고 제국주의연합의 봉쇄와 압살 책동을 물리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는 변혁의 참모부, 향도적 역량이다.

일부 사회주의국가의 좌절은 사회주의의 파산이 아니라 기회주의의 파산으로서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이론적, 시대적 한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교조주의가 낳은 침체와 그 반대로 침체상태를 ≪개혁≫한다며 사회주의의 변혁적 원칙을 저버린 수정주의적 변질이 야기한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반면 주체조선은 사회주의의 생명선이 바로 사회주의사상에 있다는 것을 각인하며 전체민중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고 당과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변혁의 자주적 주체를 강화하고 그 창조적 역할을 높여 변혁투쟁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며 추호의 동요도, 일체의 좌절도 없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이 지난 6년간의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고난의 행군≫으로 극복하며 주체사회주의를 수호한 미증유의 위업은 인류변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주체조선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라는 대국상을 당하고 제국주의연합의 악랄한 압살책동과 연이은 대자연재해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부활하여 세기적인 기적인 인공위성 ≪광명성 1호≫까지 쏘아올리고 이제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민중들이 세상에 부러움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웅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게된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변혁이념인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성과 무궁한 생활력이며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며 이를 변혁과 건설에 구현해 나아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전략과 세련된 영도인 것이다.

실로 지난 ≪고난의 행군≫시절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으로 숨쉬고 장군님의 영도력으로 전진하며 장군님의 덕망으로 승리해 온 불멸의 변혁실록이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한생이 어려있고 주체사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최강의 전략이며 변혁정당이라면 영원히 고수하여야 할 필승의 보검인 선군영도의 변혁사상을 정식화하시며 그 무한한 위력으로 변혁과 건설을 승리로 영도하시었다.

지난 세기의 마지막 시기는 이처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사상에 의하여 주체사회주의가 수호되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봉쇄와 탄압을 격파한 변혁승리의 영광찬 노정인 것이다.

실천적 경험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우리 청년전위를 비롯한 주체조선의 전체민중과 진보적 인류에게 각인시켜 주었으며 다시한번 변혁위업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위대한 변혁의 영도자, 후계자를 모시는데 있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조미사이에 벌어졌던 총포성없는 전쟁과정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전략의 위대성을 온 세계에 단적으로 시위하며 장군님이야말로 미제국주의 초강대국을 부처님 손바닥의 손오공처럼 다루시는 천출위인, 천출명장이심을 확증하였다.

지난 세기 쏘미냉전이 해체된 후 미국은 자국내 제국주의적 정치경제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출로로서 미국속의 세계를 만들려는 ≪신냉전≫전략, 신패권주의전략을 수립하고 ≪유고전≫에서 중국대사관을 폭격하는 도발만행까지 벌이었다.

그토록 호전적인 미클린턴 행정부가 조선에서 제2의 조선전쟁을 기도하려고 92년과 99년에 각각 ≪핵사찰사건≫과 ≪금창리사건≫, ≪서해사건≫을 도발하였으나 실력에서도 명분에서도 뒤진 미국이 군사대결전에서나 외교대결전에서 참패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어찌하여 ≪만전쟁≫, ≪유고전≫에서는 외과수술식 타격과 융단폭격을 일삼던 미국이 오직 조선에게만은 고분고분히 ≪조미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경수로지원을 약속하고 나아가 이를 ≪페리보고서≫로 확인까지 하였는가도 역시 비밀이 아니다.

급기야 미국은 조선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백악관에 초청하

여 미국대통령의 조선방문까지 확인하는 ≪조미공동코뮤니케≫에 항복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총포성없는 조미대결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온 민족, 온 인류는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제이며 제2의 반미전승일인 조선노동당창건55돌행사를 숭엄한 감정으로 바라보면서 조미대결전에서, ≪고난의 행군≫노정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흠모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주체조선의 승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최강의 선군전략, 그리고 변혁적 군인정신, 강계정신, 대홍단기풍의 빛나는 성과이며 전당, 전군, 전민이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며 이룩한 불멸의 업적인 것이다.

이런 조미대결에서 조선이 주도권을 틀어쥐었기에 조선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대결과 분단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을 향하여 전진하며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며 그 결과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의 송환도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전략, 용단에 의하여 채택되고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 21세기 조국통일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정세는 이를 지지하는 통일운동세력을 비롯한 범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간의 전선으로 재편되게 되었으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전환적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한국변혁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던 최대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인 반공반북반김의식은 이 선언으로 결정타를 입었으며 그 결과 내외 반통일호전세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민중생존권쟁취의 요구가 비상히 고조되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 청년전위들의 투쟁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고 있다.

실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단 며칠만에 지난 반세기동안 이루지 못한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시고 전 민족의 통일염원을 비상히 고양시키시며 조국통일로 향한 대통로를 개척하시는 위업을 달성하신 것이다.

올해는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21세기 첫해의 정세를 좌우하는 최대분수령,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인 2002년 말에는 한국변혁운동사상 중대 분기점이 될 대선이 있다.

지금처럼 한국의 민족민주세력이 자주민주통일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어본 적이 없다.

새세기를 시작하는 오늘 한국청년전위들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2

20세기는 조선의 청년전위들이 변혁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투쟁과 위훈의 역사이기도 하다.

우리 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간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일찍이 타도제국주의동맹에 뿌리내린 조선변혁운동과 청년운동은 1927년에 반제청년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변혁적인 청년핵심들을 튼튼히 묶어세운 힘있는 청년전위조직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정에서 참다운 조선청년전위의 역사가 열리고 그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었다.

항일변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조선청년들은 해방 후 경애하는 주석님의 영도밑에 외세, 민족반역자들과 치열한 투쟁을 벌이면서 민중이 주인된 새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청년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변혁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영광스런 항일무장투쟁사는 **김일성**청년장군의 호위전사들인 김혁, 차광수와 같은 열혈의 청년전위, 신념의 청년전위들로 시작하고 전진하며 승리한 불멸의 민족해방역사이며 우리 변혁의 만년재보인 변혁전통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1936년 조국광복회창건직후와 광복직후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산시키시고 반일청년동맹, 민주청년동맹을 건설하심으로써 광범한 애국청년들이 통일적인 청년조직으로 일심단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사와 반미조국보위투쟁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

조선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며 사회주의국가로 변모한 1958년 직후 민주청년동맹은 새로운 역사발전의 단계에 맞게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전화발전하였으며 조선청년들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 그 어려운 시기에도 주석님의 영도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변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조선의 청년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과 헌신적 노력으로 서해갑문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광복거리, 북부철길, 청년영웅도로, 안변청년발전소 등의 노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으며 지금도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선의 청년전위들은 일촉즉발의 최전연이나 영하수십도의 북방산간지대, 비바람 몰아치는 절해고도에서 조국의 기둥, 조국의 미래답게 청년의 기개를 떨치며 조국보위도 경제건설도 다맡아 나서는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에서 사회주의위업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영도밑에 조선변혁의 1세대청년들인 항일투사들에 의하여 개척되었고 변혁의 2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었으며 오늘 장군님의 영도따라 변혁의 3세대, 4세대청년들에 의하여 튼튼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변혁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뜻깊은 8월 28일을 조선의 청년절로 기념하도록 하시었으며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을 주석님의 존함을 영예롭게 새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해 주시고 그 선봉적 역할을 더욱 높여주시었다.

해외동포청년운동도 조선청년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재일본조선청년들을 비롯한 해외동포청년들은 주체조국을 가진 조선민족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존엄을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다.

세계청년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조선청년운동은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한편 전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항일청년전위의 영광찬 변혁역사를 계승한 한국청년전위들도 한국변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며 불멸의 위훈을 빛내여 왔다.

저 멀리 1960년 4.19의거와 1980년 광주봉기의 열풍이 몰아치던 서울과 광주의 포도위에서, 1987년 6월항쟁의 폭풍같은 수백만의 함성속에서 한국청년들은 애국투쟁의 선봉이 되고 주력이 되어

사대매국 파쑈독재정권의 숨통을 끊어놓으며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변혁운동이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의 변혁적인 노선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언제나 그 길에서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헌신적으로 용감히 투쟁하여온 한국청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87년 6월항쟁의 조직적 결실인 전대협과 그 전화발전체인 한총련은 백만청년의 변혁적 대중조직답게 분단된 식민지조국의 민족 및 계급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미반독재, 조국통일의 영웅적 투쟁을 굴함없이 전개함으로써 민족사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기었다.

한국청년전위들은 한국변혁운동의 선봉대로서, 주력군으로서의 역사적인 사명은 말할 것도 없고 공장과 농촌으로 들어가 노동자, 농민을 자주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교량자의 임무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변혁운동대오의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실로 한국변혁운동은 한국청년전위들의 청춘과 생명을 바탕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여 왔다.

변혁투쟁이 올바른 변혁전통을 찾고 과학적 지도이념과 진정한 전위조직의 향도를 받을 때에만 승리의 한길로 편향없이 전진할 수 있는 법이기에 한국의 청년전위들은 선차적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치열한 사상운동, 실천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한국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영도하신 항일무장투쟁사, 변혁투쟁사야말로 우리 변혁의 만년재보이며 경애하는 주석님의 변혁사상인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민족민주전선, 곧 한민전만이 우리 변혁의 유일지도사상, 유일전위조직이라는 진리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주석님과 사상, 영도, 풍모에서 똑같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영도자, 우리 시대의 국제적 영수,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사대교조주의, 종파주의와 맞서시며 조선변혁운동을 조선민중의 힘으로, 조선청년전위들의 무장투쟁으로 영도하시고 결국 자주적으로 민족해방위업을 완수하신 영광스런 항일무장투쟁사만이 우리 변혁의 정당한 변혁전통이 될 수 있다.

분단된 식민지반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간고하고 복잡한 변혁투쟁을 최강의 미제침략세력, 사대매국세력과 맞서 편향없이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르조아사상이나 해방신학, 네오맑시즘, 그리고 맑스레닌주의가 아니라 현시대의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완성된 변혁이념이며 참다운 민족자주이념인 주체사상만이 한국변혁의 유일지도사상으로 될 수 있다.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한국전위들의 영웅적 투쟁으로 69년 창건된 통일혁명당과 그 전화발전체인 한민전만이 그 정확한 노선과 정책으로 내외에 공인받고 있는 한국변혁의 참모부,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가 될 수 있다.

한국청년전위들은 한국변혁운동의 최선두에서 간고한 실천투쟁과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해오면서 경애하는 주석님과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영광스런 항일무장투쟁사를 변혁전통으로, 영생불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필승불패 한민전을 전위조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의 진리성, 한민전의 불패성을 자각함으로써 한국청년전위들은 한국변혁의 가장 강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게 되었으며 필승의 신념으로 각계 민중을 교양조직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으로 힘있게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주체사상을 가장한 장명국류, 김영환류의 잡사상, 이색조류와 맞서서 주체사상신봉자대오의 사상적 순결성을 고수하는 한편 대국혁명의 경험과 맑스레닌주의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나 변혁적 원칙을 변질시키는 ≪포스트맑스주의≫, ≪신사회운동≫과 같은 수정주의, 개량주의와 맞서서 변혁운동대오의 변혁노선을 사수하는 첨예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청년전위들은 변혁의 강위력한 무기인 비합법청년전위조직들을 여러가지 형태와 명칭으로 결성하는 한편 대중적인 청년학생운동조직, 청년운동조직을 비롯한 각계 민중의 대중조직을 건설하고 그 두리에 광범한 민중을 묶어세우며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투쟁으로 동원하였다.

한국청년전위들은 한국변혁운동의 선봉으로 간고한 변혁투쟁을 전개해오는 장구한 기간 90년대 ≪고난의 행군≫처럼 미제와 파쑈주구들의 야수적 탄압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지만 결코 주저앉거나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용기백배하여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한국청년전위들이 온갖 시련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단련되고 변혁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비결은 오직 경애하는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청년전위들은 주석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아래 분단된 식민지반자본주의한국사회의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을 위하여 굴함없는 투쟁을 완강히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자주적 민주정부와 통일연방조국을 건설할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부와 통일연방조국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취목표이며 미제침략세력과 그 식민지통치기구는 주타격목표, 파쇼통치세력과 그 통치기구는 보조타격목표이므로 한국청년전위들은 자주없이 민주없고 통일없다는 선자주화, 선변혁의 기치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각계 민중의 변혁적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수단이므로 한국변혁운동승리의 결정적 요인인 주체역량은 튼튼히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청년전위들은 변혁적 대중조직과 범민족통일전선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사업에 총매진하고 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범국민반미항전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방법이므로 한국청년전위들은 이란의 반미반황제항쟁과 우리의 광주항쟁, 6월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오늘에 구현한 범국민반미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민족민주 및 범민족통일전선이 건설되고 자주민주통일투쟁이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상승발전하면 자주적 민주정부와 통일연방조국건설은 드디어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한국변혁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주체의 사상과 전략에 의거하여 지난날 일관되게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변혁승리의 올바른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지난 세기 미제침략세력, 매국파쑈정권과 맞서서 한국변혁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한국청년전위들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으로 새로운 격동적인 정세를 맞고 있다.

한국청년전위들은 21세기의 주역답게 역사가 부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있다.

3

한국청년전위는 위대한 장군님세기를 맞이하여 장군님당대에 투쟁하는 영예를 심장에 새기며 역사가 부여한 변혁임무를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한국청년전위는 주석님과 장군님을 심장에 모시고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한민전의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 청년지도핵심이다.

한국청년전위의 역사적 임무는 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나아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미제국주의의 제1생명선을 끊어버림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10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의 진리성, 한민전의 불패성을 광범한 국민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파하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한민전의 불패성도 결국 두 분의 위대성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인류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영도자, 고매한 덕성가이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과 사상, 영도, 풍모에서 똑같으시고 충효와 의리의 화신이신 21세기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앞으로 영원무궁할 주체시대의 유일적 향도이념이며 현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완성된 공산주의변혁사상이며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을 수행하는 한국변혁운동의 참다운 지도이념인 민족자주사상이다.

필승불패의 한민전은 주석님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지난 수십년간의 정확한 지도와 불굴의 투쟁으로 한국민중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공인된 한국변혁운동의 사령탑이며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이다.

민중은 언제나 역사의 주체이지만 자주의식으로 무장하고 전위조직과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결합될 때에만 변혁의 자주적 주체를 이루며 변혁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

하여 이남민중이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성을 터득하는 것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한민전과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변혁승리의 결정적 요인인 자주적 주체를 이룩하는 관건적 문제로 되는 것이다. 더욱이 주석님과 장군님은 인류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변혁의 최고영도자이며 우리의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천출위인, 천출명장이시지 않서은가.

그리고 지난 기간 한국변혁운동의 최대걸림돌이 바로 뿌리깊은 반공반북의식이고 그 핵인 반김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변혁승리의 비결인 자주의식화의 핵심적 내용 또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성 선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6.15공동선언 이후의 정세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이미 한국변혁운동, 조국통일운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 숭고한 덕망으로 시작하고 전진하며 승리하고 있다.

한편 전체민중을 대표하는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변혁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도자에 대한 충실성은 조직성, 계급성, 민중성, 민족성의 최고표현으로 되는 만큼 영도자에 대한 충실성으로 철저히 무장한 주체주의자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변혁성을 체현한 변혁운동가로서 지난 변혁사가 입증하듯이 시련의 나날에 불사조의 넋으로 타오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인 것이다.

하여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의 진리성, 한민전의 불패성을 광범한 민중 속에 전파하는 한편 주체주의자를 육성하는 사업은 반미반독재 내용의 선전사업을 총탄의 위력에 비유할 때 유도탄, 원자탄의 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에게는 당면해서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이남 민중들의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하여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 고매한 덕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사업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

한국청년전위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으로 민족의 태양이시고 통일의 구성이신 장군님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그 절대적 권위와 무궁한 동력에 의거하는 통일변혁의 애국위업도 앞당겨질 것이다.

둘째, 한국청년전위대오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청년전위대오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민전을 전위조직으로 삼는 비합법인전대이다. 이런 청년전위대오가 우후죽순처럼 각계 부문, 모든 지역에서 건설될 때 수많은 청년전위들이 발굴육성될 것이며 한국변혁운동은 질적 비약을 이룩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장명국식의 ≪새벽분파≫나 그 아류인 ≪한총련비선분파≫와 같은 소자산계급의 자유주의적 바탕에서 서클식으로 운영하는 비변혁적 조직활동방식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명칭도 없고 강령, 규약도 없어 그 사상적 실체가 불투명한 조직, 단선연계체계가 아니라 혼선과 월선이 비일비재하고 보위가 취약한 조직, 대중조직의 상층에 걸터앉아 인사권을 쥐고 흔들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조직, 사업에서 보신주의적이고 작풍에서 관료주의적인 조직, 전투적인 사상학습과 강고한 조직생활, 대담한 비합투쟁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서클식 조직으로는 결코 강철같은 주체주의자를 육성할 수도, 변혁운동을 질적으로 비약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백두청년회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와 같이 공식명칭을 가지고 주석님과 장군님을 모시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민전을 전위조직으로 삼는 조직, 과감한 비합투쟁으로 ≪고난의 행군≫으로 위축된 변혁운동대오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성, 주체사상의 진리성, 한민전의 불패성을 광범히 전파하는 조직, 영웅적 수사투쟁으로 확인되듯이 변혁적인 조직생활로 신념과 의지의 강자, 주체청년전위들을 육성하는 조직, 이런 비합법청년전위조직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한국청년전위조직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청년전위조직건설경험에 의거하여 지도사상정립과 영도핵심육성, 대중지반구축이라는 조직건설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면서 건설되어야 하며 파쑈악법, 기구와 맞서 싸우는 조건에 맞게 단선연계를 비롯한 엄격한 보위체계, 보위원칙을 확립하며 질적으로 간결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한국청년전위조직은 조직내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조직과 각계 민중간의 혈연적 연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민전의 방침대로 민중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청년전위조직을 건설하는데서 한국변혁운동의 역사 속에 실재하였던 비합법조직들의 경험 중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 긍정적 요소는 적극 계승하는 한편 그 한계와 오류는 철저히 극복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오늘의 주객관적 조건에 맞는 창발적인 체계와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석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민전을 전위조직으로 삼는 강령과 규약, 고유의 명칭을 가지고 강고한 변혁적 조직생활과 대담한 비합투쟁을 전개하는 청년전위조직들이 무수히 많이 조직될 때 한국변혁운동의 절박한 과제인 청년지도핵심의 대대적 육성과 운동대오의 사상과 전략, 체계와 방법의 일대 혁신은 빛나게 실현될 것이다.

셋째, 주체사상신봉자대오 1만명, 그 후비대오 10만명, 그 지지대오 100만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 거창한 목표가 달성되면 한국변혁의 주체역량은 비약적으로 강화되며 변혁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마련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주체사상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이 목표를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겁부터 내는데 이는 주체주의자의 자세가 아니다.

주체사상은 진리이고 진리의 생활력은 무궁한 법이며 지난해 비전향장기수송환식에 5천명, 범민족대회에 5만명이 참가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대중지반은 결코 취약하지 않다.

문제는 이 통이 큰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변혁적 열의이며 창조적 적극성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기본은 주체사상신봉자대오인 청년전위

조직들이 수많이 건설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고 관건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육성하는 주체의 변혁적 교양체계,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면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동기주체사상학습부터 정연한 학습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적으로 학습하는 기풍을 세우는 것과 주체사상학습소조와 같은 이념서클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중적 사상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중운동의 지도핵심일수록 대중사업의 행정실무에만 치중하고 사상학습을 홀시하는 풍토를 결정적으로 혁파하여 주체사상학습의 모범이 되고 한 점의 불씨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운동가들은 노동자, 농민 대중 속으로 적극 투신하며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진정한 선전자, 조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은 세계가 공인하는 진리이며 학문의 전당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모든 대학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합법단체나 합법회합을 과감하게 조직함으로써 주체사상을 대중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인터넷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그 무궁한 생활력을 광범한 대중 속에 널리 선전하는 사업은 시대추이에도 맞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좋은 방식이므로 기존 청년전위조직들이 창조한 투쟁전형을 참고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한총련과 통일운동대오내의 분파주의를 척결하는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은 지난해 내내 적들이 심어놓은 프락치의 이간책동과 분파주의자들의 분열책동에 의해 범민련 조직이 양분되고 한총련 투쟁이 침체되는 등 커다란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분파주의의 해독성이 운동대오의 단합과 실천투쟁의 활성화에 얼마나 심각한 해독성을 끼치는가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청년전위들은 한총련 자체와 ≪한총련비선분파≫, 범민련 자체와 일부 분파적 지도부, 실무자들을 동일시하지 말고 전체와 부분으로 정확히 구별해 봄으로써 한총련과 범민련 내부의 일부 분파세력과의 사상투쟁을 한총련과 범민련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총련과 범민련을 강화하고 그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한편 한총련과 범민련을 강화하기 위한 당면중요과제인 그 내부의 일부 분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한민전은 지난해 5월에 ≪통일운동세력내에서 분파주의를 극복하자≫는 문헌에서 통일운동대오내의 분파주의를 척결하기 위하여 조국통일3대헌장을 단결의 기치로, 구동존이를 단결의 원칙으로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원칙을 저버리고 패권에만 집착하는 분파세력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한민전은 9월에 ≪현시기 학생운동강화의 요체≫라는 문헌에서 학생운동권의 분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한총련이 소수의 횡포에 의하여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한총련을 주도하고 있는 ≪한총련비선분파≫의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한민전은 운동대오의 일각에서 분파세력이 누구냐는 논쟁이 분분하자 매우 이례적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8월 문건≫을 11월에 ≪구국의 소리≫의 ≪오늘의 연단≫시간을 통하여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전위조직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었다. 잘 알다시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그 문건은 ≪한총련비선분파≫와 ≪범민련사무처분파≫의 분파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운동대오의 진정한 통일단결을 호소한 글이다.

나아가 한민전은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반분파주의입장, 통일단결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며 ≪한총련비선분파≫의 노선상 오류를 정면으로 배격한 고려대학교 조국통일위원회의 ≪호소문≫마저도 12월에 방송함으로써 분파주의논쟁에 쐐기를 박았다.

헌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총련비선분파≫와 ≪범민련사무처분파≫는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하여 운동가다운 겸허한 자기총화를 할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를 분파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그래 범민련이 ≪강희남범민련≫과 ≪이종린범민련≫으로 갈라진 것이 양 조직의 정책과 실무를 주도한 ≪한총련비선분파≫와 ≪범민련사무처분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때문이란 말인가. 그리고 한민전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를 분파세력으로 지적하며 그 글을 ≪오늘의 연단≫시간에 방송하였단 말인가. 만약 그랬다면 한민전의 ≪오늘의 연단≫이라 이름은 ≪자가당착≫이나 ≪적반하장≫이라고 개칭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궁지에 몰린 분파세력의 옹색한 변명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상식이하라 아니할 수가 없다.

지난해 범민련 문제의 확대재판인 ≪통일연대≫와 ≪실천연대≫의 현 분열상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지적한 분파세력들이 자신의 분파행각을 진정으로 총화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이상 이와같은 분열상은 모습을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재현될 것이며 한총련과 통일운동대오의 통일단결과 투쟁의 활성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운동대오내의 분파주의를 척결하는 투쟁에 운동발전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예리한 변혁적 관점부터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반분파투쟁의 사상전을 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지향하고 자주민주통일투쟁을 강화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적인 학생운동조직, 청년운동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의 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찍이 반일청년동맹과 민주청년동맹을 건설하시면서 보여주시었던 위대한 통일단결의 모범을 오늘에 구현하여 학생운동권, 청년운동권의 고질적인 분열상을 극복하고 제 정파를 변혁적 원칙하에 대통합시킴으로써 학생운동, 청년운동의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운동의 일대 상승국면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운동권은 그 갈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고 저조한 선거참여율이나 집회시위참가수가 말해주듯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 변혁운동의 선봉대, 주력군으로서의 제 역할을 옳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백만학도의 유일적 대표체라고 하는 한총련의 지난 수년간은 ≪한총련비선분파≫의 분파주의로 인하여 투쟁하는 민중민주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고난의 행군≫길을 함께 걸어온 같은 민족해방계열마저도 개량주의니 절충주의니 하는 딱지와 함께 분리배격해 온 분열의 역사라는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한총련은 전위조직이 아니라 대중조직이며 단결의 기준은 변혁이냐 반변혁이냐이지 민족해방계열이냐 비민족해방계열이냐가 아니다. 헌데 지난 기간 한총련 중앙과 지역총련의 구성면면이나 공동집회, 공동투쟁의 양상을 보면 이 당연한 원칙이 관철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청년전위들은 한총련을 사실상 일개 분파,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킨 파행성을 극복하고 ≪반미구국노선대≫나 경인총련과 같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민족해방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와 진보, 반제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민주계열도 광폭적으로 포괄하는 참된 의미의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학생운동권을 망라하고 광범한 학생대중에 기반하는 광폭적인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의 건설은 투쟁의 역사성에서나, 강령, 규약의 변혁성에서나, 규모와 체계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월한 한총련이 주체세력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총련은 통합과정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수렴할 것을 수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노숙한 통일전선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집권자와의 대단합을 통해 보여주신 상층통일전선의 위대한 모범을 학생운동권의 대단합에 구현하여 한총련을 광폭적인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통하여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총련을 광폭적인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켜 그 대중적 지반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이적규정≫의 무력화와 학생운동의 대중화라는 절박한 당면과제를 주동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적인 청년운동조직을 건설하여야 한다.

청년운동 또한 지난 기간 적들과 내부의 기회주의자들로 인한 분열의 시련을 딛고 이제는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청년운동조직을 망라하는 광폭적인 통일적 청년운동조직을 건설할 때가 되었다.

통일적인 청년운동조직이 건설되면 청년운동조직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밥벌이군으로 전락하여 떠돌고 있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적극 흡수하며 그들에게 사회정치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적 청년운동조직이 건설되고 그 변혁적 역할이 높아지면 대규모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 사업에서나, 민족민주진영을 정치세력화하는 사업에서나 한몫을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성이나 강령, 규모 등 여러 면을 보건대 지난해말 건설된 한청협이 통일적인 청년운동조직건설의 주체세력으로 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청년운동대오를 강화하고 그 변혁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관건적 문제인 통일적 청년운동조직을 건설하는 사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동자, 농민 대중 속으로 투신하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대중이 자주의식으로 각성되고 변혁적인 대중조직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지 않고서는 결코 변혁운동의 결정적인 시기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학생운동가들이 기층민중 속으로 투신하는 기풍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이미 실천적으로 파산된 ≪산개전≫, ≪애국적 사회진출론≫의 사상잔재를 깨끗이 씻어내고 통일적인 체계 하에 집단적으로 투신하는 원칙과 노동자, 농민 대중 속으로 진출하는 변혁적 투신의 기풍을 대대적으로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운동만을 절대화하고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10년 가까이 심지어 10년 넘게 학생운동만을 반복하는 경향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후비를 육성하고 사업을 믿고 맡기는 한편 자신은 제 때 학생운동을 총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층민중 속에 투신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가들은 투신할 때 출신학교가 있는 지역을 우선함으로써 학생운동과 지역의 기층민중운동이 혈연적인 연계를 맺으며 이후 노학, 농학 연대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운동을 통하여 단련된 청년전위들은 노동자, 농민 대중 속으로 과감히 투신하여 기층민중 속에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성과 주체의 사상과 이론, 한민전의 노선과 정책을 전파하는 한편 민족애와 민주주의, 계급의식을 교양하고 변혁적인 대중조직으로 묶어세워 자주민주통일투쟁에 힘있게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기층민중의 자주의식화사업은 주체사상교양을 자주의식화의 마지막 단계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며 민중 속에 깊숙이 들어가 민중의 마음을 열고 민중의 준비정도와 정서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사업을 전개한다면 오히려 낡은 사상의 세례를 많이 받은 인텔리보다 더 속도있게 진행될 수 있다.

한국청년전위들은 기층민중의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변혁적 기풍과 민중적 품성을 가진 참다운 주체주의자로 준비시키는 한편 대중 속으로 투신한다는 미명하에 한사람의 단순한 노동자, 농민으로 전락하거나 대중운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형의 청년전위답게 주체사상을 적극 전파하고 노동자, 농민 출신 청년전위들을 대대적으로 발굴육성하는 것을 본신임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묶어세우고 변혁의 주체를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비결은 오직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건설에 있으며 이를 실현할 때에만 한국변혁운동은 승리의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바로 애국적 혁신정당이다. 여기서 주체세력이란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 조직을 건설하는 주체라는 뜻으로서 한국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대중지반이 있으며 통일전선운동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애국적 혁신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적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운동에서 전위조직의 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견지한다면 전위조직의 독자성은 사실상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의 반파쑈민중전선으로 잘 알 수 있듯이 본래 통일전선운동은 당대 당의 단합으로 시작하였고 4.19직후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는 한편 현재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많은 조건을 고려한다면 현단계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최적의 주체세력은 바로 애국적 혁신정당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연해진다.

애국적 혁신정당의 의의는 우선 대중운동을 당차원의 운동으로 비약시키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대중지반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선거 및 의회 공간 안에서 변혁운동대오의 합법정치부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 진보성과 정치성, 광범한 대중지반의 힘으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십개 정파가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민주노동당이 보여주듯이 혁신정당은 운동대오의 고질적인 정파적 분열상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애국적 혁신정당은 해방직후 이북에서 조선노동당이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대규모 통일전선조직으로 광범한 세력을 결집하여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97프로를 당선시키고 친일매국후보를 낙선시켰던 소중한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범민주진영의 통일성을 지향하며 민족민주후보, 민주후보를 당선시키고 반민족반민주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거만 되면 운동대오가 ≪독자후보론≫과 ≪단일후보론≫으로 분열하는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하는 상황이 되면 애국적 혁신정당은 민족민주진영의 합법정치부대로서의 변혁적 역할을 비상히 고양시킬 것이며 나아가 변혁승리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헤겔이 반동이라고 헤겔철학에서 변증법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되듯이 한국청년전위들은 지난 기간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내의 일부 개량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는 고정관념에 사

로잡혀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비약시키는 혁신정당의 의의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에 기반한 애국적 혁신정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한국의 청년전위들은 진보적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지난 4.13총선과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준 민주노동당을 자주민주통일투쟁에서 응당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애국적인 혁신정당, 참다운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소파개정국민행동≫이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6.15통일연대≫와 같은 각각 자주, 민주, 통일 운동영역의 광범한 연대전선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 그 건설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연대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로 하루빨리 묶어세울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앞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이 대중화되고 그 성과가 조직화되며 민주노동당이 애국적 혁신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라 한국변혁운동의 최대숙원이며 최대무기인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자주민주통일투쟁이 대중화되고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가 수면위로 부상하는데 발맞추어 이란의 반미반황제항쟁과 우리의 광주항쟁, 6월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오늘에 구현한 범국민반미항전도 드디어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변혁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위업이 달성될 것이다.

2001년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의 원년으로!

이것이 바로 올해 한국청년전위가 들어야 할 주요구호 중의 하나이다.

여덟째, 통일운동대오의 통일단결과 범통일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운동대오의 통일단결과 범통일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일은 통일애국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내외의 반통일세력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운동대오는 ≪통일연대(준)≫와 ≪실천연대≫로 나뉘어져 지난해 범민련분열상이 확대재연되고 있으며 아직도 ≪민화협≫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통일운동대오가 주체의 조국통일사상과 통일전선론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지 못한데다 고질적인 분파주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총련비선분파≫는 ≪통일연대≫를 ≪자통협≫과 같은 ≪새통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어찌 범민련이 중심에 서서 지난해 조선노동당창건기념대회의 참가를 계기로 이남의 통일운동세력이 대단합되며 건설되고 있는 ≪통일연대≫가 ≪자통협≫과 같은 조직이라고 매도될 수 있단 말인가. 한민전은 올해 신년서한에서 ≪통일연대≫가 건설됨으로써 통일운동이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화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지난해 통일운동의 최대조직적 성과로 ≪통일연대≫건설을 지적함으로써 ≪한총련비선분파≫의 그릇된 견해를 사실상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금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3자연대를 기치로 하는 범민족통일전선체인 범민련을 강화하며 연방제를 비롯한 우리의 통일강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6.15공동선언에 공감하는 연공연북의 통일운동세력을 하나의 대오에 묶어세우고 나아가 극소수 반통일세력을 제외한 모든 통일세력, 범통일세력과의 대단합을 실현함으로써 통일운동의 주체를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고립시켜야 할 때인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 자주와 단합, 통일지향의 기치로서 조국통일3대헌장의 실질적 구현인 만큼 6.15공동선언의 강령하에 결집된 통일운동세력, 범통일세력이 언젠가는 상설적인 범민족통일전선, 범민련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문제는 범민련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속도있게 낮은 단계의 한시적 연대체를 높은 단계의 상설적 연합체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범민련에 인입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분파주의와의 사상전과 반통일세력에 대한 실천투쟁을 강화하고 이를 통일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한편 범민련을 중심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구동존이의 원칙하에 ≪통일연대≫와 ≪실천연대≫로 나뉘어져 있는 분열상을 시급히 극복함으로써 이 통일단결의 위력으로 ≪민화협≫과 같은 범통일세력, 극소수 반통일세력을 제외한 모든 통일세력과의 대단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화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반공반북의식과 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일대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였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이 대중화되고 나아가 범국민반미항쟁으로 승화발전될 때에만 변혁과 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당면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한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우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요구와 6.25양민학살진상규명과 사죄배상, 미군범죄근절과 한미행정협정파기, 미군기지철거와 환경문제해결 등의 생활적인 요구를 긴밀히 결합하여 전개함으로써 이를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상승발전시키는 과업을 언제나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며 자주없이 민주없고 통일없다는 선자주화, 선변혁의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조건에 맞게 당면해서는 대중의 준비정도나 정서에 맞지 않는 현정권의 퇴진투쟁보다는 파쑈악법철폐, 폭압기구해체, 민중생존권쟁취를 내걸고 적극 투쟁하는 한편 현정권으로부터 국가보안법폐지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쟁취, 노동3권보장이라는 제반 민주주의적 조치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는 투쟁을 결실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광범한 국민대중 속에 널리 선전하고 그 이행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한편 김영삼 반통일수급역도와 이회창, 조선일보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 반북모략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그 사냥개로 전락한 김영환, 조혁과 같은 변절자들, 그리고 내외 극우호전세력들의 발악적 반통일분열책동을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철저히 격파분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땅의 실업대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현 당국의 매국배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경제정책을 용납하지 말고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고용안정과 실직자생활보장, 임금인상, 농가부채삭감 등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이는 한편 고립분산적이며 경제투쟁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각계 민중의 생존권투쟁이 광범한 대중의 연대투쟁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정치투쟁으로 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사업의 체계와 방법,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우선 각계 대중조직들이 전위조직의 유일적 영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그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조직하고 동원하는 변혁적인 사업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정치사업을 선행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대중의 요구와 감정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며 무슨 일을 하나하여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투적으로 밀고나가는 변혁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패기와 정열에 넘치고 다정다감하며 청춘의 희열과 낭만에 넘쳐 낙천적으로 살며 일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며 틀을 차리지 말고 겸손하고 소탈하며 생활을 청렴하고 건전하게 하는 변혁적인 사업작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청년전위들은 민중을 믿고 민중에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민중을 멀리하고 민중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이민위천유훈을 좌우명으로 삼고 늘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열째, 청년전위대오의 비합법투쟁의 전형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백두청년회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와 같은 청년전위조직들이 혜성처럼 나타나 대담한 비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뜻깊은 투쟁의 한 해였다.

이러한 비합법청년전위조직들은 주석님과 장군님의 탄신일을 비롯한 주요계기에 각종 유인물, 비라를 배포하고 편지를 발송하는가 하면 인터넷사이트개설과 전자우편보내기, 게시판선전, 방송녹취물통신게재, 인터넷출판사업, 전자잡지창건, 시디배포, 해킹방지프로그램및프락시서버활용 등 현시대적 추이에 맞는 새로운 투쟁전형들을 적지않게 창조하였다.

특히 앞의 청년전위조직들이 전개한 과감한 선봉투쟁으로 비합선전사업의 새장이 열리면서 주체사상사이트를 개설하는 일, 주요계기에 전자우편을 대량 발송하는 일, 주요운동단체의 게시판에 주체사상 자료나 기고를 게재하는 일, ≪구국의 소리≫방송녹취채록물을 통신에 올리는 일, 주체사상자료를 입력하고 하이터텍스트로 재편집하여 공개하는 일, ≪통일여명≫과 같은 대외기관지를 통신상에서 발간하는 일, 한민전의 ≪구국전선≫사이트와 주체사상의 주요자료를 입체적으로 편집수록한 시디를 배포하는 일, 정보기관의 해킹과 추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락다운2000≫과 같은 해킹방지프로그램과 ≪아노니마이저≫와 같은 프락시서버를 활용하는 일 등이 이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검증된 그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인하여 널리 일반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비합투쟁의 개념도 실천도 없는 ≪한총련비선분파≫와 같은 조직들은 이러한 청년전위조직들의 대담한 투쟁에 시비를 걸고 좌경이니 뭐니 하며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으나 대다수 변혁운동가들은 이 청년전위조직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민전도 ≪구국전선≫사이트를 통하여 백두청년회 관련으로 구속된 지태환씨에 대하여 갈채를 받을 일을 했다며 높이 평가했으며 유사한 경우의 이은경씨에 대한 석방운동은 지금 적지않은 대중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광범하게 전개되고 있다.

장군님시대 한국청년전위의 전형인 지태환씨와 이은경씨가 아사단식투쟁으로 국가정보원의 간악한 고문과 회유 책동을 짓부수며 수사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한 것도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우리 청년전위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활동을 벌이며 창조한 비합투쟁의 전형들 또한 한국변혁운동의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청년전위들이 헌신분투하며 입력하고 녹취채록한 수많은 자료들은 소수에게 독점되며 패권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댓가없이 고스란히 대중에게 돌려주어졌다. 그 결과 지난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적들의 야수적 탄압으로 소실된 귀중한 주체사상교재들이 복원되고 변혁적인 학습체계, 학습기풍이 살아나고 있으며 현재는 이 자료들을 활용한 대대적이고 전투적인 동기주체사상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백두청년회와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가 피흘려 쟁취한 비합투쟁의 전형들은 영도자와 전위조직에 대한 충실성은 하기 쉬운 몇마디 말이 아니라 오직 간고한 비합투쟁을 통해서만 발현된다는 것을 실천으로 입증하여 주었다. 또한 청년전위들의 비합투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유격투쟁이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며 대중조직 일변도, 합법투쟁 일변도의 편향적 운동풍토를 쇄신하는 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세기와 세기가 교차되는 2000년에 4.15태양절투쟁으로부터 12.24기념일투쟁까지 불굴의 비합투쟁을 완강히 전개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한국청년전위들의 영웅적 기상과 투지를 뚜렷이 시위하는 한편 투쟁으로 20세기, **김일성**세기를 뜻깊게 총화하였으며 지금도 투쟁으로 21세기, **김정일**세기를 힘차게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청년전위 10대 과업**≫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이 이 과업을 달성한다면 한국변혁운동은 승리를 위한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한국변혁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이상의 변혁과업을 백두정신으로 결사관철함으로써 역사가 부여한 성스러운 임무, 자주민주통일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후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실현되며 조국의 통일변혁정세는 또 한번 일대 비약의 격동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세기 변혁이 러시아변혁으로부터 시작하였다면 21세기 변혁은 한국변혁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며 한국의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제사회주의의 재생과 온 세계의 자주화의 전기가 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태풍의 눈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억만년 길이 빛날 주체연대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위대한 21세기, **김정일**세기를 맞이하면서 장군님 당대에 투쟁하는 무상의 영예와 긍지를 심장에 새기는 한편 반드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가까운 몇해 안에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사전의 각오, 불퇴전의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의 역사적 임무는 막중하며 어깨는 한없이 무겁다.

한국청년전위들이 조국의 변혁과 통일을 위해 바친 청춘과 열정은 조국과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이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승리의 영마루를 향해 전진 앞으로!



주체 90(2001)년 1월 20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1.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승리의 비결이며 동력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이남민중 속에 광범히 선전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고조되고 있는 흠모의 대하가 더욱 높이 굽이치도록 한다.

2.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경륜을 이남민중 속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각계 민중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자각적으로 총궐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사상적 바탕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는 한민전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여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주체사상학습소조가 수많이 건설되도록 한다.

4. 우리는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여타 통일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각급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이 남북간의 하층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전선운동이 거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5. 우리는 한총련과 한청을 통일적 학생운동조직, 청년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키는 한편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인 민족민주전선을 비약적으로 장성발전시키도록 한다.

6. 우리는 학생운동대오와 민족민주전선, 지역통일전선내 분파주의를 청산하는 사상운동을 운동대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7. 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호응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하루속히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8.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전면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민중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이룩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철저히 진압하도록 한다.

9. 우리는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하며 청년주체주의자대오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강위력한 지도핵심대오를 건설하도록 한다.

10.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실현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머물지 않고 통일변혁운동을 계속 전진시켜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광장에 높이 모시는 감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며 21세기 통일강성대국건설도 진두에서 개척해 나아갈 것이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서울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주석님을 향한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과 가장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오늘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한편 하루빨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을 달성하겠다는 충성의 맹세를 다집니다.

전 세계가 최대의 슬픔을 겪은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만민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태양위인상을 심장 속에 더욱 깊이 아로새기게 되었으며 그간 주석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충효도덕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시고 태양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이 세상 어느 위인도 이룩할 수 없는 불멸의 대위업을 달성하신 수령 중의 수령, 위인 중의 위인이십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유일무이한 향도이념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 하심으로써 인류사상사에 영세불후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으며 수억만 인류에게 참다운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총대중시사상으로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연전연승하시는 세기적 기적으로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었으며 일제를 타도하시고 미제를 내리막길로 끌어내리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복잡하고 간고한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단 한번의 편향도 없이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경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이민위천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의 과학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며 탁월하게 향도하심으로써 인류의 반제자주투쟁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달성하시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관되게 조국통일노선을 견지하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며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강화하시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최고업적은 바로 수령승계문제의 빛나는 해결로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 그대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이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계시는 충신중의 충신, 효자중의 효자이십니다.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가 전진도상에서 일대 시련과 곡절을 겪고 있던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회주의사상을 옹호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인류혁명사에 영원불멸할 사상이론적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오늘의 **김일성**장군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강의 선군혁명전략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으며 주체사회주의를 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확고히 전망할 수 있는 대위업을 달성하시었습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48년 연석회의와 7.4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감격적인 평양상봉을 이룩하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심으로써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할 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신기원을 개척하시었습니다.

이남민중은 오늘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신데 이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통해 주석님의 통일위업을 기필코 우리 대에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절대위인상에 탄복하는 한편 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강성대국을 하루속히 건설하겠다는 애국의 열정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들이며 한민전의 향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광장에 높이 모실 감격의 그날을 앞당기겠다는 열화같은 맹약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통일전선전략을 관철하는 것을 통일변혁의 기본열쇠로 보고 6.15공동선언실현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올해 제기된 변혁과업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면해서 민족통일전선촉진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결정적으로 추동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할 것이며 온 나라에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지도핵심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장성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우리들의 절대염원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동지들과 이남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7월 8일
서울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을 맞이하며

21세기 들어 더욱 찬연히 빛나는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53돌을 맞이하며 이남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세기 공화국이 인류의 태양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도아래 세계혁명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며 백전백승하여 왔다면 오늘은 21세기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따라 역사의 기적을 거듭하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주체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한편 전 민족의 총의를 모아 참된 민주주의의 민중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자주자립의 사회주의모범국가로 발전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구축하시고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영도하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한편 조국통일3대헌장을 밝혀주시고 이를 현명히 구현하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이민위천의 좌우명으로 한평생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시고 민중이 주인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건국위업은 조국청사와 인류혁명사에 영원무궁토록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충효의 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국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는 한편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수령영생위업완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불후의 대공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노숙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주체적 건국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는 한편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전대미문의 난국면을 주동적으로 돌파하시며 전민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차고 인공위성을 쾅쾅 쏘아올리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세계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하시며 포위환국면을 역포위환국면으로 전환시키신 장군님의 신묘한 전략으로 인하여 오늘 미국은 정치외교적으로 갈수록 고립되는 반면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최고조에 달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온 지구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세계적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이어 지난해에는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뚜렷이 밝혀주시는 한편 최근에는 러시아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며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21세기 자주화위업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전략으로 빛나는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은 영구분단음모와 세계제패전략에 피눈이 된 미제국주의에게 가장 정확하고 심대한 정치사상적 타격으로 되는 반면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에게는 통일강성대국건설과 전세계자주화의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는 역사의 좌표, 필승의 보검으로 됩니다.

지금 진보적 인류는 불볕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장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미제국주의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시고 새세기 자주화대강을 밝혀주시는 한편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킨 레닌의 영전을 찾아 쏘련붕괴 후 처음으로 정렬된 명예위병대의 호위아래 화환을 진정하신 위대한 혁명가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숭고한 도덕의리에 눈시울을 적시며 최대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하에 자주의 궤도따라 백전백승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은 7천만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어머니조국이며 진보적 인류가 유일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주체사회주의조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 속에는 조국통일도 세계변혁도 다 맡아 나서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인류의 걸출한 영도자이시며 민중중심 민중복락의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수수천년 꿈꾸어오던 지상낙원이라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필승불패 전위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을 바라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광범히 전파하는 사업에 통일혁명의 지름길이 있고 최대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며 위대성선전사업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된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성있게 구사하는 한편 당면해서 광범한 국민대중을 반미반이회창투쟁에 총분기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일치한 소망이며 최대염원입니다.

이남 청년주체주의자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며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

주체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영도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간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대변인 보도 10호)

오늘 8월 28일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건하신 날이며 바로 청년절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이하며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에 의하여 승리해 온 주체의 청년운동을 뜻깊게 회상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현명히 영도하신 주체의 청년운동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최전성기를 맞으며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고 있다.

주체의 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한계와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던 1920년대 초 조선청년운동에 광범한 청년대중에 의거하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청년운동사상을 제시하시며 이를 탁월하게 구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후, 1927년 8월 27일 대중적인 비합청년운동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시고 동년 8월 28일 드디어 조선청년운동의 지도핵심조직인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건하시었다.

위대한 주체의 사상이론과 위력한 참모부를 가지게 된 조선청년들은 청년학생, 농민, 노동자대중 속으로 진출하며 광범한 군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한편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항쟁을 조직하며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후 조선청년운동은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혁명적 기치를 내걸고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여 소왕청방어전투, 보천보전투과 같은 유격구방어전투, 국내진공작전에서 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 위훈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규모 민족통일전선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후 1936년 공산주의청년동맹을 반일청년동맹으로 전화발전시키시었으며 조선청년들이 사상과 종교를 초월한 통일적 청년조직으로 단결하여 앙양하는 항일무장투쟁과 대중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히 영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세련된 영도아래 조선청년들은 항일무장투쟁 전기간 선봉이 되고 주력이 되어 수많은 위훈과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이는 오늘 조선청년운동의 만년재보인 영광찬 혁명전통으로 빛나고 있다.

해방이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체없이 조선공산당 산하에 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어 진보적인 청년대중을 건당, 건국, 건군사업으로 동원하시었으며 1946년 1월 17일에는 이념과 정견을 달리하는 모든 청년조직들을 통일전선적인 민주청년동맹으로 묶어세우시었다.

민주청년동맹이라는 통일적 청년운동조직에 결집된 조선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영도아래 일심단결하여 건국초기에는 민주개혁을 반대하는 친일반동세력들과의 투쟁에서, 전쟁시기에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 영웅적으로 용감히 투쟁하며 승리의 길을 앞장서 개척함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이룩하였다.

민주청년동맹은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문헌토의사업을 전동맹적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에로 동원함으로써 이남의 청년운동, 혁명운동을 말아먹은 후 이북에 기어들어와 당과 청년동맹에 종파주의를 부식시키고 끝내는 무장폭동까지 기도하였던 미제간첩 박헌영도당의 반당반혁명죄행을 폭로단죄하였다.

민주청년동맹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과 위훈을 달성하였다.

조선청년들은 ≪청년복구대운동≫과 ≪480분합리화운동≫으로 전후 3개년 계획과제를 초과완수하는가 하면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천리마학급칭호쟁취운동≫, ≪붉은기중대운동≫으로 경제건설에서나 사상운동에서나 국방사업에서나 돌격대가 되고 혁신의 기수가 되었다.

60년대 이남청년들 또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역사적인 4.21호소문과 8.15보고문을 통해 반미반이승만 4.19민중항쟁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이남변혁운동승리의 관건적 문제인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영도에 의하여 1955년 8월 1일 창건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주체적인 해외동포청년운동의 전형으로서, 건설된 이후 총련이 내세운 애국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며 일본당국의 ≪일본영주권≫놀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악법조작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였다.

민주청년동맹은 사회주의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1964년 5월에 열린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전화발전하였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사상을 높이 받들어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강화발전하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새

로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돌격대, 주력군이 되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사상, 기술, 혁명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선봉이 되고 ≪3대혁명소조≫에 망라되어 청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한편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비롯한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으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수행하는데서 돌격로를 개척해 나아갔다.

이남청년들은 전국민주화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하며 70년대말 부마항쟁으로 박정희군사통치를 전복시키는 한편 80년대에는 영웅적인 광주항쟁과 전민중적인 6월항쟁의 주력이 되어 전두환파쇼통치를 끝장내는 불멸의 위훈을 창조하였으며 그 성과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로 조직화하였다.

7, 80년대 재일본청년운동도 또한 광범한 청년대중속에 뿌리박고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된 혁명적인 청년조직으로 장성발전되었으며 재일본조선민중의 애국위업을 이룩하는 사업과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동포운동에서 선봉이 되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1996년 1월 17일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대표자회의를 열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아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전화발전하였다.

이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옹위하는 500만의 총폭탄,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관철하는 청년전위가 되어 제국주의연합의 대조선압살책동, 대자연재해를 비롯한 전대미문의 시련과 역경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돌파하는 역사의 기적으로 창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세련된 영도아래 1992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결성된 범민족청년학생연합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실현의 기치를 내걸고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간고한 투쟁을 영웅적으로 전개하였다.

90년대 이남 청년학생들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편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선봉대, 주력군으로서 영용한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함으로써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키는 한편 노태우, 김영삼 사대매국정권을 준엄히 단죄하며 정치적으로 매장하였다.

90년대 재일본조선청년동맹도 이남청년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해외청년운동을 하나의 기치로 결속하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며 범민족청년학생연합을 결성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청년운동영도의 전기간 일관되게 통일적인 청년조직노선을 견지하시었으며 조선청년들의 통일단결된 역량을 발동하시며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영도하시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따라 하루빨리 자주민주통일의 숙망을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현재 정세는 미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이회창패당, 조선일보와 같은 반통일세력들의 발악적 준동에 의하여 김대중정권이 동요하며 6.15공동선언실현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된 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국을 선봉이 되어 주동적으로 돌파하여야 할 우리 청년학생대오는 수많은 정파, 분파로 사분오열되어 역사가 부여한 정의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 청년학생대오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청년운동사상, 변혁운동사상의 진수를 터득하여야 할 것이며 통일단결의 전략으로 고질적인 분열상을 극복하고 학생운동의 일대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의 청년운동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영도에 의하여 백전백승하며 전진해온 영광찬 승리와 위훈의 역사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갈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8일
서울

80년대 - 변혁적 민주주의의 시대

학생운동에 있어 80년대를 변혁적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80년대, 특히 87년 이후 몇해 동안 학생운동은 학생대중의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열망 및 정치적 각성에 토대해 실로 한국학생운동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고양되었으며 학생대중의 투쟁으로의 진출은 격동적이고 광범위하며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났다. 이는 87년 6월항쟁, 대통령 선거투쟁, 88년 1 · 2차 남북학생회담 쟁취투쟁, 전두환 · 이순자 구속투쟁 그리고 등록금 동결요구와 재단비리 척결요구 등을 중심으로 한 일상화된 학원민주화 투쟁 등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이러한 투쟁들에서 학생운동은 자기의 높은 투쟁력과 조직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운동의 선도성과 전투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의 뼈아픈 좌절과 피의 교훈을 딛고 발전해 왔던 학생운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보다 가깝게는 86년 말 이후 정세발전과 관련하여 학생운동내에서 모색되어진 운동의 대중화의 한 반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6 · 10항쟁을 중심으로 한 87년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87년은 해방후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일대 획선을 그은 격렬한 투쟁의 한해였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로 물결치던 6월의 거리에서 학생들은 시민들과 어깨를 걸고 최루탄과 페퍼포그의 집중포화를 뚫으면서 마침내 한달여의 전국적인 투쟁으로 신군부파쇼권력으로부터 6 · 29항복선언을 받아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두가지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었다. 첫째는 86년 말 건대(建大)사건을 비롯한 대대적인 학생운동 탄압으로 말미암아 운동의 핵심적 활동가들 다수가 검거 투옥된 후 새로이 대열을 정비하는 회복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투쟁이 이전시기와 같이 다수 학교간의 조직적 연대 속에서 강고하게 수행되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학기간으로 학생들이 대중적으로 집결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조건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쟁을 조직해내기에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이 학생들의 투쟁전개를 결정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다소 위축된 듯한 학생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만큼 박종철군 사건에 대한 충격과 대중적 분노는 컸던 것이다.

학생투쟁은 박종철군의 모교인 서울대의 87년 1월 20일 추모식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바, 2 · 7 박종철열사 국민추도회, 3 · 3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 대행진을 거쳐 증폭되어갔다. 그런데 학생운동의 대응은 2 · 7, 3 · 3 가두행진에서 주도성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그쳤고 지속적인 투쟁과 광범한 대중동원을 조직해내는 데서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학생운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한계는 조성된 정세 속에서 고문치사사건을 개헌정국과 관련하여 폭로하고 민주적 개헌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정치적 입장으로 선도해내지 못하는 투쟁의 내용적 미흡함에 있었다. 이같은 한계는 학생운동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살인정권 타도의 문제로 끌어올려 그 의미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투쟁은 민중이 하고 정치는 야당이 한다는 식의 낮은 정치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서도 응분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다.

87년 초의 학생운동이 노정한 이같은 한계는 단적으로 1월 31일 개학전 수배학생 400명 전원 검거령이 말해 주듯 신군부파쇼권력의 늦추지 않는 탄압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당시 학생운동의 심각한 조직적 손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이같은 권력의 조직탄압에 의한 역량손실의 극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중노선과 대중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즉 소수 정예의 훈련된 주체들만의 운동으로 한정지어졌던 이전의 운동을 재평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운동의 대중화만이 폭압적 탄압 속에서도 운동의 단절을 막고 투쟁성과의 축적 속에서 꾸준한 성장을 기하며 이러한 대중활동 과정에서만 진정으로 준비된 지도핵심들이 교육 · 육성된다는 대중노선이 정립되어나가기 시작했다. 86년 조직적 탄압과 역량손실에 대한 냉정한 자기 반성과 평가를 통하여 그리고 2 · 7, 3 · 3 투쟁과정에서 학생운동내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이 시기 학생운동의 전환기적 발전이며 성과였다.

2 · 7, 3 · 3 대회에 이어 다시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 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가 구성되고 6월 10일 전국적인 범국민규탄대회가 선포되면서 학생운동은 6 · 10대회의 준비를 중심으로 호헌철폐 · 독재타도의 정치투쟁에 돌입하였다. 학생운동은 호헌철폐와 민주개헌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학생협의회(서학협)를 발족해 투쟁의 구심을 구축하고 서대협(≪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의 총학생회장 및 간부진이 단식농성을 벌였다. 동시에 연일 과 · 단대별 총회와 집회를 소집 개최하여 투쟁에의 대중적 참여를 호소하고 연합 대동문화제를 비롯한 각 대학 궐기 · 결의 집회에 대규모적인 학생대중을 결집해 내기에 이르렀다.

학생운동은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조직적 치밀성을 보여주면서 6 · 10대회를 준비해 나갔으며 이러한 조직정치사업에 힘입어 호헌철폐 · 독재타도 투쟁에의 학생대중의 대중적 참여는 급속히 확대되어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6 · 10대회 이후부터는 학생대중이 투쟁의 주력으로 나서서 투쟁의 전국적 확산을 주도해 나갔다. 특히 6 · 10대회를 치른 후 명동성당을 근거지로 삼은 학생주도의 완강한 농성투쟁은 항쟁의 상징적 거점을 마련, 지속적인 지지투쟁의 전개과정에서 광범한 민중을 투쟁으로 인입해내어, 투쟁의 장기화와 전국적 확산의 계기로 작용했으며 지방시위의 가열화와 전국적인 수백만의 대규모시위를 이끌어내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는 전국적인 반파쇼항쟁에 굴복해 직선제 수락을 발표했다. 노태우의 6 · 29선언은 분명한 신군부파쇼정권의 후퇴요, 직선제 개헌은 부정할 수 없는 민중투쟁의 쟁취물이었다.

학생운동의 견지에서 볼 대 6월민중항쟁의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서대협의 지도하에 실천적 주도성을 보여주었던 광범위한 학생운동이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과 임무에 대한 자각을 높였고 투쟁에서의 자신감을 고취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각은 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학생회의 위력과 임무에 대한 자각을 동반했으며 또한 대학들 사이의 연대 · 단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높였다. 이는 학생운동이 학생회에 기반해 전개되면서 운동 그 자체가 선진적인 일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대중의 것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음을 의미한 것으로써 학생운동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좀더 설명하면 학생회는 6월항쟁에서 비약적인 강화와 성장을 보여 그것의 민주적인 혁신과 전투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기에 이르렀다. 6월 가두투쟁의 주력을 형성했던 학생들은 과 · 단대 학생회와 총학생회의 각급 학생회 단위로 조직적으로 결집, 대중

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투쟁과정에서 학생회체계를 통한 학생대중의 실천적 위력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각급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대중의 광범한 결집은 총학생회를 학생대중 전체의 의사와 요구를 수렴해 실천해내는 실질적이며 자율적인 대표체로 만들어나갔으며, 대학생 대표자들의 협의체였던 서대협을 6월항쟁기간 학생은 물론 민중적 신뢰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쟁의 지도적 조직으로 변신케 하였다. 이는 대중적 합의와 참여를 보장하는 학생회의 운영과 정립이 곧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부합되는 조직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88년은 87년과 또 다른 한해였다.

87년이 2 · 7, 3 · 3을 거쳐 6 · 10에 이르는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한 한해였다면 88년은 4 · 26총선과 6 · 10, 8 · 15 조국통일 투쟁 및 학원민주화 투쟁을 통해 학생대중의 성숙된 정치의식과 발전한 정치적 역량을 표출한 한해였다.

서대협의 조직적 한계를 딛고 서울지역 40만 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서총련건설을 추진하던 서총련 준비위원회는 4 · 26총선을 중심사안으로 한 4월 투쟁의 목표를 대통령선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구국운동의 활로를 열고 도약할 수 있는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그것은 첫째로 총선을 통한 반미반파쇼투쟁의 고양 즉 민정당의 독재국회를 저지하고 민주진영의 다수파 국회를 쟁취하며 이 투쟁과정을 통하여 범국민적 반미반파쇼 투쟁전선을 형성한다. 둘째로 노동자, 농민, 학생의 3대 민중운동의 강화뿐만 아니라 민중투쟁을 지지 · 연대한다. 셋째로 노태우정권의 취약한 고리를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지원세력으로서의 미제를 폭로하여 반전반핵과 전방교육 철폐를 매개로 한 제반의 반미투쟁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서총련 준비위는 서건추와 함께 4월 19일 수유리에서 4 · 19 28주년기념식 및 민정당 패퇴와 민주쟁취를 위한 범국민 궐기대회를 가진 후 종로 일대에서 치열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출발로 하여 낙선 민정당, 처단 노태우를 외치며 투쟁을 강화해 갔다. 그러나 서총련 준비위는 4월총선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보다는 주로 4월 16일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비롯해 4월 28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해나가면서 서총련 산하 조국통일을 위한 특위연합(조통특위) 준비위를 건설, 통일운동의 확산에 주력했다.

학생운동진영은 5월 초 대학들의 전통적인 축제를 통해 대중투쟁을 촉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서총련과 서건추는 총선 이후 조직적 정비를 통한 대중투쟁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각기 투쟁의 목표를 설정, 4월투쟁과 마찬가지로 독자적 활동을 전개했다.

서총련은 첫째, 반노태우 투쟁의 전반적 대중화를 광주학살, 부정비리, 부정집권의 매개를 통해 강화하고 총선의 민주적 저항으로 확보된 반군부독재 연합전선을 강화한다. 둘째, 노동자 – 학생, 농민 – 학생, 도시빈민 – 학생 연대투쟁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단결투쟁, 연대들을 높인다. 셋째, 단독올림픽 저지 · 파탄을 위한 조국통일 촉진투쟁의 관점을 올바르게 세우고 전진시킬 것 등을 투쟁지침으로 설정했다. 이에 비해 서건추는 여러 투쟁사안들 중에서 광주학살, 부정비리사안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민중의 국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적극 활용한다는 인식하에 국정조사권 발동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서건추의 이같은 우편향적 투쟁방침은 대중적 호소력을 갖지 못한채 도리어 보수야당에게 이용될 우려마저 갖게 하였다.

학생운동진영이 대중의 공분을 조직하고 노태우정권을 집중공략할 수 있는 광주학살, 부정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투쟁과 6 · 10회담 준비과정을 능숙하게 결합시키지 못한 미흡함을 노정시키기는 했으나 총체적으로 볼 때 학생운동은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투쟁과 남북공동올림픽 개회 성사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국통일 투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임금인상 투쟁, 민주노조수호투쟁 등 민중생존권 투쟁에 대한 연대투쟁도 활발하게 벌어져 전체적인 투쟁열기가 고양되는 가운데 6 · 10, 8 · 15 조국통일투쟁과 하반기 전두환 · 노태우 일당 처단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진영은 6 · 10남북청년학생 실무회담 성사와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반통일세력인 미국과 노태우정권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민중적 통일논의 확산과 6 · 10회담 성사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획책되는 분단고착화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공동올림픽 쟁취투쟁을 중심으로 헌신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조성만 열사의 분신투쟁을 계기로 조성된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를 토대로 전대협과 서총련은 광범위한 선전전을 수행하고 각 학교별로 통일선봉대를 조직, 이를 중심으로 조국통일에 대한 심포지움, 자료집 발간 그리고 북한바로알기운동과 6 · 10회담, 공동올림픽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조국통일 촉진투쟁의 지속적인 확산을 꾀해 나갔다. 그러나 6월 10일 6 · 10회담을 방해해 오던 정권은 6 · 10회담 참가를 위한 연세대 출정식을 원천봉쇄하였다. 이러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전대협의 주도하에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88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군의 남북청년학생교류 제기로부터 시작된 이 6 · 10회담 투쟁은 과거 저조했던 통일운동이 최소한 청년학생들 속에서는 대중적 형태로 폭발되는 국면을 조성했다. 또한정권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공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봉적 투쟁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켜냈고 노태우정권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본질을 부각시켜낸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렇기는 하나 6 · 10회담 투쟁이 전민중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전개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투쟁으로만 일관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는 6 · 10회담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민중에게 널리 알리고 정부의 단일창구가 아닌 민중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교류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범국민적 대중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학생운동진영은 6 · 10학생회담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교훈을 분석 · 평가하고 ① 남한의 범위에서 4천만 민중을 통일의 주체로 세우고 ② 자주적 남북교류의 확산 속에서 군사 · 정치적인 상호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의 문제를 제기, 확산시키고 ③ 광주학살, 부정비리에 대한 공분을 지속시키고 매 계기를 활용하여 노태우의 정치적 기반을 허물 것과 ④ 미국과 노정권에 대한 구체적 폭로와 효과적 투쟁을 벌이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반미반파쇼 관점에서 8 · 15투쟁을 풀어나간다는 것 등을 방향으로 국토순례대행진과 8 · 15 2차 회담을 준비해 나갔다. 방학이라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6 · 10회담 투쟁의 열기,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서건추의 서총련에의 통합 등의 조성된 조건은 8 · 15투쟁 역시 엄청난 학생대중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6 · 10회담 투쟁과 국토순례대행진, 8 · 15회담 투쟁 모두 상당히 많은 학생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으나 투쟁의 파고를 지속시켜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것은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이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제반 반통일적 제도에 대한 폭로와 결합되어 조직화되었다기보다는 통일에 대한 정서적 염원의 차원에서 머물렀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일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투쟁 과정은 조국통일에 대한 대중적 염원의 확산이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 일정한 균열을 초래, 통일운동의 실제적 발전과 반통일적 노태우정권을 고립약화시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밖에도 학생운동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88년을 경과하면서 학원의 민주화를 향한 몸짓들이 광범위한 학생대중의 참여와 관심에 의해 뒷받침되어 거센 들불처럼 타올랐으며 이것이 89년에 들어서서는 더욱 힘찬 대중투쟁으로 이어졌다.

1989년에 문익환목사의 방북에 이어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임수경씨가 전대협 대표로 참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통일투쟁은 조국과 민족의 하나됨을 갈망하는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7천만 겨레와 전세계 앞에 확인시킨 장거였으며 80년

대 학생운동과 전대협이 이루어낸 빛나는 성과물이었다. 물론 임수경씨의 평양축전 참가를 두고 공안정국의 구실을 주어 민주세력의 활동범위를 축소시켰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이는 반파쇼민중투쟁 중심의 노선에 몰두한 근시안적 인식이었다.

이러한 87년 이후 학생운동발전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87, 88년을 경과하면서 이루어진 학생대중의 급속한 정치적 자각과 권리의식의 성장, 이에 토대한 대중 노선의 대두 또한 학생회의 조직적 결집력의 강화 그리고 학생운동의 전국적 지도구심체로 출범한 전대협의 지도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대중과 민중이 구국의 강철대오로 애정을 담아 불렀던 전대협 –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87년 8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3만여명 학생들의 참여하에 서울·경기·충청·강원·호남·영남지역을 포괄하는 한국대학생들의 전국적 협의체로서 발족하였다.

87년 5월 8일 연세대에서 결성된 서대협(≪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은 6월투쟁을 평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학생투쟁이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투쟁의 질적 성장과 양적 증폭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통일적 인식과 실천을 모아낼 전국적 범위의 지도적 구심체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6월항쟁 과정에서 강화되기 시작한 각 대학 총학생회를 축으로 전대협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학생회라는 학생의 대중조직이 전국적인 연대의 틀을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전국 백만학도의 통일·단결을 크게 진전시킨 쾌사였다.



그러나 전대협 결성이 백만학도의 완전한 통일·단결을 일시에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각 대학은 학생회 활동에서 지역별·대학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 학교별로 학생회와 학생대중과의 결합력의 차이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편차의 극복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학생대중과의 올바른 결합의 문제는 전대협의 결성과 함께 제기된 과제이기도 했다. 이 과제는 전대협의 결성 및 활동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전대협은 학생대중들의 정치적·일상적 요구와 이해를 전대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하게 부합,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각 지역·지구의 협의체가 보다 튼튼히 학생대중과 결합하여 지반을 공고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한국사회의 운동사 속에서 형성된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해 나간다.

이 원칙들은 한결같이 학생대중과의 결합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국적 연대틀의 진정한 통일적인 지도적 구심체로서의 정립은 각 대학의 학생대중의 조직적인 학생회의 민주적 혁신 즉 대중적 결합력이 공고한 학생회가 건설되고 학생대중이 학생회 활동의 주체로 서는 문제가 전국적 연대틀의 전제 및 기초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대협은 바로 이같은 작업의 성과를 전국적 범위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공유해 내고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해가는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진정한 백만학도의 연대를 실현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대협의 결성, 이것은 멀리는 1929년 광주학생사건으로부터 70년, 가깝게는 1960년 4월항쟁으로부터 근 40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학생운동사에서 특기할 사변적 성과였다고 평가해도 그다지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전대협의 결성은 80년대 학생운동사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성과였으며, 전대협은 80년대를 학생운동의 격정의 역사시대로 빛내었고 그러한 80년대 학생운동을 90년대로 이끌어간 견인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대협의 결성이야말로 87년을 한국학생운동에서의 전환기라 평가할 수 있는 또하나의 근거인 것이다. 요컨대 전대협은 한총련으로 발전하기까지의 6년간 자기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대중과 민중의 요구를 앞당겨 실현하고 역사의 새날을 비추는 횃불이었다.



80년대의 치열한 학생운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의 학생들은 노동자, 농민과 변혁운동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단순한 교량자가 아니라 변혁운동을 직접 떠밀고 나가는 추진력, 변혁의 기본동력임을 변혁실천으로 입증하였다.



90년대 – 자기 혁신 모색의 시대



학생운동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그리고 근 10년의 새로운 혁신을 모색한다.

90년 1월 보수대연합에 의한 3당합당이 조작된 이후 노태우정권에 의한 민족민주운동 탄압과 국회날치기 등 국정에서의 폭거가 거세지자 학생운동은 이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80년대에 이어 치열한 반파쇼투쟁을 계속하였다. 91년 수서비리사건이 터진 후 3당합당이라는 반동보수진영의 정치적 쿠데타에 대한 사회각계의 반대와 규탄으로부터 가열되기 시작해 새로운 6공비리에 대한 민중적 분노로 타올랐던 90년대 초의 정국은 한국사회를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운동은 노태우 타도의 요구를 내걸고 과감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해 4월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타살된 강경대군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5월은 학생들의 연이은 분신과 대규모 군중집회로 뜨겁게 점철되었다.

5,6월 민주화 대투쟁은 참으로 치열하였다. 애국학생 강경대군 살해의 아픔과 분노를 부여안고 학생운동 진영은 반정부반파쇼투쟁에 학생대중은 물론 광범위한 애국민주세력을 동참시키고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전대협은 먹는 것, 자는 것을 다 잊고 열심히 투쟁하였다. 대규모의 군중이 거리에 차넘치고 분노의 함성으로 전국이 물결쳤다. 열사들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채 공안통치 분쇄하고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라고 절규하며 장렬하게 숨져갔다.

그러나 학생운동진영은 결정적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 강경대정국을 제2의 6월항쟁으로 이끌기 위한 학생들이 장기적이고 피어린 투쟁에 대해 국민들은 지난날 6월항쟁에서와 같은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학생운동진영의 사업계획의 불투명성과 실천의 미흡함에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직선제에 의한 정권창출이라는 이른바 권력의 정통성을 내세워 6공을 민주정부로 치장하고 5공과의 단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려는 권력의 술책이 먹혀들어간 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정권은 7·7 선언이후 이른바 북방정책의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정책에 있어서 현상적이나마 변화를 보이는 듯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정통성주장과 통일정책의 전향적 자세를 통해서 보수야당의 발을 확실하게 묶어둘 수 있었으며 결국 보수야당과 민족민주운동 세력간의 연대 즉 반파쇼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민족민주운동은 광주학살 문제를 비롯한 5공청산에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고 반민주·반민족정권으로서의 노태우정권의 퇴진 차원에로 발전하고 있지 못했다. 게다가 정원식 국무총리서리계란투척사건을 계기로 포문을 연 보수언론의 학생운동을 향한 일제공격은 학생운동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살해사건을 계기로 한 학생들의 치열하고 희생적인 투쟁은 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의 격렬한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학생운동의 변혁적이고 전투적이며 완강한 모습과 투쟁력을 과시했으며 집결된 투쟁대오로 노태우정권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공격함으로써 노정권의 폭력성, 반민주성을 부각시켜 고립약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경대군 사망을 계기로 한 91년의 대규모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은 두가지 교훈을 찾았는바, 하나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거리투쟁을 오래하기만 하면 된다는 단선적 사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국민여론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운동을 포함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였다.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붕괴된 이후 치뤄진 92년 대선에서의 민중당의 참패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한계성의 노정, 여기에 가해진 김영삼 문민정부의 이른바 개혁드라이브 속에서 학생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6년간 학생운동의 구심에 서있던 전대협을 93년에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어 대학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서의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한총련)을 출범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을 포괄한 백만학도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을 운동의 구심점으로 건설한 학생운동은 또 한번의 분수령을 맞았다.

≪(전략)이렇게 학생운동이 변한 것은 객관적 정세의 변화와 학생들의 주체적 요구가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 해도 군사통치의 종식과 민간민선 정부의 등장입니다. 또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국제정세의 변화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중략)

이런 배경아래 투쟁 속에서 자신의 조직을 강화시켜온 학생운동도 전대협의 틀을 벗어나 한총련이라는 틀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달라진 시대는 달라진 학생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운동은 언제나 조국의 희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 학생운동조직의 대표체인 한총련은 전대협을 그대로 계승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전대협의 조직보다 한단계 높아졌죠.≫(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김병삼, 93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한총련은 전대협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이 대의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단과대 학생회장과 문예·언론·종교 등 부문계열조



직 대표 등이 대의원으로 충원되었다. 한총련 건설은 일반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일반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총련은 학우 속의 간부라는 구호아래 다양한 변화와 생활적 요구에 부응하는 간부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여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조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대협 결성 이전의 70년대와 80년대 중반의 학생운동은 소규모 서클이나 비공개조직이 이끌었다. 그리고 6년동안의 전대협시대가 이어진다. 93년 이후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은 한총련이라는 단일한 전국대중조직에 의해 주도된다. 출범 당시 전대협에 전국 95개 대학이 참가했다면 한총련의 경우 1백 86개 대학이 참가하였다. 이 숫자는 당시 일부 지역의 전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의 숫자다. 핵심간부의 수만 1만여명으로 추산되었다. 한총련은 말 그대로 한국내의 유일무이한 학생대중조직이다.

요컨대 전대협이 변화의 시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모습을 한총련으로 바꾼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줏대와 건강함을 지니고 복잡한 시기를 헤쳐나가는 한국학생들의 지혜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한총련의 주도아래 학생운동은 군사정권 시절의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전선이 퇴색되고 보수와 진보와 대립이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94년 쌀수입저지투쟁으로 기지개를 켜고 95년의 5·18특별법 제정투쟁을 통해 기반을 다시 한번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3 - 94년에 학생운동은 자기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것은 새로이 출범한 한총련 1기의 정책생산과 조직 및 단결의 수준이 그리 높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한총련의 중앙지도력 강화와 통일단결 실현에 주력하면서 1995년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치열한 통일투쟁으로 맞이했고 이어서 1996년에도 학생들의 통일투쟁은 계속되었다. 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공권력과의 일대 격돌이 빚어졌다. 이 투쟁이 이른바 학생운동에 결정적인 위기를 불러온 악수(惡手)로 비난 되고 있는 연세대 사태이다.

연세대 사태의 책임은 언제나 그랬듯이 일차적으로는 정권의 의도적인 학생운동 탄압에 있다. 출범 3년반을 맞는 김영삼정권은 연세대사태 이전부터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학생운동에 체계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었고 그것이 학생들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투쟁을 계기로 정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모처럼 밝아오던 94년의 통일의 서광에 장막을 치고 남북관계를 암흑의 5공시절 이전에로 후퇴시킨 김영삼정권에 학생운동이 조국통일촉진 투쟁으로 맞선 것은 정당하였다. 물론 투쟁사안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영삼정권이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조성한 보수화 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및 노학연대투쟁을 통일투쟁과 어떻게 결합해 나갔는가 하는 점에서는 학생운동이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순수한 통일운동이었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를 두고 특정 정파에 의한 몰정세적인 투쟁이라는 비판은 도리어 정권의 학생운동탄압에 물을 대주는 이적행위가 될 뿐, 학생운동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90년대 학생운동에서 97년 한총련 5기 출범식 사태와 같은 일련의 파행성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학생운동 진영은 그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가혹한 탄압을 극복하고 가슴아픈 동지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과감한 자기 혁신을 통해 거듭나기를 모색 하고 있다.







